

ID저장
로그인
회원가입 ID/PW 찾기

- 노무현이야기**
- ▶ 걸어온 길
 - ▶ 말과 글
 - ▶ 함께 생각해봅시다
 - ▶ 추모게시판
 - ▶ 좋은글과 영상

대통령기록관
16년 대통령 웹기록
참여정부자료실
청와대브리핑

봉하마을

봉화살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추모페이지

▶ **말과 글**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

조회수 : 289420

등록일 : 2009.04.21 16:42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

언론에 호소합니다.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세계 남
은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입니다.

저의 집은 감옥입니다. 집 바깥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의 집에는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와 기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신문에 방송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사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상한 해설도 함께 붙겠지요.

오래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지요. 이런 상황을 불평할 처지는 아닙니다. 저의 불찰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생활은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있는 자유, 마당을 걸을 수 있는 자유, 이런 정도의 자유는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지금 이만한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는 집 뒤쪽 화단에 나갔다가 사진에 찍혔습니다. 잠시 나갔다가 찍힌 것입니다.

24시간 들여다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제는 비가 오는데 아내가 우산을 쓰고 마당에 나갔다고 또 찍혔습니다. 비오는 날도 지키고 있는
모양입니다.

방 안에 있는 모습이 나온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튼을 내려놓고 살고 있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고 싶은 사자바위 위에서 카메라가 지키고 있
으니 그 산봉우리를 바라볼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언론에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 안에서 비서들과 대화하는 모습, 안 뜰에서 나무를 보고 있는 모습, 마당을 서성거리는 모
습, 이 모든 것이 다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것일까요?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의 안마당을 돌려주세요. 안마당에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자유, 걸으면서 먼 산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자유, 최소한의 사생활이라도 돌려주시기 바랍
니다.

- 빠른 메뉴**
- 글로벌네트워크
 - 부산지역위
 - 광주지역위
 - 제주지역위
 - 전북지역위
 - 대구·경북지역위
 - 전남지역위
 - 대전·충남지역위
 - 동호회
 - 봉하 오는 방법
 - 모역 안내

9 이념의
비탕화면
오늘 하루 열지않음

총평 1056개

노창생각 2009.04.21 16:44

대통령님...
부디, 힘을 내십시오~~~~

맹강이 2009.04.21 16:45

우리의 대통령님, 반가움에 일단 꺾고...
진지 잘 드시고 부디 몸상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파즈 2009.04.21 16:45

인간들이 아닙니다 나쁜 것들!!

난술잎 2009.04.21 16:45

건강 하십시오!

kongju 2009.04.21 16:45

힘내세요 대통령님 (_)

대실골 2009.04.21 16:45

대통령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주군으로 삼긴 우리의 잘못이 더 큼니다.
용서하십시오...

첨마음 2009.04.21 16:45

글을 읽고 의구심이 드는건 저뿐일까요?
아침에 동아일보가 쓰시지도 않은 편지를 썼다고
기사를 내는 바람에 의심...

마음이 아픕니다...
절대 지지 마시고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국민이 알권리는 억울하게 죽은
신인여배우 해당언론사 사건이다!
그만큼 괴롭혀라!!!

아이처럼 2009.04.21 16:46

대통령님 힘내세요

내마음 2009.04.21 16:47

아휴...진짜 언론들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임진강용바위 2009.04.21 16:47

내 대한민국에 살고싶은마음이 확 사라지네요.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산비둘기 2009.04.21 16:47

당신은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어린 손녀와의 나누는 따스한 시선도,
가족과 함께 웃음짓는 평범한 일상도,
그 모든 것을 영구히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지켜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심리전으로 당신을 압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심증만으로...
강해지십시오. 어려워도 마음 강하게 먹으십시오. 부디...
님의 뒤엔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이...

지역발전 2009.04.21 16:47

건강유의하시고 힘내시길바랍니다.
지금의 검찰은 검찰이 아니고 언론도 언론이 아닙니다.

무쏘궁댕이 2009.04.21 16:47

언론 때문ㅇ 케격는 고초가 너무도 클기라 예상은했지만...
이정도 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강원춘농님이 제안했던 방법이라도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 내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해결 방법이 있을 겁니다...^^

Kyle-Wish 2009.04.21 16:48

하이에나가 되어버린 기자들...
국민들 중 누가...집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싶다고
그렇게 찍어대는지..그걸 알 권리라고 하더군요 ㅋㅋ
기자들도 참 할 것 아닙니다..
아마 비난꺼리 찾기위해 그 것을 하는 모양인데..ㅋㅋ
어떤 기본보다도 얼마나 답답하실지..충분히 알것 같네요..

기운내십시오...

청청야독 2009.04.21 16:48

노무현 각하 격정마십시오,,
제가 화염방사기로 친일보수언론 기자들을 숯덩이로 만들어 버릴게요^^

날아라병아리 2009.04.21 16:49

인간띠라도 만들까요? 그럼 또 기자들이 취재방해 어찌구 하면서 지랄을 떨겠죠??? 대통령님 정말 너무 맘이 아프네요. 부디 힘내시길.

아주 2009.04.21 16:49

영영 울고있어요

개맘마라기31 2009.04.21 16:49

각 언론은 최소한의 양식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최소한의 사생활을 요구하시는 대통령님의 글을 보며 너무 답답하다...

방긋 2009.04.21 16:49

전혀 문밖 출입을 할 수도 없게 틀어박혀 있는 카메라를 보면서 가슴이 갈기 갈기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었습니다.. 당사자이신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생지옥이라는 말의 뜻을 알것 같습니다.. 대통령님..힘내세요~!!! 그리고 건강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당당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오직 노무현 당신 뿐입니다.....!!!!

didfks 2009.04.21 16:49

노공이산님, 별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얼머나, 힘이 드실까. 요즘 언론들 미쳐 잇는거 같아요. 할일이 없는지???? 노짱님, 노짱님, 부르고 싶은 이름이라서 참 좋아요. 힘내세요. 건강하셔야해요.

이조판서 2009.04.21 16:50

조중동 기자들이 언제 노짱님을 사람취급 했었나요? 부디 마음 굳게 다잡으시고 건강하세요. 봉하마을 한번가서 노짱님 한번 뵈고 싶습니다

운짱 2009.04.21 16:50

아 희망이 무너지는듯 ...마음이 아픍니다

맹강이 2009.04.21 16:50

언론들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24시간을 감시하네요. 그런 열정으로 다른 사건중 취재해보시지. 언론.....이 이렇게 쓰잘디기 없는 거란걸 새삼 느낍니다. 언론이 제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들에핀꽃 2009.04.21 16:50

대통령님께 잔잔한 일상을 맛보실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겐 존경하는 맑은 분을 뵈 수 있는 자유를...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아네스 2009.04.21 16:50

기가찬 일입니다 대통령을 한죄밖에 더있습니까? 손녀는 어떻게요 대통령님 여사님 가족모두 힘 내시고 부디 건강하셔야됩니다

신타 2009.04.21 16:51

진실을 이야기 해주시오
왜 언론에는 아무런 답이없나요

농자 2009.04.21 16:51

대통령님!
너무 마음이 아픍니다.
지켜드리질 못하고 있는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강건하셔야 합니다.
저질스러운 자들의 만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셔야 지켜내실 수 있고 아이들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지금보다 더 강하시고 굳건하시길 열손 모아 빌고 또 빕니다.

홍씨네 2009.04.21 16:51

대통령님...얼마나 힘드신가요..
마음이 아파서 너무 힘듭니다.국민들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마음치유 2009.04.21 16:51

죄인이라도 이런 생활은 안할텐데 :: 아마 언론들도 티끌이라도 잡으려고 발광하는 걸겁니다:: 털어도 잘 안 나오는 데 당황해서 :: 마음이 아픍니다::지금 흘리는 이 눈물들이 비수가 되어 허위와 증오의 세력들에게 돌아갈겁니다.. 부디 힘내시길
님 맘속엔 더 크고 웅장한 정신이 있을테니요;

song여사 2009.04.21 16:51

부디 힘내시길.

매주님 2009.04.21 16:52

노공님 너무나 마음이아프니다,, 힘내십시오,, 못된 기자들,, 못되고 너무나 못되었다. 제가 너무나 답답해서,,

笑而不答 2009.04.21 16:52

아이고 0

그즈ㅏ 2009.04.21 16:52

산꼭대기에서 저격수마냥 총을 조준하고있는 형국이였습니다.
총알보다 무서운 고성능 카메라를 하루빨리 치우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허어~참내. 2009.04.21 16:52

허어~~참내~!
기가막혀서....
끝에가서 누가이기는지 ..끝까지 참아내시고..... 끝까지 사워나가십시다..
미국노체키들....치닐아체비체키덜...이 관치는 세상이 그리오래가지는 모털껌니다..
우짜든가 힘내서 싸워 이겨내입시다...

노생금 2009.04.21 16:52

노무현 대통령님..
마음이 아파 눈물만 흘립니다.
국민들이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있을 행복을위해 오늘도 흐르는 눈물을 참으렵니다.
죽을만큼..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등천목다리 2009.04.21 16:53

대통령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바다새2 2009.04.21 16:53

가슴이 아파웁니다 ㅠㅈ 먹이감 노리는 승냥이떼들처럼 쪼그리고앉아 하나만 걸러라~하고 지키는 저 기자들도 참 마음이 아픉니다. 분명 누군가 저 기자들뒤를 따라다니기만해도 스토커라고 신고를하겠지요 노무현 대통령님 가슴이 참 많이 아파웁니다....

탑건 2009.04.21 16:53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기 잃지 마십시오.
건강하세요...

집앞공원 2009.04.21 16:53

제 마음도 아주 답답합니다. 저들이 죄를 얼마나 받을가요? 도무지 이해않가는 인간들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대통령 임기 끝날때까지 그럴텐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힘내십시오. 여사님도 마찮가지로.

오렌지나무^^ 2009.04.21 16:54

마음이 아픉니다,, 그래도 끝까지 힘내시고 건강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봉하마을에서 편안하신 모습으로 저희들 앞에 서신 모습을 꼭 뵙고 싶습니다.

녹차 한 잔 2009.04.21 16:55

기자들 몰아내러 달려가고싶다..... ㅠㅈ

아침동산 2009.04.21 16:55

일말의 양심도 없는 언론사, 기자들..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박기정 2009.04.21 16:55

참으로 힘드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건강을 챙기주셔야 합니다...
진정한 참정신이란 어찌면 현실에서는 찾기가 힘들지도 모르니까...
아니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에서 찾기란 시대가 많이 흘러야겠네요..
바라보고 듣기만 하는 저희들도 속이 불덩이가 되어 구천을 뱀들고 있는것 같습니다.. ㅠㅈㅠㅈ

당중 2009.04.21 16:55

사랑합니다. 노공님!! 저 언론꼴통들의 행태가 가관이 아닙니다. 꼭 법적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힘드신데, 힘이 되어 드릴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명민킹왕짱무현 2009.04.21 16:56

찌라시들로부터 우리의대통령님을 지켜드립니다...
가마니있으니까 가마니로보이는가?정말화가난다..당장봉화로 달려갑니다~~~~~떡찰들막장소설에 어이상실...우리의힘을 보여줍니다..

타이정 2009.04.21 16:56

아무것도 도와드릴수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이 올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가인~ 2009.04.21 16:57

후우~~~~~ 힘내세요....

paran762 2009.04.21 16:57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아픉니다.
집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게실 것을 생각하면..그 고통은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집 마당조차 마음대로 다니실 수가 없으니..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대통령님..죄송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각종 언론사들..그리고 기자님들..한 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지요.이게 도대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 일인지들..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이런 글을 올리시겠습니까..너무 마음이 아픡니다. 정말 마음이 아픡니다.

매주님 2009.04.21 16:57

노공님~이 일을 ,,노공님처럼 참을성많은분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눈물이 납니다..

경동성 2009.04.21 16:57

아, 눈물이 납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선한사람 2009.04.21 16:57

힘내세요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땡장이 2009.04.21 16:58

노무현대통령님, 하루라도 눈가에 이슬이 멈출날이 없네요.
이런 현실에 분통이 터져서요.
탄핵발의 되던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땅을 치며 울었는데,
너무너무 원통합니다. 부디 건강하시어 사람사는 세상 만들어 가는데
길을 열어주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죽는날까지.

기분 조~오타 2009.04.21 16:58

대통령님
가슴이 울컥 합니다
힘 없는 민초들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
힘 내십시오
살아있는 국민의 권력이 있습니다

머우실 2009.04.21 16:59

노무현 대통령님, 힘 내십시오.
글을 읽고 마음이 너무 아픡니다.

노란눈썹 2009.04.21 17:01

언론은 개뿔?
엄지없기로 천하제일이요(신분중하고 카메라만 믿으니까)
무식하기가 따를 자 없고(받아쓰기만 하면 되니까)
선배들처럼 불의에 맞설 배짱도 없고(알량한 직장 안짤리고 다닐 공리만)
부끄러운 줄은 아예 모르죠(지가 쓴 글을 읽어보면 낮이 뜨거울 텐데..)
꼴에 편안히 잘테도 없는 시골로 취재왔다고 집에다가는 은근히 자랑질이것지?
젊은 애 저 세상으로 보낸 원흉들 집앞에서 날 밤을 까는 열의를 좀 보여봐라. 왜 그건 겁나니? 짤릴까봐.
.
.
다 읽었나?
힘한플로 쫓겨나기전에 썩 꺼지거라. 버러지들아~

주촌 2009.04.21 17:02

힘이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봉하마을 함 들리겠습니다.
^_^

오시리 2009.04.21 17:02

아.....
세상을 원망하기에는 너무나 처절합니다.

박꽃피는달밤 2009.04.21 17:02

어떻게 해야 기자들을 몰아낼수 있을까요?
똥바가지 들고 가서 기자들 대포카메라에 분칠을 해도 시원찮을것 같은데..
노짱님의 고통.. 마음은 저도 봉하에 있습니다..
혹여 입맛 잃으실까 염려됩니다.
절대 식사거르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행여 나중 언론에 나오실때 살이라도 빠져서 헬스한 모습 보이시면
저희들 마음도 아플것이지만.
이놈의 기자들...
헬스해진 모습도 부정확 쪽으로 기사뺏아내는것 자명하잖아요.

조팝나무 2009.04.21 17:02

정말 이제 얼마남지 않은거 같습니다.
힘내세요~~

키 작은 소나무 2009.04.21 17:03

왜 인간들이 만들어 내는 세상은 이토록 불공평한 걸까요? 살인마에 -세간에 의하면- 수 조원을 겁탈해 먹은 전두환, 노태우, 박정

회. 나라를 맡아먹은 빵삼이 등은 버젓이 얼굴 쳐들고 X가는 소리를 주절거리며 살고 있는데....왜 남께서는 이렇게 감옥살이 보다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한 단말입니까?!

왜 인간들이 만들어 내는 세상은.....

한갓 '짐승'이라고 통칭하여지는 동물들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 외에, 부리 또는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나 욕심이 채우기 위해 다른 짐승을 괴롭히진 않습니다.

왜 인간들은 님과 같은 올곧게 살아오신 분을 이렇게 모질게도 괴롭힌답니까?!

정말, 무어라 표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분. '영부인'이라 불릴 수 있는 권양숙 여사님! 당신들 두 분께서 존재하시었기에 그나마 이 대한민국,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하는 이 못난 국민의 한 사람.

뒤편 말 할 수 없는..... 이 슬픔..... 용서하소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박기정 2009.04.21 17:03

총칼이 서슬퍼런 군부시대에도... 뽀빠라 나팔수..

문민정부에도... 뽀빠라 나팔수..

참여정부에서도... 뽀빠라 나팔수..

예수님, 석가모니, 그외 나팔수의 역할들은 앞으로 당분간 쭉~~욱 진행되겠지요TTT TT

용감한시민~~ 도둑이요"" 경찰나오리 왈 ~~ 아니 저기 뛰어가는 무고한 시민이 도둑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공권력으로 도둑을 잡을테니ㅎㅎ

용감한시민~~ 아니 경찰나오리 그사이 저도둑이 안보이잔아요TTT TT

경찰~~ 당신을 허위 신고죄로 체포합니다...

허위신고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 당신은.....

외로운행나무 2009.04.21 17:04

어떻다면좋아요 아직도 그곳에서 무얼하고있는지 도대체어찌자는건지

그냥살게 놔두세요 아니왜그렇게 놔두질않는지 모르겠어요우리의 노짱님

너무가슴아플니다 앞에다가 큰개를 열댓마리풀어서 어떻게좀 해봐요

이곳에있는저도 똑같은심정입니다 흑흑흑

칙칙얼차 2009.04.21 17:05

간첩사건 조작으로 고문 당하고 바보된 우리 똑똑했던 친구들 생각이 나 가슴이 아픕니다. 역사는 폭압과 인권유린의 이 날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또 기록할 것입니다.

천사네트 2009.04.21 17:06

이 글을 읽는 제가 답답할지경입니다.

이 나라에 언론이 있습니까? 가까운 태국에도 일어나지 않는 사생활을 감시받는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분을 속속들이 감시받는 그런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동원리아빠 2009.04.21 17:07

대통령님! 가슴이 아픕니다. 완전히 국민 구경꺼리로 만들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입다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조금만 건디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一音 2009.04.21 17:07

정말 안타깝습니다.

mb님은 임기동안 계속이러진 않겠지요?

휴~~ 한숨만 나네요.

노짱님 이럴때 일수록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추억속봉화산 2009.04.21 17:07

언론이 바로서야 선진민주화가 이루어 진다.

권력의 시녀가 된 대한민국의 정치언론..

언론의 힘이 또다른 특권으로 자리한 대한민국..

떡찰과 언론이 눈 뒤집힌 실제 정치권력과 잘~들 놀아나고 있구나~!

고연 녀들~~~

사람같은사람3 2009.04.21 17:07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오죽 힘드셨으면 그래도 끝까지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당신을 못 지켜드려 죄송합니다.

김눔사 2009.04.21 17:09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세상 한번 바꿔보려고 한 죄치곤 너무 가혹한거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아직 멀었습니다..언젠가는 반드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지켜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박수 짹짹 2009.04.21 17:10

대통령님,, 힘내세요,3년만 참으시면 완전 끝나겠죠,희망이 보입니다.

건강은 어떻게 해요,나쁜인간들이 들여다 보고 있으니 운동도 못하시고,

런닝머신이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데<<힘내세요,사랑합니다.

GOYA 2009.04.21 17:10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글을 쓰셨을지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러나 힘내세요...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전직 대통령이 이정도까지 감시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국가인지 궁금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파이팅~~!!

토르(블루핑크) 2009.04.21 17:10

대통령님...
멀리서 대통령님 고충을 듣는 저는 마음이 한없이 쓰리고 아픕니다.
글을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를 몇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대통령님...
아...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바닷가에서 2009.04.21 17:10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부그럽습니다.

Kyle-Wish 2009.04.21 17:10

이명박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정부로 역사가 기록할겁니다..
일반 시민부터..전직 대통령까지..
자유를 외쳐야 하는 2009년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다른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식사는 꼭 챙기십시오...
건강하셔야 합니다..
여사님도 식사 거르지 마세요..두분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플이파리 2009.04.21 17:10

오죽했으면...이런글을
눈팅하다가 속터져서...에고...맘아피라
기자들아....안뜰을 돌려드리란말이다...
이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것들아.

-----우연히 산에 계시는 분과 통화했습니다.

대통령님과 영부인님 건강을 무척 염려 하고 계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부디, 부디 건강 챙기십시오-----

도미니칸 2009.04.21 17:11

글을 읽으면서 그저 눈물만 내네요..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에서처럼 창조주의 능력을 제가 가진다면 봉하마을에서 관음증으로 눈이 시뻘건 저 카메라들부터 다 치워버리고 싶군요.
제발 카메라 좀 그만 들이대고 "사람 사는 세상"에서 소통하세요!!!
노장님 바보같이 눈물 흘리고 계실 거 같아 맘이 찢어집니다..

효자동 2009.04.21 17:11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납니다!
부디 힘내시고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언제나 응원하며 노공님을 지지할것입니다!

낭만식객 2009.04.21 17:11

대통령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안에 가뭄돈 동물도 이렇게는 취급을 안합니다.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대통령님 건강꼭~!! 챙기세요. 사랑합니다.

고파리 2009.04.21 17:11

어제도 비가 오더니,
오늘도 잔뜩 찌푸려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의연하게 대처하시어,
밝은 모습으로
다시 국민들 앞에 서시길 기대합니다.

하늘담은호수 2009.04.21 17:12

작금의 기자들은 기본적인 프라이버시조차 무시하고 사진을 찍어 특종이라도 되는 듯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와같은 행동을 저는 파파라치수준이라고 정의 할 바 있습니다. 기자들은 반성과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마시기바랍니다.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압박하는 당신들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이 편안한 휴식을 취해야 할 자택에서조차 감옥살이를 하셔야 하는지요. 경호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접근제한을 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테스탄트 2009.04.21 17:12

대통령님!!! 부디 힘내시고 건강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놈의 세상 정말 사람사는세상으로 만들날을 위해서!!!!

밤의이슬 2009.04.21 17:13

노대통령님 하늘에 먹구름이 항상 떠있는게 아닙니다
따뜻하고 푸른 하늘을 꼭 볼수있습니다
힘드시고 괴롭더라도 푸른 하늘을 볼수있을때까지
참고 이겨내십시오
대통령님 옆엔 국민이 있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산천초록 2009.04.21 17:13

대통령 사저를 마음대로 들여다 보고 찍어대는 하이에나들 사생활 침해로 잡아넣어야 되니 오히려 카메라로 그들을 안팎에서 찍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인터넷에 대문짝 만하게 올려주세요 개망신좀 당하게요

얼음공주 2009.04.21 17:15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T.T
오죽하면 이런 글을 올리실까 마음이 아파웁니다.
힘든분께 힘내시라고 말씀 올리기도 죄송스럽습니다.
무쪼록 건강 유지하시면서 힘내십시오..
언제나 응원하면서 대통령님 뒤에 있겠습니다.
당당하게 지내십시오!!!!

들향 2009.04.21 17:15

정말 속상합니다...
그래도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낙동강아 2009.04.21 17:16

안타깝지만 그냥 넓은 아량으로 손한번 흔들어주시고 산책하시면 안될까요?
그 사람들도 먹고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노통의 복이니 어찌겠습니까? 가서 쥐 패줄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냥 넓은신 아량으로 인자하신 웃음을 보내주세요.

千不 2009.04.21 17:16

마음이 찢어집니다.
우린 이것밖에 안되는가?
온통 까마귀떼가 되어 쪼아되고
하이에나처럼 물어 뜯어도
견저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이것 뿐인가?
당장 봉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망원렌즈로 찍어대는 저 놈들부터
개박살 내고싶다.
난 정말 이 말밖에 할 수 없는가?
.
.

지방사람 2009.04.21 17:17

그래요 언론들이 희망있는 뉴스에 매진해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로 갈텐데...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라비크 2009.04.21 17:17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기자놈들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얼굴가리느라 정신없는 상태에서 취재하는 꼬라지를 보고싶네요.

pelham 2009.04.21 17:18

노짱님의 작은 바람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뜰을 마음 놓고 걸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별이네 2009.04.21 17:19

지금 경주에는 탄나라당의 나뉘가 하는 여자가 지원유세에 잘했노라고 떠들어대는 군요 미인계를 써보자는 음모인가보네요,그런
다고 우리 노짱님의 진실된모습과 비교도 안되지요, 많이 힘드실텐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신님께 국민으로 늘 죄송하고 힘내
시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미안합니다.

애련마님 2009.04.21 17:19

언제나 당신곁에서 응원합니다.

넘사모 2009.04.21 17:19

반가운 마음에 대통령의 글을 열었지만 이내 울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못 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해 드릴것이 없다는 것 또한 원망스럽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오롯이 혼자 다 짊어지고 계실것을 생각하니 숨이 막힙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사랑합니다.

야카모즈 2009.04.21 17:21

정말로 이 글을 무대뽀 기자들이 읽고 철수하여야 할 텐데.
아니면 우리가 각 신문사 및 사이트에 날라야 할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제발 기자분들 하루속히 철수하기 바랍니다.

진실된세상 2009.04.21 17:21

현정권은 노통 그만 욕보이고 니나 잘해라. 잘못하는 건 지들이면서
선량한 시민 정말 빨난다.

지도 2009.04.21 17:21

무조건 건강하세요!!! 아~~ 미치겠습니다. 아무런힘이되지도못하고 여기서 한탄만하고있자니 자괴감마저듭니다. 마음같아선 쫓아가서물상식하게들이대고있는 카메라들들 싸~악 쓸어버리고싶은데.. 예효~~나중에또 무슨말로엮어서 궁지에몰아넣을지~~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일단 무조건 건강부터챙기세요..

진주아줌마 2009.04.21 17:22

혼내주세요..결정된것하나없이 추측브리핑하는 사람들 혼내주세요
명에훼손같은걸루다..무고죄같은걸루다
주위사람들의 실망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마음이 아려 못들겠어요 TTT

동마루부동산 2009.04.21 17:22

기자들을 쪼개버리던지? 뿌사버리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국민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터진후라이 2009.04.21 17:22

사실은..지난번 연합신문에서 내 보낸 칼라의 모습들을 보며
어찌나..마음이 처연 하든지..
무슨..엄청난 죄인인양..주눅든..고뇌자의 모습을 잡아 둔 듯..
그런 이미지로 덧칠을 해 두었기에..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하루만..그렇게 두문불출 하고 있어도.
무기력해지고..우울감에 젖어서..없던 병도 생길판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산 자락에..자리갈고 사자를 들여다 보는 광경을 보며.
기가 막히고 말았어요..

아무리..조신하게..우아떨며..살고 싶어도
삶이 저를 가만히 놔 두질 않네요.

봉하주민들..한판 붙어 빠리소.
6월이나 내리갈라쨌드마는..또 뛰이 가야 되면..잡니다.

pulgok 2009.04.21 17:23

노대통령님! 너무 힘드시죠? 보는 저희들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는데.. 당사자이신 분은 오죽하겠습니까? 부디 힘드신 가운데도
꼭같이 견뎌 주세요. 죄송합니다.

달콤살벌 2009.04.21 17:24

등에 업고 다녀도 모자랄 훌륭한 대통령인데..
우리 대통령이 암울한 시대를 만나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시네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곤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 비열한 자들..
민심의 역풍을 맞을겁니다..

등애 2009.04.21 17:24

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저 흥행만이 모든 가치이며, 스포츠 스타들이 애국 때문에 운동하는것이 아니테 너무도 영웅시 되고
있습니다. 조중동과 스포츠 신문들의 농간입니다.

중수 2009.04.21 17:25

국민대혁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9405>

반부패 범민주대연합
■ 국민대혁명 ■

총 2609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 국민대혁명 ■

"분통터져 못살겠다. 정부, 여권, 공권력, XX일보... 개자속들이! 같이 죽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침묵하는 민주시민들이여!

부패한 국가중업원(공무원,정치인,기업대표,언론사대표,권력층,사회지도층 등...)에 맞서 역사의 큰 길에 나와 당당하게 정의의 외
쳐라!

"앞서지 못하면 이종걸의원의 뒤라도 따라라! 겁먹지 말고 덤벼라!"

"돈 없으면 사람취급 못받는다? ... 이런 말이 나도는데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이게 무슨 국가고 나라인가! 대학생들은 비싼등록
금,기숙사비용..등으로 신용불량자 되고 나라꼬라지 잘 돌아간다! 니기미 쓰 | 발켜 옥박에 안나온다. 돈 없으면 사람 취급 못받아?
개만도 못한 대한민국 국가고 나라고 정부고 지랄이고 다 필요없다."
"말이 필요없다. 정부, 여권..개자속들이! 같이 죽자."

"대한민국은 도덕성이 실종된 비열한 자본주의 사회"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대한민국의 복지 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어처구니없는 총격질상에 유럽인들
기절" "기가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으니 한국사람들 자살하는게 당연"

"세계경제10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 도덕성실종 및 복지는 개판...이러니 출산을 세계최저(애를 낳아도 굶어죽든지 말든지 무시하고 정부에서 안 도와주니 출산율이 최저인게 당연..), 자살을 세계1위(대한민국의 현실이 기가막히고 어처구니가 없고 분통이 터지니 자살하는게 당연..), 교통사고율 세계1위(대한민국의 현실이 기가막히고 어처구니가 없고 분통이 터지니 막달리고 막달리받는데 당연..)"

"부패한 국가종업원(공무원, 정치인,기업대표)에 맞서 올바른 역사의 큰 길에 나와 당당하게 정의의 외치라!"

"사생결단" "사즉생 생즉사" "죽기를 각오하고 싸웁시다. 그래야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자식들 후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세계10권인데 경제수준이 비슷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의 여러 나라를 보라. 일례로 덴마크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임금의 3배이상 받고 있고 핀란드는 학원이나 과외가 일체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실업자가 되더라도 의.식.주만큼은 걱정없이 마음편하게 사람답게 살고 임금평등, 교육평등을 실천하고 있다...

작금의 썩어빠지고 불평등한 대한민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어찌된게 세계경제 10위권이나 되는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불철주야 쉬지않고 일을 해도 의식주를 걱정해야 되고 마음편한 날이 없고 애완견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

"범민주대연합" "국민대혁명 초읽기"

■ 국민대혁명 ■

"주사위는 던져졌다."

유시민 "국민들이 계속 이런 식의 의사표시에 머물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다. 국민들이 어떤 형식의 의사표시를 하게 될까, 그건 예측하기 어렵다. 나는 좀 불안하다, 이 침묵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폭발의 강도가 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제야인사 "국민들은 반드시 폭발한다. 그 폭발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부패한 권력층인사, 사회지도층인사, 등을 공개처형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복지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충격실상에 유럽인들 기절 "

개와 까지도 동료를 위해 우는데...

대한민국 국가종업원(정부, 공권력)은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길래 선량한 민주서민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탄압하는가!

윤산참사,미네르바 구속 및 '아고라 조희수 조작'수사,야당정치인 표적기획수사,PD수첩,YTN 표적기획수사 등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어처구니 없는 수사다. 국가종업원(공권력)은 어처구니 없는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또한, 피해당사자와 국민들께 무릎꿇고 사죄하고 반성하라.

현재의 대한민국 국가종업원(공권력)은 왜 사권력이 될려고 하나!

국가종업원(기업,언론사 등)이 포함 된 장자연리스트 실명이 이미 인터넷상에 나돌고 있다.

국가종업원(공권력)은 장자연리스트 및 장자연씨 자살과 관련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수사 하라.

멸절한 20대의 여배우가 자살했다.

이와관련하여 국가종업원(공권력)은 뭔가 느낌이나 짚히는게 없나?

일각에서는 우울증도 있었다고 하는데, 우울증과 이번 자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본다. 우울증도 부정부패, 사회비리에 의해 발병했다.

절대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장자연씨의 자살에는 수 많은 부정부패와 사회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장자연씨의 자살동기나 배경에는 분명히 엄청난 부정부패와 사회문제들이 가려져 있다. 공권력은 장자연씨 자살의 이면에 가려져 있는 부정부패 및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을 엄정수사하여 명명백백 밝혀야 하고 관련 된 국가종업원(공무원, 정치인,기업대표,언론사대표,PD,기자 등)이나 문제인물들을 의법조치 하고 장자연리스트 실명 공개 하라.

또한, 윤산참사가 일어나고 철거용역깡패들이 철거민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유린하고 가지고 놀았는데, 그 동안 국가종업원(정부)는 뭘 했나! 국가종업원(공권력)은 뭘 했나!

미네르바 구속, 아고라 조희수 조작에 대한 수사, 학교폭력, 10대폭행, 윤산참사, 장자연리스트,박연차리스트,야당정치인 표적기획수사,PD수첩,YTN표적기획수사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사회문제에서 인면수심의 강자가 약자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짓밟고 가지고 노는 동안, 도대체 정부는 뭘 했나! 공권력은 뭘 했나!

오히려 대한민국 국가종업원(정부,공권력)이 선량한 민주서민을 간첩으로 폭도로 빨갱이로 몰아세우며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살상한 적도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에 정부가 있고 공권력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가! 대한민국의 존재이유가 도대체 뭔가!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대한민국의 존재이유가 심히 의심스럽다.

국가종업원(정부,공권력)의 정책수립 및 집행 등 국정 의 기본은 잡다한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신의와 정직 도덕성이 기본이다. 개인 및 국가의 최고의 경쟁력도 신의와 정직 도덕성이다. 국가신뢰도, 국가브랜드가치도 마찬가지로 도덕성이 기본이다.

또한 국가의 존재이유 및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의.식.주 안정이 가장 근본인데 국민세금 받아서 먹고 사는 정부, 공무원들은 우리 서민들이 이렇게 의.식.주가 불안정하고 고통속에 있는데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있고 국가의 직무유기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세계10권인데 경제수준이 비슷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의 여러 나라를 보라. 덴마크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임금의 3배이상 받고 있고 핀란드는 학원이나 과외가 일체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상

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실업자가 되더라도 의, 식, 주만큼은 걱정없이 마음편하게 사람답게 살고 임금평등, 교육평등을 실천하고 있다.

작금의 썩어빠지고 불평등한 대한민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어찌된게 세계경제 10위권이나 되는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불철주야 쉬지않고 일을 해도 의식주를 걱정해야 되고 마음편한 날이 없고 애완견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주변의 생계위기에 처한 빈민들과 함께 관공서를 가보라. 통장잔액이 전혀 없고 재산이 전혀 없고 집에 먹을거리도 전혀 없는 그야말로 당장 굶어죽을 위기에 처한 빈민들과 함께 관공서를 가보라.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국가이고 나라인가! 아직도 일제식민지시대인가!

경제도 그렇다. 국가중업원(이명박정권)에서 대운하니 4대강살리기니 하며 어처구니없는 헛소리를 하는데 아니 다 살아있는 강을 또 뭍 살린단 말인가! 기가막히고 얼척이 없다. 왜 국민혈세를 쓰레기처럼 내다버리는가!

대한민국 경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는 사회복지에 집중투입 해야한다.

법도 그렇다. 대한민국 법은 엉쟁이법인가!

언론의 객관적인 조사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실로 드러났다. 강자는 살인을 저질러도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 강자 무죄인 대한민국"

특히 국가중업원(이명박 정권, 정부, 한나라당,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심각한 잘못을 저지려고 있다. 특히 MB악법, 언론악법 당장 폐기하라.

대한민국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이처럼 기본도 안 되어있고 근본도 모르는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국가중업원(정부, 공권력)이 도덕이니 법치니 운운하며 선량한 민주시민들을 탄압한다는 것은 소가 옷을 입고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전 세계 민주세력의 분노를 불러 왔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국가중업원(정부, 공권력)의 일련의 모든 행태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때 기본도 안 되어 있고 근본도 모르며 결코 합법적이고 도덕적이라 볼 수 없고 더군다나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을 금 할 길 없다.

작금의 비참한 현실에 피눈물이 앞을 가린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온데간데 없이 찾을 길 없고 이미"막장대한민국,조작공화국, 은폐공화국, 부패공화국, 동물의한국"이 되어 버렸다.

공자(孔子) 는 그의 제자 자공(子貢)이 정치를 묻자 나라를 다스림에 食(경제), 兵(국방), 信(신의와 정직)의 필요성을 말하고 그 중 兵, 食은 부득이하여 부족하게 되더라도 信은 끝까지 지녀야 한다고 하면서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는 정치 요체를 역설하였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얼마나 부정적으로 인한 보상을 당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현대 사회가 그 복잡한 유기적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직과 신의의 바탕이 절대적이다. 경제 활동에는 더욱 더 그렇다. 정직은 신의와 성실, 근면과 절제를 수반하지만 부정직은 거짓과 조작, 은폐, 기만과 도덕질을 유발하고 결국 그 사회를 불신으로 몰아넣는다.

정직은 개인에게 소중할 뿐 아니라 공공 기관과 정부에는 더욱 더 소중한 것이다.

정직한 정부, 정직한 국가중업원(지도자)라야 국민이 믿고 따르는 법이다.

그러기에 商飭(상양) 은 새로운 법령을 공포하기에 앞서 백성들이 정부를 믿지 않을까 두려워 삼척(三丈)이나되는 나무를 국도의 남문에 세우고 백성들을 모아 이것을 북문에 옮겨놓는자는 십금(十金)을 주겠다 하였으나 백성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감히 옮기기 않게 되자 다시 말하기를 그것을 옮기는 자는 오십금(五十金)을 주겠다 하니 한 사람이 이를 옮기며 약속한 오십금(五十金)을 주어 정부가 백성을 속이지 않고 신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후에 법령을 시행하려 하였다.

법의 시행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고 일단 공포된 법은 어떤 상황하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상양이 시행한 변법의 정신은 계속 진나라 군주들에게 계승되어 신상필벌 정신에 입각한 변법이 시행된 지 약 140년 만에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 공하였다.

그러기에 단대 의 신곡에는 지옥의 가장 고통스러운 밑층이 살인 죄인이 가는 곳ियो. 그 바로 위가 거짓말한 죄인이 가는 곳이라고 썼다. 가까운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선진국의 어머니들은 가정교육에서 정직을 가장 강조하며 학교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직을 최고의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이점 또한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벤저민 프랭클린 은 신용이 금전이며 이것을 충분히 이용만 한다면 거액에 달할 것이라고 하여 신용의 상품화를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정직과 신용을 외면한 채 자본주의화를 추진중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심각한 현상들의 근원이 정직성의 결여에서 비롯된다면 우리의 교육에서는 물론 개인, 가정, 사회 생활 및 국정 논의에 있어서는 더욱 더 이 정직성의 생활화에 심혈을 기울여 더이상 사회의 과탄을 막아야 한다. 이때 우리는 인도의 성웅(聖雄) 간디 가 자기 나라의 가난 해결과 독립운동이라는 긴박하고 어려운 과제를 두고도 비록 나라에 유익이 되더라도 거짓말은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한 그 심경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마비되어진 개인의 인격과 사회의 공공성의 회복은 정직성의 생활화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중업원(지도자)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수립 및 집행시 적극 반영해야 한다.

보라!

어떻게 이뤄낸 민주주의인지들!

대한민국의 국가중업원(권력)이 선량한 자국민을 유린하고 무참히 살상한 비참했던 역사의 현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인변수심의 부패한 국가중업원(권력)은 그들의 탐욕을 위해 치밀한 계획하에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고 선량한 민주시민들을 유린하고 간첩으로, 빨갱이로, 폭도로 몰아세우고 온갖 조작을 일삼으며 선량한 민주시민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어린이와 부녀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유린하고 무참히 살상하였다.

작금의 우리 민주시민들은 수 많은 민주열사들이 무참히 죽어간 비참했던 민주화운동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국가중업원(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기업들의 막대한 국가중업원(경제권력)의 잔인함과 부패를 영원히 감시하고 막아야 한다.

침묵하는 민주시민들이여!

부패한 국가중업원(공무원, 정치인, 기업대표, 언론사대표, 권력층, 사회지도층 등...)에 맞서 역사의 큰 길에 나와 당당하게 정의를 외쳐라!

<http://blog.naver.com/president007>

국민대혁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9405>

진과리 2009.04.21 17:25

오죽하면... 이런 글을 다 쓰실까?
'대한민국공화국'의 허울의 실체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권력의 주구 노릇에 아주 길들여진 검찰과 언론색취들...
잠시만 돌아서 생각해보면, 이번 사건의 '진실'을 알고도 남을텐데...

검찰과 기자 양반들,
당신네들은 자식도 없슈... 나중에 역사의 찌질이로 돌아난 당신들의 행태를 당신의 자손들이 알면 얼마나 부끄럽겠소...
그만들 하슈...
존 말 할 때...

대통령님,
어떠한 경우라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 약속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영원한 내사랑 2009.04.21 17:26

세상이 너무 무섭네요 대통령님 힘내세요

마이올린^^* 2009.04.21 17:26

노무현 대통령님! 권양숙 여사님!

사랑합니다 !! 힘내십시오~~~

지산이 2009.04.21 17:28

답답할 뿐입니다. 얼마나 숨이 막히실까요...이 나라 언론들은 도대체 어떤생각을 가지고 있을까...그래도 강녕하셔서 육체를 보존 하셔야 됩니다.

꽃본 2009.04.21 17:28

기가 막힙니다,저 조중동 쓰레기는 당연히 그곳에 있겠지요,
가슴이 답답해 어찌 해야할지
아무것도 못도와 드리는 민초들은 가슴만 아픕니다.,
아프시지 마시고 건강하셔야 합니다,
여사님께서도 건강하십시오,

포터 2009.04.21 17:29

언론이 아니라 파파라치..
전 국민을 관음증 환자로 아는 듯..
노짱님.. 힘내시고..
화장한 봄을 맘껏 누리시게 되길 빕니다.

아재 2009.04.21 17:29

참 나쁜 언론이네요. 가서 열심히 살펴봐야 할 곳은 안가고 엉뚱한 곳에서 헤메고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으니, 방씨네 집에 가서 힘없고 이쁜 연예인 오는 것이나 감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에 더욱 부합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

멋 2009.04.21 17:31

조중동 기자님들... --::

당신들 사장집이나 그렇게 철통 같이 지키세요!!! (^-)

어쩌면 보안업체에서 당신들을 스카웃 해갈 수도... ^^

바보들의행진 2009.04.21 17:31

노짱님 *忍,忍,忍.*

obd123 2009.04.21 17:32

언론이 제역할을 하지 못할때 대한민국은 희망을 가질수 없습니다.
가슴이 아프고요, 대통령님께서 어찌고 계실지, 눈에 선 합니다.
어려울때 도움이 되지 못하는점 너무 죄송합니다.
힘 내시라는 말 밖예요. 그리고,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져봅니다.

존경하는 노무현대통 2009.04.21 17:32

파파라치가 누구인지 역으로 촬영해서 알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님 힘내세요.

꿈의웃 2009.04.21 17:32

글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스스로 어떻게 할수없는 눈물이 마구마구 흘러내리네요.그저 멀리에서 대통령님을 변함없이 믿고,존경하고,사랑하는 것말고는 제가 할수있는게 별로없어서 너무나 너무 죄송합니다!대통령님,여사님,부디부디 건강하세요!어서

빨리 이 싸움에서 이기시고, 뺏고 싶어 찾아가는 국민들을 편안하게 맞아주세요. 힘내세요!!!!저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어 드릴수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힘내세요!힘내세요!힘내세요!!!!

김사장 2009.04.21 17:34

언론은 제발 양심을 가지소서
이 뭐하는 것이랍니까
사람 가뉘놓고...
이래서 언론이 쓰레기라는 겁니다
대통령님 힘내시고 건강챙기세요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5계절 2009.04.21 17:35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더 큰 힘을 기르세요..

용천미리내 2009.04.21 17:35

막장 드라마 만드는 막장 방송, 막장 신문 모두에게 저도 경고합니다.

!~푸른소년~! 2009.04.21 17:36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네요....
힘내세요~~~~
건강하셔야 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님.. 화이팅~~!!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며 반드시 환하게 웃으시는 날이 올겁니다..
부디 그때까지.... 힘내세요^^

자작나무 2009.04.21 17:36

힘내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늘과랑 2009.04.21 17:39

힘들지만 힘내세요.
만드시 이 문명의 역주행을 반드시 끝을 날이 올것입니다.
머지않아 꼭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rheno 2009.04.21 17:39

김 전대통령(김영삼)이 자주 즐겨쓰던 "대도무문" 이란 말이 생각나네요.

님이야말로 진정으로 "대도무문"을 마음에 담고 살아오신 분이라고 보입니다.

빛은 그 자체가 자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더 밝은 세상이 태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빛은 단연 최고 밝습니다.

정연 2009.04.21 17:40

제가 갖혀 있는 듯 숨이 막혀웁니다.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없는 언론..
왜 언론이 이명박 정부의 시나리오에 춤을 추는 걸까요?
언론 종사자들은 언론 탄압 어찌구 하면서 어찌 결과적으로 이명박을 도와주고 있는 걸까요?
권력없는 한 개인의 과거 개연성있는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 수호해야할 당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걸까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hee 2009.04.21 17:40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초코류의불빛 2009.04.21 17:40

대통령님 힘내세요..

어휴~~ 참!

개시사 2009.04.21 17:42

대통령님 힘 내세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침38 2009.04.21 17:42

내가 마징가 태권브이가 되고 싶단 생각을 40년만에 처음 합니다.
이럴때 힘이 센 마징가가 되어서 힘이 되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친 아줌마라도 되어 봉하마을 가서 주먹다짐하며 찌라시 언론들과
싸워야지 안되겠어요. 저 잡지 마세요~
한 인간으로서 마음이 아파 도저히 마져 읽을수가 없습니다.

게이트맨 2009.04.21 17:43

대통령님 힘내세요....결국 진실은 진실로 보여질때가 올것이고..어둠이 질을수록 새벽도 곧 우리에게 다가올겁니다...그때를 준비 하고 기다려야죠...우리모두 힘내요^^

아라한뜨 2009.04.21 17:44

참으로 통탄할 테러행위입니다.
오늘쎄, 중앙찌라시 교묘하게 바리케이트를 앵글(사저를 앵글속에 박아두고)로 삼아 평상시 순찰중인 경찰을 사저 주변 순찰중이 라고 딱하니 감속스레 설명 해줬더군요..이건 절대 아닙니다. 힘내십시오...!!아자!!

오뉴와근신 2009.04.21 17:44

노 대통령님!
우리가 있자나요.
지켜 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대통령님을 지지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 주세요.
힘!내세요! 힘!!!!!!!

높은하늘 2009.04.21 17:44

노대통령님 힘내세요. 많은이가 당신과 함께 할것입니다. 진정 신이 있다면 이명박 장로보다는 고통받고 있는 당신을 위로하려 하
실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당신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항상 건강을 먼저 생각하시길 이 찬한 백성 간절히 바
랍니다.

하늘우리러 2009.04.21 17:46

붕하 가서 보니 감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감옥에서는 철창 사이로 맑은 공기라도 마실 수 있고
감옥 마당에 나와 산책할 시간도 준다지요.
집안에 갇혀서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우실지...
사는게 사는게 아니겠지요...

언론에 시민들이 경고합니다.
당장 카메라를 치우라!!!
소설을 쓰지말고 제대로 취재한 기사를 써라!!!
검찰이 부르는 대로 받아쓰는 기사는 기사가 아니다!!!
언론으로서 역할 제대로 하라!!!

대통령님 건강하게 버텨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대통령님의 지지자가 되겠습니다.
이 치욕스러운에서 벗어나
햇볕아래 당당히 서실 수 있는 날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흑치산성 2009.04.21 17:46

남께서 쓰신 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메여져웁니다.
생지옥에서 생활하시는거나 다름없으시겠네요.아무런힘이 못되드리는 제가
원망스러워요... 힘내세요 건강하셔야해요.

사자심장 2009.04.21 17:46

기자들 쫓아내는 특공대를 조직합시다.
사생활침해가 너무 심하군요.
조선일보 방상훈이나 공개하지.. 올나라 여성들에게 강호순보다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강호순으로부터는 경찰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미친 방상훈이는 경찰도 자기 손에 넣고 있어서.. 방상훈이에게 걸리면 죽을 수 밖에 없나봅니다.

봄햇살 2009.04.21 17:47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믿기지 않아요!!!!
영화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대통령님 내외 분은 간혀 계시고
어쩔 이럴 수가 있나요!!!
정말 영화 같아요
이 허무맹랑한 영화 같은 현실은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목이 메입니다.

소나무소나무 2009.04.21 17:47

눈물이 납니다.검찰과 언론, 행정권, 삼박자 아주 잘놀고 있습니다.이런세상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만 힘듭니다.힘내십시
요.어떻게 말로 할 수 없습니다.가슴이 쓰리고 무너집니다.그래도 내일은 있습니다.그때까지 꼭 이겨내십시오

백설당 2009.04.21 17:48

에휴..정말 언론들 너무 하네요..
그래도 힘내세요..

김서울맘 2009.04.21 17:48

나쁜사람들... 불쌍합니다(자식들 볼 면목이 없을듯 합니다.)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성경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하
리라." 제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반딧불빛 2009.04.21 17:50

저 쓰레기 언론들 한테는 기대할 필요도 없지만 쓰레기들은 그렇게 순순히 응하지도 않을것입니다.결국 국민들이 지켜드려야 하
고,이겨내야 하겠지요..저 찌라시들 이것이 너희들의 마지막 발악인줄 알아라..최악의 쓰레기들 입니다...왜곡집단들

비두리 2009.04.21 17:50

아! 자유여~
너는 진정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
.
우리가 지키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자유!
그는 진정 어디에 있단말인가?
.
그때가 그림다
그때가~

훈사마 2009.04.21 17:50

상황이 이해가 가긴합니다만 그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운동이라도 좀 하셔야 되는데 건강이 걱정됩니다
어렵고 힘든싸움이 될듯합니다 부디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힘내십시오!!

40대아지매 2009.04.21 17:51

노통님은 완전히 기자들에 포위당하여 계시더군요.
기자뿐만 아니라..언론사 직원도 있는것 같고, kbs 는 전국노래자랑 할때 방송장비 일체를 싣고 다니는 왕대형 버스도 갖다왔더군요.
그들은 최악의 죄인을 취급할것 같은 태도로 포위하고 있더군요.

아주 상식이 없는 싸가지고, 그것을 유도하는 개검과 맹박이도 아주 싸가지 입니다.

greenthesea 2009.04.21 17:52

노장님 힘내세요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싸구려언론에 놀아나는 바보들은 많지않습니다 존경하는노장님은 지금도나에게는 대통령 이십니다

40대아지매 2009.04.21 17:53

봉하주민들은 단결하여, 언론관계자들이 봉화산에 오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당장 추방해야 합니다. 쫓선일보 방사장집에 가서 그렇게 하라고 쫓아야 합니다.

소암 2009.04.21 17:55

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한죄....넘 아픕니다. 보고싶은님...

호적시나위 2009.04.21 17:55

힘없는 백성인지라... 글로 서러울 따름입니다. ㅠ.ㅠ

넘은혜타 2009.04.21 18:00

힘 내십시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베라유니 2009.04.21 18:01

???????

山中나그네 2009.04.21 18:01

야비하고 저열한 언론권력이 이나라를 농단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오직 돈과 권력에미쳐 날뛰는 阿修羅들의 천국같습니다,

건강보존하시고 힘내십시오,
저들은 깨어있는 국민들이 기필코 심판할것입니다,..

소행 2009.04.21 18:02

이~~~ 비열하고 졸렬한 이시대에 ...
오늘 한잔 활랍니다

날고싶다 2009.04.21 18:02

쭈 눈팅만 하다가 이 댓글 쓰려고 가입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다른 어떤 글보다 저를 분노하게 합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바라는 것이 이렇게나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래도 우리는 사람을 믿고, 진실이 통하기를 기원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야하는 것인가...

빈짱노짱 2009.04.21 18:04

똥을 한바가지 그 세끼들 머리에도 부어버리세요..

시골중 2009.04.21 18:07

언제까지나 건강하시고 미소를 잃지마십시오.
민초들은 가슴이 저려웁니다. 웃고계시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행미짱 2009.04.21 18:07

대통령님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ㅠㅠ
힘내세요~~

미도리 남편 2009.04.21 18:10

화나고 억울하게 저 세상떠난 그녀를위해서라도 그놈들 집에 카메라메고 잠복중해라. 나도 그놈들의 일거수 모든 행동들을 알고싶다...

우리세상7 2009.04.21 18:11

대통령님께서 오죽 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통곡할지경 입니다...부디 강건 하시웁기를 두손모아 기원 드립니다.
작당들의 광란도 끝이 있기 마련 이니까요....

날고싶다 2009.04.21 18:11

그래도 힘냅시다. 우리 모두!!! 포기하고 절망하면 지는거죠.
저도 좀 전까지 울고 한탄했지만 다시 투지가 생깁니다. 더 씩씩하게 더 똑부러지게, 더 독하게

러셀 2009.04.21 18:11

대통령님! 멀리 대전에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발길모 2009.04.21 18:12

입에서 욕이 나오지만 참겠습니다, 이 더러운 놈들 권력한테 아첨만 하는

비열한 인간들!! 대통령님 그러게 왜 힘들게 정의만을 고집하셨나요? 하지

노무현을 알고 부터는 자식들한테도 대통령님을 자랑스럽고 현대사 김구 선

생이후 최고의 위인이라 가리키고 있답니다.

kjj7011 2009.04.21 18:12

동감합니다.

사계철 2009.04.21 18:14

언론은 횡포를 즉각 중단하세요.

현장에서 감시(?)카메라를 들고계신 언론인들,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언론사 편집국장과 사주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저주변에서 또는 봉화산에 올라가 감시하고 있다고,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됩니까?
그게 기자정신입니까? 이성적인 행동입니까?

알권리 충족된다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할 수 있습니까? 아..불법이라서 안된다구요..그럼
지금 그대들의 행동은 합법적입니까?
분명히 찍히는 당사자와 주민들이 떠나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사가 여유롭나요? 취재할곳이 그렇게 없습니까?

사진 몇장으로 진실규명에 도움을 줍니까?
오히려, 現정권의 권력에 편승하고, 대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더 받아내기 위한 아부로 의심받기 충분하지 않을까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권력의 오/남용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입니다. 그 본분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행동을 하시길바랍니다.

하늘과비 2009.04.21 18:16

권력이 이기겠습니까

언론이 이기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이 이긴다는 것을 믿고 마음을

다스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자연과 사람 2009.04.21 18:18

언론은 결과가 나온것을 말해주면 되지, 24시간 남의 안방까지 들여다 봐야하는가??? 너희가 들여다 봐야할것은 권력의무차별한
남용과 가난하고,약한자들이다...

달빛소리 2009.04.21 18:20

사진을 자꾸 찍어 무엇에다 쓸 것인지 모르겠어요. 노대통령 모습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darthvader 2009.04.21 18:21

썩을놈의 짜라시 새끼들이군요.

차칸늑대 2009.04.21 18:22

슬퍼지는군요...
앞마당에도 나갈자유마저도 저들에게는 가십거리일뿐,
대통령님의 권리박탈이란 사실조차도 느끼지못하는 언론을빙자한
무자비한 " 폭력 " 외 그무엇도아닌것을...

힘 내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공주님처럼 2009.04.21 18:22

어떤분의말씀처럼 도리어 그들을 취재해서 올려주세요...시시각각

자라는 나무 2009.04.21 18:22

제가 지라시 새끼들 오늘 부로 처리해 드릴게요....

한마음 2009.04.21 18:23

뒤돌아보면 짧은시간이라 느껴질 때 까지 가족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길 기원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존경하며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노동 사랑 2009.04.21 18:24

사랑하는 노공님!!

조이플 2009.04.21 18:25

대단하지요^^노대통령께서 그 만큼 존경할만한 분이라고..

님을 힘들게 하는것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그렇게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작은 사람들도 존경을 하는것입니다!
어찌 잘못이 없겠어요 인간인데.. 그리고 나라를 한순간 리더한 분이신데..그렇게 솔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하신다면
님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안그렇겠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해 놓은것은 반드시 받게 되어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편히 잠들을 잘 수 있을까?
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그렇게 사진찍어대는것 제가 볼땐 앞날이 있어요
앞만 바라보세요!
님의 형편문제는 새날이 빨리 밝아올것입니다.

공주님처럼 2009.04.21 18:25

속상해....죽겠네...이념들 우째해야할지....아..죽일념들....죄에대한 증거를 갖고있는것도 확신있는것도 아니면서....방금보니 한나라당에서조차도“노무현 구속? 글썄...”라는기사를 봤다...우째...값

불펜과연필 2009.04.21 18:26

이게..MB식 전관예우인가봅니다.
죄송합니다. 이모든게 힘없는 우리 서민들만 지키고있는 서글픈인가봅니다.
노대통령님을 지원할 수 있는 힘있는 국회의원이 없어서그럴까요?
YS와 DJ를 이런식으로 매도했으면..
정치보복이니 뭐니 하면서 부산역,광주역엔 폐거리로 물려들었겠조.

용재아빠 2009.04.21 18:27

이번주말은 봉하에 가서 기자들 돌아버리게 한번 해 봐야 겠다...
노공님 편안히 쉬실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저희들이 있다는걸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포항에서...

지후담77 2009.04.21 18:29

어제 봉하마을 갔다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을 합쳐서 노통님 자유를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셨을 노통님 생각하면서 제가 드릴게 가슴아파 흘리는 눈물 뿐이니...
노통님 지켜드리고 싶어하는 국민들 많습니다.
저희가 힘을 모아 지켜드렸음 좋겠습니다.

명재네 2009.04.21 18:31

힘내세요.
언론에 지시면 안됩니다.
얼마나 힘들실지 알지만...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언제나처럼 담대하시고 의연하십시오.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햇감자 2009.04.21 18:32

언론이여 최소한의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보장하라!

하루도 아니고 20여일 동안 당신들이 말하는 뻔치기를 하면서
한가정의 자유를 짓밟는 행태는 잘못된 것이다.
만일 당신집에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좋을까?
잠시 마당에 나와도 사진을 찍고, 창가에 잠깐 얼굴을 내밀어도 사진을
찍어 온 신문 방송에 내면 당신들은 어떨까?

오늘 즉시 철수하라! 오늘 즉시 철수하라!

노랑경 2009.04.21 18:32

사랑 합니다, 존경 합니다.

봄가을 2009.04.21 18:32

아파요.. 너무 아파요
어찌해야 합니까.

마당 2009.04.21 18:33

노짱님, 죄송합니다...정말 죄송합니다..!!!

089250 2009.04.21 18:35

언론사 사진기자 여러분 노전대통령의 사생활 최소한이라도 보장해주시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으로서 견딜수 있는 일인가,, 이게 인간이 할 것인가를,,

한오백년 2009.04.21 18:35

힘을 氣 라고 합니까 여러 사람이 뭉쳐서 해결 하시겠다는 명재네님!! 힘도 시간이 흐르면 노화현상이 오겠지요..!??? 이대로 내둬서다 지치면 사라지겠지요..!! 그래도 우리 노짱님 힘내시고요..!! 당신 을 사랑 합니다

지금/여기 2009.04.21 18:36

부디 건강을 챙기십시오. 그리고 힘내세요~~ 영원히 함께합니다!!!!!!!

내별 2009.04.21 18:37

노공님의 글을 읽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분이 터집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분이 이런 글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슬프고 화가 납니다.
이 몰상식한 세상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찌 하늘아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노공님 힘내십시오.
마음과 생각으로 노공님과 함께 합니다.

해아를 꿈꾸며 2009.04.21 18:37

너무 힘든신 거 잘 압니다.
우리 대통령님 인터넷 잘하시니까
시름이 덜 수 있을 진 모르지만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담긴 곳을
탐색해 보심이 어떨까요?
이 상황에서 무언들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만
그래도 조금 위안을 얻을 수 있으면해서 적어봅니다

bigbros 2009.04.21 18:39

힘 내십시오, 당신이 무너지면 한국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이의사랑 2009.04.21 18:40

사랑합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시기만 잘 참고 견디신다면
앞으로 미래는 반드시 노공님을 모든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할것입니다

노새키 2009.04.21 18:41

해우소 글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제목만 볼 수 있네요 꺾

당초망 2009.04.21 18:41

사회의 공기가야 양심이여야 할 언론이 구린내 풀풀 풍기는 쓰레기가된지 오래인데 과연 우리에게 미래는 있는걸까요!!!

신의 2009.04.21 18:41

무엇보다 건강 잃지마시고 기운내셔야 합니다..긴 싸움이 될지 모르나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는법입니다. 힘내십시오!

산마다강 2009.04.21 18:42

힘 내세요...집안에서라도 국민체조및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지은영 2009.04.21 18:43

오늘 아는 사람들이랑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단순한 아줌마들입니다.
한 사람이 노님 돈받았다는 것에 분개를 하기에 찬찬히 설명을 해줬더니, 금방 순응을 하더군요.
다른 한 사람 말 "두분 저렇게 힘든시다가 혹 잘못 되는 것이냐. 우린 정치도 모르는데, 우리부부가 그런 말을 했었다고..."하시며
"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도 이렇게 안타까워 하는데, 얼마나 힘들실까"
하는 말에 정원에 산책도 못 나오시고 집안에서만 계셔야 하는 안타까움에 대해 토로를 했었습니다.
한 사람 말 이명박 정부가 끝나면 어쩔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단순한 아무 정치적 감각도 없는 사람들조차, 이명박 본인이 더 한 놈인데 그런다고 이해 안 간다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깊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 되는 것입니다.
그 힘든만큼 노님이 이루시려던 민주화가 성큼 다가올 꺼예요.

조금만, 힘드셔도 조금만 기운내세요.
얼마나 힘들실지 압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까요!!!!

이럴때일수록 두분 두손 맞잡고 안에서 더 운동하시고, 밥 더 많이 드세요.

수줍음 2009.04.21 18:43

건강잃으시면 안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하늘하늘 2009.04.21 18:46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정말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봉하로 지금당장 달려가고 싶습니다
너무하는것이냐고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는것이냐고 그사람들에게 따지러가고싶네요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대통
령의힘이되고싶어요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시대의 그냥 평범한 주부랍니다

붕어마니 2009.04.21 18:46

언론..
그 정도로 하자..
더 이상 힘들게 하지마라..

되롱 2009.04.21 18:47

아...마음이 답답하구나...꺾...

건강하이쇼~~

Adonisflower 2009.04.21 18:48

대통령님
마음이 아파 눈물만 흘립니다.
국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있을 행복을 위해 오늘도 흐르는 눈물을 참으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산여행 2009.04.21 18:48

어떡하면 노동께서 덜 힘드실까요.
과거에도 그들은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모양일텐데요.
감수해야 한다 불평할 처지가 아니다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노동께서 당연히 요구할 권리이고 그들이 잘못하는 것이예요.
세상이 잘못된 것을 다 짊어질 필요없고 그렇게 하셔도 안됩니다.
제일 걱정이 늘 그래왔던 그들도 아니고 노동께서 기죽고 힘빠져
하는 일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세상에 감혀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힘내세요!! 절대 기죽거나 민망해하지 마세요.
아직 젊으니까 많은 일을 하실수있어요 잠시 쉬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잘될겁니다 옛일이야기할날이 올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코스피아 선이 2009.04.21 18:49

그럴수록 더욱더 건강 유의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부디 힘을 잃지 마시길~~
대통령에 계실때 조중동을 폐간시켜버리고
한나라당님들 삼청교육대 만들어서 다들 보내버리시지...ㅠㅠ
가슴만 아프네요.....

효민아빠 2009.04.21 18:50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람사는 세상을 위하여!!!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별여행자 2009.04.21 18:50

오늘날의 이러한 상황들이, 그저 울컥 울컥 울음을 삼켜야 하는 어려움이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권양숙 여사님..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부디 강건히 이겨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 절실합니다.
존경합니다.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수그린 2009.04.21 18:51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역대 대통령 누구 보다는 노무현님이 자랑스럽습니다 . mb정권, 한나
라. 이젠 모든 언론들이 검찰이 브리핑 하는대로 픽션 소설을 써 가고 있지만,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넘께서 탄압 당
하는 만큼, 그들은 큰 저항을 받을겁니다.,사랑 합니다 ,,힘내십시오 ,,저는 시간 나는대로 봉하에 들리고 있습니다

연수인 2009.04.21 18:51

제안합니다
차라리 나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 실컷하세요
연일 언론에 사진 실고 대통령님 뜻 보도되도록 기자회견 하세요
아닌건 아니다 맞는건 맞다 말씀하세요
누가 손뼉가겨워보자구요
지켜드릴 사람 많습니다

성동구민 2009.04.21 18:51

언론 이 쓰레기들아..
니들은 개보다도 못한 더러운 종자들이다..
니들에게 신의 저주가..

ysue 2009.04.21 18:51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실지 느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자들.... 정말 너무 하네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태풍팀장 2009.04.21 18:51

노동님...
당신을 지지하는 우리를 위하여..이제부터 교환한 이명박정권과 싸우세요.
감옥가는 각오로 당당하게 불의와 싸워야지요.
지지자의 한사람으로써 너 가슴이 아파고 ...힘이 빠집니다.

저 교만하고..채떼기님들은 당당하게 큰소리치는데...
당신은 왜..저런인간들에게 매번 당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싸우시길...

진일보 2009.04.21 18:52

죄송합니다. 당장이라도 기자놈들 쫓아냅니다

초롱마 2009.04.21 18:54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쭈우~ㄱ 함께 하겠습니다
제남편과 두아들도요..

리키이 2009.04.21 18:54

힘껏 참으세요....
곧 당신의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시인의노래 2009.04.21 18:56

정말 너무합니다.
전 대통령은 인권이 마구 짓밟혀도 되나요?
정말 가슴아픕니다

만허공 2009.04.21 18:56

옛날 옛날 한 일년전만 해도 집권자가 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스스로의 권능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착각한 시절이 있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빠와 할아버지가 많이 죽고 감옥에도 갔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런 글을 올리며 씩씩하고, 님에게 폐를 끼칠까 걱정을 하면서 이런 더러운 정권이라는 생각이 확 더 듭니다.

cozy 2009.04.21 18:58

몇일전 뒷뜰에 나오신 우리대통령 내외분을 사진으로나마 뵈고 반가왔는데... ㅏㅏ
그렇네요.
감옥이 따로 없군요.
그냥 가슴이 아립니다.
멀리서나마 응원을 보내며...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추리마니 2009.04.21 18:58

언론 플레이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전직 대통령에게 감옥아닌 감옥살이를 시키고 있는 딱찰들..
니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흐뭇 2009.04.21 18:58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그냥 대한민국의 3살난 아들의 엄마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몇년을 나라의 아버지로 사신분인데 퇴임후 감사한다고 편안히 쉬라고 박수쳐주질 못할망정 너무 하네요.
국민으로써 저 노전대통령이 마당을 걸어다니는거 산책을 하는거 신변잡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놔주세요..... 제발요

emfvnf1450 2009.04.21 18:59

이젠 참을만큼 참았다,
더이상 자제를 못하겠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짓을 할수있는지,
이젠 전쟁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대통령님 저희들이 지켜드릴게요..

만허공 2009.04.21 19:00

하루 종일 카메라 들이대고, 찍히면 시커멓게 도적놈처럼 조작하는데 어떻게 외출을 할 수 있겠나?
포괄적 감금죄로 너희를 반드시 수사할 것이야!!!

바람새 2009.04.21 19:02

노짱님 똘으로써 의견인데요...그냥 당당하게 나오셔서 매일 기자회견하십시오..노짱님의 입장에서 딱검처럼 매일 언론플레이하는 겁니다..무지한 국민들은 침묵하는 노짱님을 우습게 봅니다.....이렇게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그나마 노짱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잘 이겨내세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건강하셔야 합니다

우끼우끼 2009.04.21 19:05

나쁜놈들 문을놈들

좋은날 2009.04.21 19:06

정말 언론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통령님 내외분에게 최소한 인간이 누릴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지 마세요.
국민의 알권리는 과연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사생활까지도 국민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것인지 언론의 사명과 한계를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대통령님 내외분에게 자유를 드립니다. 언론에게 언론자유가 있듯 한 인간에게는 인간답게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처절하게 호소하는 외마디 외침을 더이상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호기호기 2009.04.21 19:08

대통령님, 한 줌의 권력조차 놓아버린 님의 깊은 뜻을 저들은 저들 마음대로 경망되게 누리고있습니다. 님의 고초가 고스란히 느껴져 또 마음이 아픕니다. 봄은 왔건만 봄을 누릴 자유를 저들은 무소불위의 힘으로 강탈해가고 마는군요.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님 곁을 지키고자하는 저희들을 위로삼으시고 건강하세요

종로 2009.04.21 19:09

노무현 대통령님 힘내세요... 화이팅 !!!

희망한아름 2009.04.21 19:09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기자들 왠 그리 관심이 많은가요?
관심 좀 다른테로 가져가세요?
지금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대통령님 그냥 의식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다니시는건 어떨까요?

대삼이 2009.04.21 19:14

대통령님! 여사님 ...가슴이 미어져 오네요..
부디 강건하소서.

짐승과 같은 사고를 가진자들이 이나라를 혼돈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치 못 하고 최소한의 도의 마저도 지킬줄모르는 위정자들이

찌라시권력과 함께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것이겠죠.

대통령님을 범죄의 제물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은, 아니 사람다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상과 이 미친시간의 끝이 멀지 않다는것을요.

대통령님 화이팅!

山形 2009.04.21 19:15

죄송합니다.. 항상 함께 합니다..

와니어니 2009.04.21 19:16

우리 언론들 참~~!!! 파파라치 보다 더한 수준이구면~! [특종][단독]이라며 연일 쏟아내는 보도들이 참~수준이하라 뉴스보기가 싫어지는 세상입니다.

지레짐작으로 한번 썰러보기식! 어디서 주어들은거 퍼나르기식! 어디 여론이 들판의 소물이입니까? 그제 언론의 역할입니까? 초등생도 웃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하네요~!!!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어 늙어가는 아버지 보고 "그때 왜 우리집을 그렇게 이끄셨냐고?" 따져묻는것과 지금 상황이 다를바 없겠죠? 그래도 아버지께 대한 기본 예의는 지켜야 겠죠~~!!!

아! 아름다워라 이 세 2009.04.21 19:19

이토록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님께 관심이 있나봅니다.

언론의 작태가 아쉽습니다만, 언제 말로 통하던가요..

쾌념치 마시고 산책하고 지내시길 바랍니다.

소우정담 2009.04.21 19:20

힘내세요.

정말 너무들 하네요...

잡생각 버리고 건강 챙기십시오..

kbq0841 2009.04.21 19:23

좋은날이 올것입니다 대통령님 궤히힘내시고 건강꼭챙기시기 바랍니다

청만 2009.04.21 19:24

저같은 사람도 요즘 뉴스 보기가 겁이 납니다. 정말 언론들이 너무 합니다. 앞으로는 언론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전대통령님과 가족분들이 하루 빨리 이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시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殺조중동 2009.04.21 19:29

음.....도움 드릴 수 없다는게 가슴 아프네요...--;;

얼른 4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현민애미 2009.04.21 19:30

힘내세요..건강을 잃는다면 모든걸 다 잃어버리는 것이니....

곧 이 고난에서 벗어 나시길 간절히 빌고있습니다...

삶의권리 2009.04.21 19:32

힘내세요..

이겨 내셔야지요

이정권이 제일 무서운게 님인가 봅니다

하이애나경중 2009.04.21 19:33

어허...정말..인간들이 너무 하는군요...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루체 2009.04.21 19:36

정말이지 화가나고 슬픕니다...

범죄사실을 단정짓고 매일매일 기사꺼리를 흘리는 검찰과
배고픈 하이애나처럼 입맞대로 씹어대고 있는 언론들..
선거가 끝날때까지 이용할 모양이더군요.
아마도 없는 물중이라도 만들고야 말겠다는 집착을 보이는 듯합니다.

지켜보는 저도 답답해서 미칠지경인데...오죽하실까 싶습니다.
없는 병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부디, 곳곳하게 버텨내 주시길 간곡히 바랄뿐입니다..
힘내세요!!!!

바보놈현사랑 2009.04.21 19:37

언론이 대통령님을 많이 깎아 내리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는 사실도 있고 거짓도 있겠지요.

그저 대통령님을 믿어 왔었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일로 실망도 컸지만,

부디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저도 현 언론들에게 세뇌?당한 것은 아닌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부당한 거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믿고있는 믿음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언론들에게 세뇌당한 건가요...?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백오 2009.04.21 19:38

노짱님 힘내세요..그리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루빨리 봉화마을에서 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중지붕 2009.04.21 19:42

씩을 대로 썩은 대한민국 언론과 검경집단
갈수록 힘들어 지네요
노대통령님 힘내세요

달구별 2009.04.21 19:43

마음이 아픕니다. 노무현대통령님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그리고 존경합니다!
언론들은 지금당장 철수하라! 나는 대통령님께서 손녀와 자전거 타시는 모습과, 쭈쭈바 사 주시는 모습과, 장군차 심으시는 등
등...그런 모습이 보고싶다. 너희들의 무조건 찍어대는 의미없는 사진보다 세상을 따뜻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고싶을 뿐이다.
그러니 언론들은 지금당장 철수하라. 대통령님의 사생활을 보호하라.

김아무개 2009.04.21 19:45

너무 아픕니다. 모조록 어려운시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국가에서 한사람의 인권
도 보살피지 못하면서 장애아동의 노래에 눈물은 왜 보이는지 도테체 뭐하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힘내시고 그냥 산책도 하시고
많은사람 모아주시지요 이쯤 되면 저놈들 막하자는거 아닙니까 실없는 소리 하여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
다

낙동가오리알 2009.04.21 19:46

정말 이 경전 해도해도 너무한것 같습니다 힘 내십시오.이제부터 저도 노무현전 대통령님팬 입니다 정말 너무 하는군요 언론들 비
단 언론뿐이겠습니까 마는 건강하십시오

G-fla 2009.04.21 19:48

이건 뭐 스토키 수준이네요
못된 기자들 같으니라고...
진짜 작작좀 하지
정작 취재하고 조사해야 될 사람을 놔두고
마음이 아파죽겠어요 ㅠ
노대통령님 제발 힘내세요...

황석산 2009.04.21 19:50

기자들을 확실히 밀어줍니다. 사자산 절벽위에서~~ 정확 밀어 버리자.

뮤리엘 2009.04.21 19:52

아,, 너무 가슴 아파요. 오죽했으면 이런 글을 쓰셨을까 생각하니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도 힘내세요, 노짱~~~

대하 2009.04.21 19:55

제가 50여년을 살아오면서 대통령님을 알게 되고,대통령님과 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했었습니다.
어제오늘 대통령님의 글을 대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청량기사 2009.04.21 19:56

참여정부의 언론선진화방안에 반대하던 기사새끼들..

"도둑놈 담 넘을때 짓지 않던 개들이
밥 그릇 건드리니 떼 지어 짓더구나.."

신성한 땅 봉화마을에서 침흘리지 말고
단체로 합천 일해공원에 가서 놀아라..

비밀정원 2009.04.21 19:56

허드러지게 핀 봄꽃들의 향연 그리우시죠?
연두빛 새순에 송송 맺힌 은빛 빗방울도 만나고 싶으시죠?
쭈만 참으세요...
쭈만 참으세요...
기운잃지마시구요...

.
.

불암 2009.04.21 19:56

너무 맘이 아픕니다. 노짱님! 힘내십시오. 모든 봉하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Jimmy K 2009.04.21 20:06

정말 너무 맘이 아프네요.. 노무현대통령님 기운내세요.. 국민은 당신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일찍 출근해서 밤에 퇴근하고. 학생들은 아침일찍 등교해서. 별보며 집에오고.. 왜
우리사회가 이지경이 되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인생을 즐길 수 없다면 우리들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현정부는

자꾸 국민을 위하지않는 소수의 특권계층을 위한 정책을 펴는 걸까요.. 하지만 국민들도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투표했잖아요...아파트에 다들 정신을 잃어서.. 집은 그냥 거주하는 곳일 뿐이고 집 한채가진 분들 아파트 가격 올라도 더 행복해지고 그런거 아니었잖아요...

돈나무 2009.04.21 20:08

아~~우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호미든님 진영지기님 또 봉하마을의 아름다움을 열심히 담으시는 분들이 모두나서 진을 치고 있는 저 양심도 없는 사람들을 매일 매일 찍어서 그 얼굴을 공개해야하는건가요? 거기 죽치고 계신분들 당신들 자식에게 훔~룡한일? 하고 있다고 매일 공개해줄까요? 정녕 기자라면 ...이쯤되면 진실이 뭔지 감이 오지도 않나??

칼루아 2009.04.21 20:08

우리가 상상하는 고통 이상을
노짱님께서 겪으시는 듯 해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부디 힘내시기 바랍니다...

언론..이놈우 자식들...
제발..정신차렷!!

gamsa 2009.04.21 20:10

그 분 사진 찍어서 무엇에 쓴답니까?
울분이 아니라, 웃기는 일이군요..
참 말로 웃기네요...;
한심타...한심타...

함장님 2009.04.21 20:10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특히 사생활을 침해당하는것을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근간이 되어주어야하는 언론에서 이를 질타하고 예방해야하는데...일부언론이이 알장서서 인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쿠기맘 2009.04.21 20:11

소통은 이런건가요

노짱님 맘이 다 느껴집니다

힘내세요.

추억 2009.04.21 20:11

위의 어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에나"!!
진짜 하이에나들이네요.
진짜 취재를 해야할곳,
카메라를 들이대야 할곳은 제쳐둔채.....

'미네르바'님의 무죄 판결소식에 잠시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던 마음이
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힘내십시오. 노공이산님!!

광주싸나이 2009.04.21 20:15

정말 저 좀비같은 기자들까지 대통령님을 괴롭히네요...

정말이지 ^^바보 노무현^^ 눈뜨고는 못 보겠습니다..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의 음흉한 속내로 어슬렁거리는 저것들이 대통령님의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기가잡니다...한걸레와 비굴경향도 와 있겠죠??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늘 당신을 응원합니다...ㅎ미내십시오....

모닝콜 2009.04.21 20:19

노무현 대통령님.
힘내시고 용기를 잃지마세요.
누가 뭐래도 저는 믿습니다.

눈비맞고있는 2009.04.21 20:19

말씀하시는게 꼭 감옥에 계신거 같습니다.

이런말을 올리는거 외람됩니다. 차라리 구속되어서 끝까지 파헤쳐보는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많은걸 잃어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

이었는데 말입니다.

적당히 마무리하는건 오히려 증오만 키우고 모든것을 묻어두는 그냥

넘어가는게 됩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빙산의 일각..

저는 노사모도 아니고 솔직히 지지도 표를 주지도 않았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치적인 계산과 논리가 존재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웬지

모르게 굉장히 슬퍼집니다. 돈이 없으면 정치를 하지마라. 관심을 가지지
마라는 말을 새겨놓고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능력이 없는 저도 한때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통합하고 표출될수 있는곳이고 국민의 아픈곳 가려운곳 불편부당한
곳을 해결할 수 있는곳이라 생각되었기에,,,,,,
지금은 정면 돌파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어떤 힘이 되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주제님은 말을 했습
니다. 정치는 돈과 무리가 없으면 힘들다는거 요즘 더욱더 느끼기에
저도 올려봅니다.
거듭 사과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천지 대부 2009.04.21 20:22

노무현대통령님 용기없으시면 우리는 우짤니까?
힘내시고 건강하셔야합니다.
제2,
제3의 노무현이 나와야 이땅에서 살맛이 날것입니다.
대통령님도 답답하시겠지만 많은 국민들도 답답해합니다.
깨끗한 이미지에 황칠하고있는 매국취시기가 한없이 패주고 싶습니다.

전주안 2009.04.21 20:22

지금 이정부에 장점은 그저 평범하고 소심한 나에게도 행동할 양심을 심어준다는거 미친정권 꼴통정권 쓰레기정권 누가 치워 주시
길.....노공이산님 힘내세요

그냥웃지요! 2009.04.21 20:24

대한민국에 일제시대가 다시온다고해도 우리민족 자력으로 독립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총칼앞에 누가 나서서 대한민국의 독립
을 위해서 일할것이며
어떤 언론 어떤 권력이.....

padadac 2009.04.21 20:24

우리의 대통령 나의 대통령님.
우리의 스승님 나의 영원한 스승님,

와신상담 하여 나라를 구한 중국 월나라 구천이 생각납니다.
꼭, 승리하십시오.
건투를 빕니다.

똥똥이 2009.04.21 20:25

제가 가진것이 너무 적어 큰 도움이 되질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큰 권력과 큰 힘이 있었다면 미약하나마 도울수 있을텐데...
마음으로만 늘 응원하고 있으니... 이 노릇을...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천경수석 2009.04.21 20:26

이제부터 싸우셔야 합니다. 방어 후 공격 하세요. 지지 합니다.

너와나 2009.04.21 20:27

현실적으로 기자들을 쫓아 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취재의 권리가 더 큼니까. 인간의 기본권이 더 큼니까.
맘이 아프니.. 사랑하니.. 이러한 말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희망쟁이 2009.04.21 20:28

아자! 아자! 이겨내셔야죠!
이순신 장군처럼!

부끄럽지않게 2009.04.21 20:29

힘내세요. 대통령님...

sumi51 2009.04.21 20:30

모든것이 갑갑합니다.
마음이 힘들때 면산이라도 바라봐야 하는데
이좋은 봄날에 커피를 쳐야만 하니 이게 무슨 경우랍니다?
이래 저래 가슴이 아프고 아무런 힘도 못된다는것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약한 이런 정도였나요

똥똥이 2009.04.21 20:31

지식이 없으니 망한다 하였습니다.
어찌하면 저들의 저 파렴치한 행동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너와나 2009.04.21 20:31

사랑한다... 눈물난다... 힘내세요...

이렇게 편하게 .. 인터넷으로 타자치는 것보다 ..

현실적으로 대통령님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노사모는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을 강구하며 행동하여

진짜 모사모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에이니 2009.04.21 20:32

대한민국을 통치한 전직 대통령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데...정말 죽을 맛입니다. 이 험겨운 고비를 애뜻이 잘 넘겨 다시 우뚝서시길 희망합니다. 사람사는 세상으로 모두 합류 합세다^^쩍사들 모두 청기와집으로 돌아가도록 심하게 얘기해줘야 겠어요...

센스모아 2009.04.21 20:32

지금은 모든 언론이 대통령님과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보 신문이나 방송 까지도요

인내하시고요 언제든지 이 모든 수도 갚아주세요

이 구름만 걷히면 다시 정치 하세요

다시 한번 최고 자리 올릴수 있고요

그때 통쾌하게 이 수도 갚을수 있을 거예요

대통령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부자되 2009.04.21 20:34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밥먹고 똥싸고 또 밥먹고 똥싸고

그리고 또 밥먹고 똥싸고 그래서 100년 살다 죽고 또 밥먹고 똥싸고 100년 살다가 죽고 500백년 후 조중동에서 밥먹고 똥싸고 또 밥먹고 똥싸고 하는 이들의 글과 말들은 찾을 수 없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의 역사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신중도 중요하지만 강력함이 넘치던 5공청문회때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요.

별하 2009.04.21 20:34

대통령님!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 할수만 있다면 집앞에 개처럼 서성거리는 기자들 모조리 다잡아 묶어 우주 밖으로 내던지고 싶습니다..T.T

홍마음 2009.04.21 20:37

안뜰을 돌려달라고 호소하시는것을 보니 안따까운 마음도 있지만, 마음이 더욱 놓입니다. 행여라도... 털면 면지나지 않는것 없다는 속담처럼, 이명박등등에게 티끌만한 명분거리가 있으면 어찌나? 걱정을 했습니다. 노무현님께서는 정말 행복하신분이십니다. 이 시대에 이런 지지를 받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명상을 하시면서 극복해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cjsals 2009.04.21 20:37

강하게 나가세요! 약해지면 안됩니다! 당당하게 모습 비춰주세요! 잘못한것 없잖아요!!!! 왜 뭐하러 그네들에게 부탁 말씀하십니까? 그냥 대통령님 지금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세요! 마당도 거니시고 산책도 다니시고 지인들도 불러서 대담도하시고 하세요! 대통령님이 약해지실수록 이나라 무지몽매한 세뇌당한 국민들은 쓰레기 신문들의 논조에 속아 대통령님을 욕하게 됩니다. 다. 당당한 노무현대통령님이 보고 싶습니다!

digna 2009.04.21 20:38

노짱님글을 읽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치절할 정도입니다.

힘내시구요.

잘못된 언론의 행태로 사람이 누려야 할 고유한 자유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제발들 그만 물러가라.... 정신나간 언론들.

미소가득한여자 2009.04.21 20:38

그래야 그놈덜 월급이란걸 받아서 처 자식 노부모 먹여 살리겠죠.

그렇게 못 하면 조중동 에서 쫓겨난대요. 방송국도 매 한가지고

맘 아프서도 조금만 자유롭지못해도 조금만 ...

곧 좋은날 오겠죠?!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끼리코 2009.04.21 20:39

'재판임의배당제도'

이건 과거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제도임에도,

마치 국보법처럼...

꼴통 정부가 들어서니 마력이 드러나는군요.

특별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임의로 배정을 한다는 말은,

법관에 대한 스스로의 신뢰가 없다는 얘기??

우스운 말입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춰 뽑아놓고서... ㅎㅎㅎ

부도덕한 지도자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 증명합니다.

수면아래 숨죽이고 가라앉아있던 부유물들이 모두 떠올라서

온통 뿌연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노짱님!!~~

진지 잘드시고, 맘고생도 좀 내려놓으시고...

건강하게 계십시오!!

작년에그랬듯이 곧 다시 힘합쳐서,

우리가 이루어던 생태마을과 퇴임대통령의 문화

만드는 작업 다시 시작해야지요!!~~

존경합니다!!~~

선생 김봉두 2009.04.21 20:39

다시 한번 씁니다 노전대통령 비방하는글은 무조건 등록도 안돼나오 이런..

세잎클로버 2009.04.21 20:39

씨클님들, 대통령님 그냥 무시하고 일상을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아 진짜 열받네요.

carolina84 2009.04.21 20:42

대한민국언론은 이미 언론이길 포기한 게 어디 이번 뿐인가요? 띄김과 언론의 합작품에 홀로 바람부는 언덕에서 당하고 계시는 노 대통령님 뒤에는 작은 밀알이지만 우리들이 있습니다. 부디 힘내십시오!!!!

그래도사라 2009.04.21 20:42

힘내세요.. 강한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합니다~
힘내십시오^^

미소가득한여자 2009.04.21 20:43

올 대통령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나쁜시키는 장애인날이라고 그앞에서 징징 우는 시냇하고는...
아이고 구역질나와!

무어거사 2009.04.21 20:46

대통령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Marine Boy 2009.04.21 20:47

치사하고 야비하고 유치하고 졸렬한 어찌면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습니다.
교육이 바로서야 개인도 나라도 바로섭니다.
잘배운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 법 모르는 순박한 사람들을 못살게 합니다.
잘배운 사람안되는 인제보다는 바른 사람만드는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지 강 2009.04.21 20:48

위의 분과 같은생각입니다. 장군차도 둘러보시고... 힘내세요.

암하도인 2009.04.21 20:50

55년 인생을 살면서 많은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중에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의 모습이 가장 빼어났습니다. 인내하는 모습, 국가에 헌신하는 모습, 국가를 위한 의지력등 참으로 다름이들과 크게 대비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칼하게도 두분에게 빨간칠을 하는 무리가 달려드니 말입니다. 언론은 조중동같이 의지를 가진 특정부류를 제외하면 모두가 해마라기들일겁니다. 매편자쓰고 바지를 걷고 호미로 화단을 정리해 보십시오. 봄햇살이 따사로우 겠습니다. 진실된자는 엄청난 온갖오욕을 뒤집어 쓴 후에야 이기는걸 어찌하겠습니까?...힘내십시오. 두서없는 글 미안합니다.
요즘 참 어렵지요?

온다이 2009.04.21 20:53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한없이 눈물이 납니다.
정말 천벌받을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그들도 그 댓가를 받겠지요.
더욱 건강에 힘쓰시고 여기 이 한사람도 늘 노통님을 응원할것입니다.
정말 눈물이 절로 납니다.

하늘님 2009.04.21 20:55

전직 대통령의 비리는 안생길수 없을까?

돈테크만님 2009.04.21 20:57

아~ 노짱님 저도 열 받습니다..
따약 그 녀석들만 죽게 탄지균을 살포해버릴까요?
매일 뉴스테스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하지요..
취가 썩썩 숨겨놓고 있던 각종 썩은 음식들이 아주 냄새가 고약해져서
취소굴 근처의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급히 취를 쓰레빠로 때려잡아
공석이 생겼을 때 다시 한 번 노짱님께서 나라를 통치하시어 뉴스테스크에서 자주 뵙길.. 뵈 때마다 기분좋은데니 생방송 인기가요
보다 뉴스테스크 할 시간이 더 기대되는 날이 오길..
썩놓고 다시 읽어봤는데 제가 썩놓고도 이해가 잘 안가네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X보기싫어 뉴스테스크 안 본다!

.....
흔한 말로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군요.. 뉴스에서 보니까 4.29선거 머시기 때문에 오해소지가 있어서
내달로 미룬다면서요?
조사할게 뭐 있다고..
지네들이 해 먹은 액수는 생각않고..
정말 이만가고 싶습니다.
맑은 정신에 글을 올려야하는데 그렇지 못해 글이 엉망입니다.
이해부탁드리고 부디 힘 내십시오..

活川 2009.04.21 20:58

정치를 보면서 저는 무식이 내 재산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형제라고도 좋아합니다 난 요즘 세상이 망한줄만 알고 숨 쉽니다 그런데 또 아칩니다 그런데이 방에는 온통 난리입니다 늑현이를 잡아엮어 멘다고 난 그리 보지 않습니다 난 시민의 대변자를 믿기때문입니다 제발 호들갑떨지마십시다 우리가 맹박기가 두렵습니까 죄는 누구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죄가 시민을 위한 것인가 자기 본

인을 위한 것인가 그렇다 할 지라도 정말로 죄를 우리가 정죄 할 수 가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진실로 묻고 싶습니다.그대가 아니 권력자가 정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가람아치 2009.04.21 20:58

언론인들의 한심한 작태에 철태를 가하고 싶다. 너무 하지 않은가. 오죽 하면 이런 호소를 하질까?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언론인들은 물러가십시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bmw4067 2009.04.21 20:59

시간이 지날 수록 왜 이리 뼈저리게 당신이 그리운지...
제임시절엔 노무현이 싫어 한나라당 대선에 열심히 참여한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당신의 모습이 너무도 그리웁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양코르 2009.04.21 21:01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은빛햇살 2009.04.21 21:01

가슴에 손을 얹어 부끄러워 할줄 모르는 많은 정치인 들이기에 노짱님에 대한 믿음이 더 큰가 봅니다.노짱님의 진솔한 고백의 바이러스가 머지않아 인정할줄 아는 사회를 만들어 가리라 믿습니다.웃음은 잃지 말았으면 합니다.힘내십시오.

아이랜드 2009.04.21 21:02

정치하지말라는 그 말,,,새삼스럽습니다.아마도 재.보선 앞두고 아부하려고 그런는가 봅니다.참..미운것도 골라하는 놈들입니다.

푸른산호초 2009.04.21 21:05

오늘 전 봉하에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온기있던 봉하는아니였습니다
방송국카메라 신문사카메라
카메라의 눈은모두 노공님 사저로 향해 있고
노공님은 창살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모두내려진채 자유란 조곰도없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파 목이메여습니다.

民草人 2009.04.21 21:06

자아~~우리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자기가 한행동에 책임을지는게 사람입니다 노무현씨 저는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한사람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난 어려움 환경 이모든게 오늘날에 당신을 있게 한거라 봅니다 인권변호사 때에 당시에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습니다 자아 그런데 지금 현실에 당신 모습은 무엇인가요? 정정당당함은 어디로 가고 언론이 흘리는 지면가 뉴스만 보고 이렇쿵 저러쿵 해명만 합니까 예전에 당당함을 보여주고 잘못은 인정하고 옳은거는 옳다구 말하는 당신에 모습이 그러십니까 사랑합니다 노무현님

活川 2009.04.21 21:06

추신 ; 일부 물지각한 배운자들은 못배운자(즉 법률을 몰르는 시민을)들을 이용하여 온갖 몸쓸것을하고도 양심의 선언이나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않습니다 이것은 한심하고 정말 쓰레기가 법을 우롱하는 것 이라고 아니 할 수 가없는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놈 현이를 엿물려고 앙탈을쓰고있습니다 우린 시민은 그냥 보고만 있을수없지요

chlgnmltmdflwk 2009.04.21 21:07

노짱님 힘내십시오. 인간관계에 도전한다 생각하시구 이 어려움 이겨 내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어려움도 능히 극복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그래서 닉네임도 노공이산으로 하신거 아닙니까?존경합니다 노짱님^^

onelove 2009.04.21 21:09

힘내세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지.. 여튼 용기내십시오..

희망찾기2 2009.04.21 21:10

일요일날 가보니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많이들더군요...
힘내시구요. 언론이 정신차릴때까지 조금만 참으세요

Marine Boy 2009.04.21 21:10

배짱으로 삼시다란 책이름이 생각납니다. 노공님이 거리길 것이 없다면 좀 더 당당하게 생활하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이 노공님을 지지하고 믿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잘 참아 넘기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jelpy 2009.04.21 21:11

사랑하는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자택에 연금되어 계십니다.

이 나라의 법에 의해서가 아닌

조종동이란 이름의 언론 폭도들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러운 직업은

전직 대통령일 것입니다.

잘 해도 욕을 먹고

잘 해도 누명을 쓰고

누구는 잘만 휘두르는 그 자리를

어떤 분께서는 고이 지키시다 다시 국민 품에 돌려주려 하셨는데

무지한 국민은 그 권리조차 찾지 못하고

다시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당신 한번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병신입니다.

건강하세요

엄마랑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누구들만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닐테니까요...

먼 곳에서나마 당신을 응원합니다....

시라소니黃 2009.04.21 21:11

언론만 그렇습니까? 검찰을 위시한 이 정권 모두가 그런것을...

아~~~~~정말 목숨걸고 이 정권에 대항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活川 2009.04.21 21:12

그래도 난 당신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 시민의 대통령으로 영원하시고 미래를 창조하시고 그 누구에게도 굴하지않으시고 난 당신이 우리 시민의 지도자 헌신자로 더욱 빛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구년 2009.04.21 21:13

솔직히 국민의 알권리야, 적법하게 수사가 진행되어 종결되면 해결될 것인데 대중의 호기심을 이용한 뉴스의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 현실을 현혹 오도시킬 수 있는 무책임한 보도와 그를 통한 현혹된 현실의 향유, 또 한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에 까지 이르고 있는 지금의 언론은 확실히 이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노골아저씨, 동일한 상식을 갖는다는 것이 이다지도 어려운 것일줄이야..

해된사랑 2009.04.21 21:13

힘내세요...사랑합니다. 건강하시구요.

너와나 2009.04.21 21:13

노대통령님은 만능이 아닙니다.

혼자서 모두 알아서 척척 할 수 없습니다.

노사모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소박한 들꽃 2009.04.21 21:13

일요일에 봉화산에 올라 갔다가 깜짝 놀랐죠..설마하니 이런일이 사자바위 바로 코앞에 대포카메라를 사저 쪽으로 딱 버티고 세워 두고 기자 들이 빙 둘러 앉아서 죽치고 있더군요..세상에나 ..이런일이 기가 막혀서 생~감옥이 따로 없게 만드는 ..기자들도 나이가 들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죠~~ㅍㅍㅍㅍ진짜 너무 하는 인간들 아예 음식물까지 먹어 가면서 죽치고 살더군요 쓰레기도 질질 흘리고 다녀서 인근 주민께서 몹시도 맘상해 하시던데... 어휴 모두 쫓아 내야 할텐데..얼마나 맘상하셨으면..

cosmopia 2009.04.21 21:14

얼마나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실지... 글을 읽으며 눈물이 땀 됩니다.. 기자놈들 종일 들이댄 카메라를 통해 노통님판 트루먼쏘라도 제작할 예정인가 봅니다. 뉴스에는 연일 몇 십분은 꼭 노통님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ㅠ 선거가 끝나면 잠잠해지려나요? 작년 이맘 때 돌아오는 출장길에 들렀던 봉하는 참 평화로웠고 노통님도 여유있어 보이셨는데... ㅍㅍㅍ

애환몽 2009.04.21 21:17

신경민 앵커분께서 **MBC 9시**테스크를 하차할 때 말한 것입니다."희망을 품은 내일이 언젠가 올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3년 남았습니다. 희망을 품는 내일 .. 반드시 올것입니다. 두고보십시오. 반드시 그들은 무너질겁니다. 반드시 ...

깊은 강 2009.04.21 21:18

대통령님을 이 지경까지 몰고가다니... 송구스럽고 또 송구스럽습니다. 힘내십시오. 때가 오면 거대한이 모여지리라 믿어봅니다.

최선생 2009.04.21 21:18

노짱님, 힘 내세요.

노짱님을 사랑하는 수 많은 촛불들이 있습니다. 그 촛불들이 노짱님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막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임을 믿습니다.

더빙터 2009.04.21 21:18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중말 화만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계셔서
용기있지않고 살아갑니다. 건강하십시오.

活川 2009.04.21 21:20

그대의 솔직한 말씀을 우리는 되새겨 민주주의가 빛을 바랄 때 까지 영원하고 기도하고 평화가 그대 품에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노래 2009.04.21 21:22

일억번 더 존경한단 말 하여도 부족할 우리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글을 읽고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이 범주를 벗어난 사생활 침해에 이르도록 언론사들의 더러운 것에 분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권 여사님과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노공이산님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취박이란 놈 때려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패대기쳐 작살내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취박이는 국민들의 작살에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는 것마다 비패한....

노공이산님 권 여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tmfgl8652 2009.04.21 21:24

정말 얼마나 답답하셔으면 눈물이 났니다 언론분들 제발자제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신의소리 2009.04.21 21:24

언론에 시민들이 경고합니다.
당장 카메라를 치우라!!!
소셜을 쓰지말고 제대로 취재한 기사를 써라!!!
검찰이 부르는 대로 받아쓰는 기사는 기사가 아니다!!!
언론으로서 역할 제대로 하라!!!

대통령님 건강하게 버텨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대통령의 지지자가 되겠습니다.
이 치욕스러움에서 벗어나
햇볕아래 당당히 서실 수 있는 날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digna 2009.04.21 21:25

노짱님
나오세요..
나오셔서 해 진 하늘도 보시고,
어둡속 봉화산 자락도 보시구요.
내일, 안 뜰에서 해 뜨는 모습도 보세요.

생각하면 할 수록 마음이 아픕니다.
저번에 봉화에 갔을 때 사지안 어딘가를 서성이실 노짱님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사람 좋아하시는 노짱님께서 집 밖으로 한 발자욱도 내딛지 못하셔서
얼마나 답답하실지 아픈 맘 가득안고 돌아왔습니다.

알라뷰건 2009.04.21 21:25

힘내셔야 합니다.
반드시 되 값을 날이 올 테니까요.

창현엄마 2009.04.21 21:25

이상한 세상으로 변해가는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무얼 어떻게 해야하나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우리가 하나로 뭉칠
시간이 머지않았음을 느끼게 해주네요.

이~런 2009.04.21 21:26

언론에 의한 가택연금, 무엇을 어쨌길래 저리들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네?
고만좀 해라! 숨쉴 쉬고 싶다고 하시잖나??

은솔맘 2009.04.21 21:26

얼마나 답답하실까...생각만해도 가슴이 터질거 같은데 실로 당하시는 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노대통령님 작은 보렘이라도 되
드리고 싶은데 어찌해야 한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맘이 아픕니다.....

活川 2009.04.21 21:27

난 님의 글을 읽고 인생의 소중한 터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깨우쳐주신 예언자이시다라고 솔직한 님의 생각과 최소한의 가정의 행복이라고 일깨워주신 님께 찬사와 평화로운 삶속에 우리에게 예언자 아니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 2009.04.21 21:28

마음이 너무 아파요.
힘내세요. 노짱님....

산하 2009.04.21 21:29

대통령님 절대로지치시면안되십니다 힘내십시오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저들이원하는것이모든걸치쳐서포기하게만들려는것인지
도모르니까요 그리오래지않아모든일이 다 제대로될거라믿습니다 대통령님 여사님모쪼록건강지켜주세요

동서통합 2009.04.21 21:29

대통령님...얼마나 힘드신가요..
마음이 아파서 너무 힘듭니다.국민들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와락 2009.04.21 21:31

아..
진실은 꼭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아직 길은 있습니다!

넓은광야 2009.04.21 21:33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노대통령님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잘 참아 내시고 힘을 내십시오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피도하는봉황 2009.04.21 21:33

있을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일인데, 노짱님 강건하세요.이런일이 마지막이 아닐것 같아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
렇게.... 전 아직도 이땅의 정의를 믿습니다.

무상초 2009.04.21 21:36

어찌 세상이 이렇노??

우리섬마을 2009.04.21 21:40

힘내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시간은 당신편입니다.
저들은 뭉치뭉치한 민중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가행수 2009.04.21 21:41

정말 언론들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24시간 감시당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취재해서 나가면 될 것이지 남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것은 스토킹한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겠어요..
제가 노공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니 잠시 생각해도 참 끔찍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서 말을 못하겠어요..

사람이 햇볕을 쬐야 건강하다는데 요즘은 노공님께서 햇볕을 보지 못하셔서 걱정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건강 꼭 챙기시구요..
힘내세요^^ 화이팅^^

가을여자 2009.04.21 21:42

이 아픈 가슴을 어찌하오리까...~~~오죽하시면 언론에게 이런 글을 쓰셨을까..생각하니.가슴이 미어지네요..노공이산님..여사님..조
금만 참으시고 건강부터 챙기세요..그들도 사람이라면..~생각이 조금은..~~~변하겠지 싶은데..어쩔지..~~부디 힘내세요..~

영이 2009.04.21 21:44

나의 대통령님! 오늘 다섯 번째 글이 올라왔습니다.
힘드시지만 그래도 표현을 해주시니 좋습니다.

참으로 이럴때는 성능 좋은 카메라가 원망스럽습니다.
사자바위에 앉아서 몇백미터 거리의 집안을 훤히 들여다 보고있으니...

기자님들! '특종' 이란걸 잡으면 좋겠지요. 수당도 올라가고, 승진에도 도움이 되시나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업무 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기는 하지요. 경쟁일테니...
하지만 모든 기자분들이 이렇게 남의집 안방까지 들여다보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않고 이러지는 않을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
'기자정신' 이라는게 있지 않나요(?). '정의로움' 뭐 이런것까지는 아니더라도. - 이려고 계신 기자님들 한테 이런말이 소용이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내일부터는 카메라의 높이가 사저의 담장보다 낮아졌다는 소식을 접하기를 바랍니다.

wltslv 2009.04.21 21:50

얼마나 힘겨우시면 저러실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노짱님. 힘내십시오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힘이 되어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hyun49 2009.04.21 21:56

훌륭하신분 제발건강하셔으면 좋겠습니다.
2009-0421. 22:50

인간혁명 2009.04.21 21:56

현재의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 악마와 같은 것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럴수록 힘내시고요,
참으로 건강이 걱정됩니다.

세상의진실 2009.04.21 21:56

윤봉길 의사가 되어볼까 심히 고민중입니다!!!

전엔 그런 마음을 잘 알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살아도 사는게 아닌 이 나라에서

과연 힘없는 우리가 선택해야할 것은 무엇인가

요즘 심히 고민 중입니다.

조국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신 분들이

요즘 들어 부쩍 마음 속에서 차오르게 됩니다!!

노공을 이렇게 만든 이 나라는 썩고 썩어서

어쩌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싸글이 사라지지 않는 한.....

노공 당신은 몇몇하게 그리고 그 환하고 따뜻한 미소를

잃지 말아주세요!!!

홀로우는새 2009.04.21 21:57

아...이 기사를 보니...카메라서있는곳에 불을 지르고싶네요...

감옥보다 더 심한 감옥이네요...

발해땅윤 2009.04.21 22:00

봉화마을 파이팅! 쫄팽들 지~!아무리 떠들어도 영양가 없습니다 봉화 마을의 성화는 더욱 세계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희망이 존재하는 세상 2009.04.21 22:00

제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입니다. 최소한의 인권도 지켜지지 않는 언론, 검찰의 행태.. 그리고 그것에 대해 아무도 입을 열어주지 않는 방관... 저는 푹푹히 보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한 일을 넘어서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헤스티아 2009.04.21 22:01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언론의 권력이 그렇게도 대단한것인가 하고 생각도 하게됩니다

만들어진 죄는 있어도 스스로 잘못하신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 국민들 너무도 우매하기에 여기까지 오시게 했습니다

잘못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대통령님 당신 스스로 잘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마저도 당신이 잘못했구 면목없어 하신다면 우리 바보같은 국민은 더욱더 저들의 최면에 걸릴것입니다

지난 참여정부때처럼

대통령님 적극적으로 임해주시시오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당당하신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모든게 저희가 못났기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셔야하구요

시시로 2009.04.21 22:02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분들께...

생지옥이 어떤것인지 아시나요?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서 손을 내밀것인가요?

저는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손을 내밀어 줄것이

제 삶에 원칙입니다.

그사람이 좋은 싫든 누구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서 저는 이 환분을 위해 손 내밀어 잡아주렵니다.

이렇게 사이트에서 구호처럼 외치는것이 아니라

직접 손 잡아주고 싶습니다.

24시간 누구를 감시하는 카메라 앞에

저는 24시간 제 얼굴을 디밀어 대고 싶네요.

그사람들 누가 이기는지 보게

우리들이 힘을 합하면 그 사람들 두손 두발 다 들고 가버릴텐데

멀리멀리 천당으로...

평화를원해서 2009.04.21 22:03

맘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기74 2009.04.21 22:03

식사 거르지 마시고 두 분 대화 나누시면서 진지 드십시오.

손자분들 사진 보시면서 얘기 나누시면서 웃으십시오.

마음 상하시면서 몸도 상하실까 심히 걱정입니다.

일단 건강하셔야 합니다.

힘내십시오.

제 정신인 사람들은 님을 믿습니다

해룡이 2009.04.21 22:06

언젠가는... 언젠가는... 참 단단한 그 들입니다...언젠가는.. 언젠가는... 평검들...허! 당신께서 입 열게 해주니... 당신 입을 막고자하네요!

훈초 2009.04.21 22:09

엇그제 일요일날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사랑하는 색시와 함께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저는 45세의 나이에 첫장가를 간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만세" "노무현 대통령 만세" "노무현 대통령 만세"

노무현 대통령 만세를 열 번도 더 외쳤습니다.
그 다음

"이명박은 정치보복 및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은 정치보복 및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은 정치보복 및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런 구호를 다섯 번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봉하국밥 한 그릇 먹고, 또 외쳤습니다.

이명박은 말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를 꼭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주변을 국세청과 검찰을 동원하여 살살히 뒤지면서 비열한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서부 영화에도 선전포고를 한 다음 서로 총을 겨누는 데 말입니다.
이명박이 사람입니까?
따님이신 정연 씨 부부의 계좌까지 뒤졌다는 뉴스를 보면서
전두환, 노태우 보다 이명박이 더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지금까지 검찰에서 의혹을 제기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당신은 국민 앞에 떳떳할 수가 있습니다.
힘 내시고, 이 위기를 꼭 이겨내십시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역사는 대통령님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짱나짱 2009.04.21 22:09

너무 속상합니다 ㅠ.ㅠ
노짱님..제발 힘내세요.
여사님도 기운내시구요.
봉하마을에서 노짱님의 환한 미소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보미니&성우 2009.04.21 22:09

노공님...
예전처럼 방문객을 맞는것은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 맞서보자는 식으로요
안그럼.. 봉하주민들과 회원들이 사저에 카메라를 모두 철수 시키고 싶습니다

천상사신 2009.04.21 22:11

힘내세요^^ 언젠가는...모두들 알아 주겠죠. 감옥도 이런 감옥이 따로 없네요..감옥도 1명을 많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감시를 하지는 않는데요.. 이견 저기 저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감옥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와는 딴 판의 세상 같군요..우린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요..힘내세요 대통령님~

머르지 2009.04.21 22:17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국민들이 차츰 차츰 이견 아니다 이견 아니다라고 생각이 변했습니다 이들이 국민을 속이고 세상을 어지럽게하지만...

맘지기 2009.04.21 22:20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얼마나 힘드시면...
노짱님 지지자들을 생각 하시며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테스 2009.04.21 22:22

맘이 넘 아프군요. 힘든 시련 잘 견디시고 이겨낼거라 믿습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준~ 2009.04.21 22:23

힘! 힘! 힘! 내세요~

삶에대화 2009.04.21 22:24

님이 있어.... 저는 지금도 견디고 있어요...조금더 힘 내시고 이 위기를 이겨 내시길...대한민국 국민은 님을 사랑 합니다

안녕하세요 2009.04.21 22:30

정말 속이 상하는군요. 언론들이 언론구실들도 못하면서.. 힘내십시오.

백가이버 2009.04.21 22:30

음.....
철폐강이나 공3이는 좋겠다
기자들은 장삿꾼이다 팔리지 않는 사진은 관심이 없다
고로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진행형이다.

가천 2009.04.21 22:31

뭇모습이라도 비울 때 순간적으로 반가웠습니다. 언제 부턴가 뭇모습도 정다운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비운 그 뭇모습이 거머리 같은 기자들의 카메라로 찍힌 걸 이제 알고보니, 반가웠던 마음이 그저 미안하기만 합니다.

네코 2009.04.21 22:32

제 인생 침으로 카페(?) 활동을 시작합니다. 노대통령님께 힘을 드릴려고요.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제가 돈 많이 벌면 대통령님 후원금 많이 드려서 이딴 일도 안 일어나게 해드리고 싶네요. -독일에서-

마담처럼구름처럼 2009.04.21 22:32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밝은 날이 꼭 옵니다.
부디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cochi 2009.04.21 22:32

역시 우리 대통령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대통령님에 의해 분명 한국의 대통령사와 민주주의가 변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성숙한 시민정신이 그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 부끄럽지 않은가요? 국민들이 진정 알아야 할 권리에는 침묵하고, 자기 신문사 사주라서 침묵하고, 힘있는 권력에 침묵하고, 그러지 마세요. 진실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왜 24시간 사저에 카메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까? 국민이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국민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원합니다. 왜냐, 올바른 절차에 의해 대통령에 뽑혀 5년 간 있는 힘을 다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신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구차한 행동을 하면 국민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 언론 스스로 지켜 주십시오.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역시 가장 인간적이었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이 시련이 어서 지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물흐르는소리 2009.04.21 22:39

맘이 아픕니다.

노아방주 2009.04.21 22:44

역대 대통령중에 가장 인간적이고 이웃길 아저씨같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노대통령님! 얼마나 힘들고 맘고생을 하고계십니까!말할 수없는 심정으로 하루하루지내시는 모습을 생각할때마다 맘이 저러옵니다.도울수있는 방법이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는데 딱히 떠오르지않아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글로 위로드립니다.힘내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나마 노대통령님과 함께하겠습니다.여전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색상자 2009.04.21 22:45

언론기자들의 사명감은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아파트에, 당신의 안방에 내가 기자랍시고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당신의 행동을 감시한다면 이에 동의 하실 것인지요? 제발 이르지 마시다. 노전대통령도 인간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말을 하면 노사모아닌가. 민주당 지지자였던 사람이 아닌가 의문을 가질 사람들이 깨설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전 노사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당 지지자도 아닌 정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창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사람입니다. 우리 나라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연일 흉악범죄자 인냥 날마다 언론브리핑을 하는 대검 홍만표라는 수사 기획관의 언론플레이도 이제는 느끼할 정도이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지시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느낌도 듭니다. 기자여러분 홍만표의 언론브리핑에서 대해 다른 의도가 없는지 취재를 좀 하기도 하세요. 무슨 살인 범죄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흉악범도 아니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고 가사 현재 나타나는 돈의 금액 전부가 노전대통령에 관련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은 심수억원에 불과한 것인데... 이정도의 돈 이라면 재벌이나 극부들이 노대통령의 회갑, 자녀 결혼, 생일축하, 퇴임후 풀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5년동안 기부한 금액정도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보통사람들이 건네는 축의금의 경우 절친한 관계인 경우 요즘 10만원정도인데 보통인들의 재산과 재벌들의 재산을 서로 비교하여 재벌들의 축하금을 고려해볼경우 1억원 정도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드러나는 돈은 축하금 정도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형제와 같은 분이 찾아와 청탁과 전혀 관련없다고 하면서 퇴임후 활동에 사용해 달라고 준 돈을 받았다면 무슨 문제가 되는지요. 세금포탈요? 그렇더라면 우리 국민 모두를 수사해야 합니다. 안 그런가요. 이제 그만합시다. 대검 수사관계자도, 언론기자 여러분들도 제발 정도를 지킵시다. 짧은 소견으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최인경 2009.04.21 22:47

저 또한 마음이 편칠 않습니다.확실한것은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것이지요.강건하시고 건강하십시오.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조중동탄박멸 2009.04.21 22:49

오죽했으면 정자와 기자를 비유하여 사살될 확률이 비슷하다고 했을까요?

이나라 기자들은 이미 사회적 공기니 정론직필이니 상식이니 인권이니 하는것과는 거리가 먼 하이에나 떼들과 다를바 없는 짐승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흑석동에 사는 밤의 황제놈들한테나 이런 관심을 보여주면 똥침 깎수키 썰를 까봐 이런 몰상식한 짓을 하는 쥐...

호천사 2009.04.21 22:50

노 대통령 힘내십시오 카메라앞에 친막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랑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진실은 승리 합니다

네코 2009.04.21 22:51

임기말에 하신 cnn과의 인터뷰 봤었습니다. 그때는, 노전대통령에 대해 잘 몰랐지만(현정부 들어선후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대통령하면서 참 힘들었나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통령 선거때 일반국민들로부터 받은 선거모금함이 자랑스러워보였습니다. 이제라도, 잠시나마라도 좀 편히 쉴 수 있으시면 좋으련만... 아마도 이명박 정부에게는 아직도 노무현이 가장 큰 정치적 걸림돌이 겠지요... 그럴수록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만 더 커지는 줄도 모르고... 전, 부디 노대통령이 이번 일로 넘 많이 속상해하지 마시고, 건강 해치시지 말고, 이 시기 잘 극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정치계에서 큰 힘을 발휘하실 날을 기다려봅니다. 퇴임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아직 많이 젊으십니다.

ypp 2009.04.21 22:51

정말 나쁜 언론입니다.

이고득락 2009.04.21 22:52

힘내십시오.

타머스홍 2009.04.21 22:53

뇌물현 당신은 정말 인간말종이다.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당신에 먹은 뇌물에 대해 솔직하고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실토하고 조금
이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하는 생각이다. 어찌하여 남자가 되어가지고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마누라며 자식을 다 물고들어
가서 법정에서 세우려고
하는지 정말 당신은 자갈치 시장의 잡배만도 못한 사람이구먼~~!
당신을 한때나마 지지했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연민의 정을 느낀다.
거짓과 핑계로 주둥이 그만 나불거리고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살길 바란다. 부탁이다.

sycho7777 2009.04.21 22:55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슈퍼맨3 2009.04.21 22:55

기자 옛날에는 독재에 국민을 대리하여 항거하는 언론의 수호자였으나
작금의 기자들.....
한마디로 이명박씨같은 부류에게 성접대나 받으며 호의호식 하는
인간쓰*기들이죠,.... 특히 조중동문,경제지 예들은 아주 창*수준의 기자들이라는것 세상이 다알죠

시넷물 2.0 2009.04.21 23:03

편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세요... 지금 이 때 꿈 속에서나마 평안하시길.....

리캠 2009.04.21 23:03

버려지같은 놈들이 제 정신이 아닙니다.
조금만 견디시면 좋은날이 곧 올 것입니다.

aino 2009.04.21 23:05

노무현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망원 2009.04.21 23:15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지들 마음대로 찢고 찢갈기고 터트리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건강 잃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Gates 2009.04.21 23:17

대통령님 힘내세요.

으랏차차! 2009.04.21 23:17

언론이 유독 노전대통령께 잔인한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mamaria 2009.04.21 23:18

예휴...힘내십시오 대통령님..그리고 아래 어느 분 말씀처럼...가슴씩 펴고 카메라에 찍히더라도 당당하게 여기저기 산책하세요. 무슨 죄지었습니다..괜찮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빨간사과꼬마 2009.04.21 23:20

어떤모습이든 자유로울수는 없을것 짐작합니다..
대통령님 .
그들이 대통령님의 말씀을 듣지않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님께서 마음을 좀더 편안히 가지시는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

코알라ksj7 2009.04.21 23:23

노무현 전대통령님이 집에서 사시는 모습,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Nice-guy 2009.04.21 23:25

개인적으로 봤을때 마음이 아픈글입니다...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한 사람으로써 이제는 큰 사람답게..남자다운 모습을 잃지 않길 바
랄뿐입니다..몇년전 세상을 바꿀사람이 당신 이라며 하루를 봉사했던 사람입니다..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서면사나이 2009.04.21 23:26

취재기자들에게정중히부탁드립니다^^저격수같이사자바위위에서저격총(??)같은카메라로사자를정조준??하는영상이TV화면에
비쳐질때저건아닌데싫더군요.아니나다를까오늘(저희집안뜰을돌려주세요)라는메세지를보고참담함을느끼기전에비참함을느껴
몇차례입니다.먹고살기위해서또는특종을잡기위해서하는구도겠지만취재기자양반들!이건아니지요.정말이건절대아니지요.인간
의존엄성을대포한건강과직결된사생활의자유를최소한은주셔야죠대한민국의법태두리안에서검찰이조사하고있는것은기정사
실이아닌가요?실사,전직대통령이아니더라도사생활과건강을연결시키는알마당까지저격카메라가(?)정조준하는일은지양되어야
되지않을까요?인간으로서의최소한의행복추구권의예의를물지켜주시기바랍니다.이건.국가인권위원회에서처리해야될사안아닌
가싶군요?부디알마당을손녀와같이손잡고오고갈수있는자유를전임대통령께돌려주세요.전임대통령께서는사저에있는게감옥보
다더하다고합시다허기야감옥은맘놓고운동할수있는시간이라도있다는것을명심하고돌려주세요.기자양반들에게정중히부탁드립
니다.개미군단들의부탁이기도합니다^^

호보기 2009.04.21 23:28

이 천추의 한을 풀기전에는 절대 죽지 않으렵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민심은 우리편입니다

산이조아 2009.04.21 23:29

노무현 전대통령님에 대해 역사는 결국 올바른 평가를 하게 될것입니다...
힘 내시기를 바랍니다...^^

테리킹 2009.04.21 23:50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믿습니다. 힘내세요^^

좌과 2009.04.21 23:52

기자여러분!
조선일보사 앞에가면
기삿꺼리 많습니다.
그쪽에 가시면 방씨형제 구명동서 이야기.
12억 이야기.
쓸꺼리가 무궁무진 한데
왜 봉하에서 죽메리고 계십니까.

그러시다가 어디선가 날라오는
짱돌에 호박이 터질수도 있으니
어여 한양으로 올라가십시오.

복어탕 2009.04.21 23:56

이런 시련이 있는 것은 님이 큰사람이라는 것을 저들도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그래서 흠집을 내고 싶은 것입니다.끌어내려 저들과 같은 격으로 만들고자 함이 아닐까요.저들을 측은하게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대응하시면 전화위복이 될 지도 모릅니다.

자안 2009.04.21 23:56

힘 없어 보였던 임기 시절의 노대통령님..그러나 그 의미를 이제야 알게됐습니다.. 권력을 국민에게 넘겨주셨던 것을...그것도 모르고 바보같다고만 했지요...그러나 저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은 역대 한번도 자신의 주권을, 정당한 주권을 행사하며 살아 본 경험 이 없기에 그 자유조차 힘들어 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역사상 최초로 권력을 국민에게 넘기려 했던 시민의 대통령임을 선언합니다....그리고 언제나 함께 할 것을 선언합니다..사랑합니다

청용도사 2009.04.21 23:58

힘내세요..건강하세요..저희들이 반드시 열배이상 되갚도록 하겠습니다...

꿈치 2009.04.21 23:59

기자야~ 그렇게 신문사 사주 뒤틀다거리하면 너네들 인생이 필것 같지?
한치앞도 못보는 인간들하고는...쫓쫓쫓

희망한아름 2009.04.22 00:00

타머스홍/먹은 뇌물? 뭘 가지고 그리도 확정해서 말씀하세요? 죄 없어도 죄 있다고 자백하라고 고문하던 독재정권 수사관과 어찌 그리 똑같은가요?

SoulMagic 2009.04.22 00:02

웃긴건 뉴스나 언론에선 이런글은 보도안한다는것.

초뭍 2009.04.22 00:13

노짱님! 힘내세요~
이런 말 밖에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힘내세요~~~

비단장시 2009.04.22 00:14

힘내세요..

많은분들이 함께합니다 ..

용기를 내세요 ..

두려워마세요 ...

어찌 2009.04.22 00:14

기운내세요~ 기자님들은 퇴근하시구..

풀이엄마 2009.04.22 00:15

참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언론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알권리를 묵살하고 두고 보겠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폭발하는 날엔 국민들이 꼭 갚아줄날이 올것입니다.

쥬이 2009.04.22 00:19

힘내십시오.....!!!!

다른 전직 대통령 혹은 현직 대통령 같았으면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댈수 없게 인력을 동원했을텐데...당신은 참으로 대단한 어른이 시십니다.훗날....그것조차 거룩히 기억되리니 부디...힘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들께....우리같은 사람들의 진심이 있음을 또한 기억해주십시오.

참...대한민국 정치인들 덕에 노공님이 성인이 되실겁니다.

참...못난 인간들이 많네요.피해의식에 가득찬 찌질한 인간들...

기자들도 희생양이겠지요?ㅋㅋㅋ

멤마니 2009.04.22 00:20

가슴이 답답하네요.

우리가 언제 다시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을 만날수 있을까

diplly 2009.04.22 00:26

이 글을 보는 내내 눈물밖에 안나네요ㅠㅠ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당신께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해서 정말 나중에 꼭 제 일에 성공해서 대통령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난남자 2009.04.22 00:26

언론의 권력인 쓰레기 신문이 주축이 되어 매일 같이 취재 바로 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

힘내십시오...

햇살비추미 2009.04.22 00:28

대통령님 힘내세요... 대통령님께서 고통받는 모든것이 민주주의의 디딤돌이 되는것이라 믿습니다 정치. 권력. 이런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과 가족분들이 받으시는 고난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어수선한 계절에 건강주의하시고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피터팬 2009.04.22 00:28

노대통령님의 글을 보고 있으니...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요....
그리고 ..언론을 보고 있자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부끄럽습니다..
작은 마음이지만 ...끝까지 힘내시구요...건강하십시오...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분이 계속 나오셔야지...건강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화이팅입니다!!!!!!권양숙여사님도 화이팅입니다!!!

용궁 2009.04.22 00:30

마음아픈 글이네요. 용기잃지마시길 바랍니다.

하얀민족 2009.04.22 00:31

노통님 저들에게 주눅드시지 마시고 그냥 당당히 나오십시오
아무리면 어떠합니까 그냥 당당히 자전거도 타시고 틀에도 나오시고 산에도 오르시고 힘내십시오 그리고 당당해 지십시오

같은마음 2009.04.22 00:31

마음이 너무아프네요..
힘내세요.. 그 말 밖에는.....

칼의 노래 2009.04.22 00:34

예전에 하셨던 말씀 기억합니다.
노통께서 이유야 어떻든 시끄러운 것에 대해 고개 숙일 일이 있다면 오직 일반 국민입니다.
그 외, 정치인이나 권력층에게는 절대 고개 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드시 당당하고 멋있게 하셔야 합니다.

Flash_01 2009.04.22 00:37

당신이 걸어온 길을 존경하는 학생입니다.

존경받을 일은 존경 받고, 처벌 받을 일은 처벌받고 당당해 지시길 바랍니다.

존경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marin 2009.04.22 00:41

아무리 알바라도 이 글에는 비난과 반대를 하지마라

아무리 공인이라도 기본권은 있는 법이다.

푸른하늘엔 2009.04.22 00:46

정말 나쁜 언론들입니다.
내 진작 알고 있었지만.
노무현대통령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더욱 분노가 치솟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셔야 합니다. 님은 당신 혼자만의 몸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미안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유리창너머 2009.04.22 00:46

맘 아픕니다. 너무너무.... 하지만 비운뒤의 땅이 더 단단해집니다.
힘 내세요. 노짱님!
다 잘될겁니다. 파이팅 하세요.

생각과느낌 2009.04.22 00:48

가슴이아프네요 이고비 잘넘기세요 건강챙기세요 정말 분통터지네요 힘내세요 우~~~~~

푸른소나무@ 2009.04.22 00:51

해도 해도 님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양심도 없습니까? 자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기자라고 멋뻑이 말할수 있나요?
진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도 양심도 없는 놈들입니다...

대통령님.....죄송합니다...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뜰이엄마 2009.04.22 00:51

노공님은 참으로 행복하신 분입니다. 여러 무수히 많은 국민들이 당신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여자하면 뛰어나갈 태세입니다. 검찰 들 계속 그런식으로 하라고 그러십쇼.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의 피는 더욱 들끓을테니깐요. 늦겨지지 않으세요? 노공님?

쇠마님 2009.04.22 00:52

정말 언론 해도해도 너무하네요...너무 잔인합니다...말그대로 감옥입니다...밖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마당을 거닐지도 못하는 심정...생각만해도 참 답답하고 화가납니다...어떠한 도움도 못드리게 너무 죄스러운 따름입니다...힘내십시오 건강 잘 챙기시구요...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존경합니다

까칠쑈 2009.04.22 00:52

답답하시죠??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래요...

도레미파솔라시도 2009.04.22 00:58

힘내세요,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의 희망 2009.04.22 00:59

이건 뭐 연예제라시 기자들도 아니고,,
남의 사생활에 뭘 캐낼것이 있다고 덤비는건지..
기가잡니다...

노짱님 글에 힘드신게 보이십니다..
기운 내시고,,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소예 2009.04.22 01:02

사람사는세상...
사람답게 누릴 최소한의 자유를
무참히 깃밟히시는 이 현실이 제대로 해석되지못하였을 때

슬렸습니다ㅠㅠ
좌절합니다ㅠㅠ

그,,러,,나,,

노무현대통령님,
암울했던 수많은 날들 굳건히 견디어오셨음을 기억합니다!!

감감한 어둠 저편에...
다시 불타오르는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님께서 지나오신 길을 통해 확신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뽕순이 2009.04.22 01:07

언론들..진짜!! 제발!! 작작 좀 하자!!
진짜 욕 나온다!!!
미친것들 아니야??

사로 2009.04.22 01:10

언론의 선정주의가 극단을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는 언제부터인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죄, 사생활보호 등 다른 국민의 기본권을 저만치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힘있는자인 검찰과 언론, 정치인들에게만 인정되는 방어막입니다. 연예인 리스트에 등장하는 언론관련 힘있는 자들에 대해서나 힘있는 정치인들, 정부나 검찰에 대한 비판이나 관심은 명예훼손죄로 마구 고소, 고발을 합니다. 알권리, 명예훼손 이 두가지는 전형적인 이중잣대가 잡혀집니다. 진보이건 보수이건 모든 언론, 권력을 가진자들이 똑같이 이중잣대를 요구합니다.

점점 더 일본의 선정적인 언론을 닮아가는 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형사 피의자들의 얼굴을 비추고 피의자 가족들을 괴롭히고, 한마디로 양심없는 기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도 변명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일본문화에 젖어 일본 언론이 하면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친일파가 따로 있겠습니까? 양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성인 친일, 한류가 아닌 일류를 추종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기에 더욱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편집팀에서 요구하는 것을 국민의 알권리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알권리는 언론사가 양심도 없이 인간성 다 버리면서 하는 갖은 비인간적인 일에 대한 변명거리가 아닙니다.

진보언론들에게 고합니다. 더이상 주류의 이슈선점에 반응하는 식의 기사 받아먹기는 그만 두십시오. 재정이 힘들어서 창의적으로 이슈를 만들어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양심없이 글로서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취재입니까? 아니면 월급이 삭감된 기자 자신의 일자리, 밥그릇을 위한 취재입니까? 양심이 있다면 얼굴이 붉어질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소설 그만 쓰시고 조카들이 다니는 눈술학원이라도 가서 글쓰기좀 배워 오시기 바랍니다. 10대들이 당신들 기사를 보고 웃고 있는줄 알기나 하십니까? 자식들 보기 부끄러운 짓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리아스 2009.04.22 01:13

안그래도 사방에 설치해 놓은 카메라와 모여 있는 기자들 사진
참여사진관에서 보고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건 창살 없는 감옥이 따로 없네 생각했는데..
오죽 답답하면 이런 글을 올리셨을까?

차라리 수천장 수만장 찍으라고 내놓고 편안히 사십시오.
방문 활짝 열고 대문 활짝 열고 하실거 하시며 사진다면.
그들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모습 여러장 건져봤자
한두번 이용이지 매번 써먹어도 식상하지 않을까요?

다만 방문객들 사진은 살붙이고 피붙여서 써 같길것이니
그건 좀 무리겠지만
일상 생활은 역으로 적나라하게 오픈하심이 어떨까? 보란듯이 말이죠.
안타까워서 해본 소립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이급수아우 2009.04.22 01:13

가슴 아픕니다.

까지수엄 2009.04.22 01:19

기자들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켜야 되지 않나요. 그만 철수해 주세요

나잖아 2009.04.22 01:21

넘 마음이 아픕니다,,,
그저 힘내시라고 마음으로 보탭니다
넉넉하시고 늘 변함없는 님의 미소가 그릅습니다
무탈하시고 힘내세요,,,사랑합니다

꿈지기 2009.04.22 01:21

4월29일이 지나면 알아서 사라지리라 기대해봅니다... 강녕하시기를...

아싸라비옹 2009.04.22 01:21

다시 일어서시리라 믿습니다.
기운내세요.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마트 2009.04.22 01:29

우리에게 진실을 쫓는 언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도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검정색 햇빛 가리개" 검정 망사 같은건데... 를 치는건 어떨지요?
이정도면 파파라치는 피할 수 있을듯... 힘내세요^^

a전진 2009.04.22 01:34

노무현대통령만한 대통령이 나왔다는게 대한민국의 행운이었다. 문제는 앞으로 노무현대통령만한 대통령이 나오기 어렵다는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매우 아쉬운 일이다

피터팬2 2009.04.22 01:40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이목을 집중받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상황 또한 더욱 그러합니다... 대통령직을 퇴임하시고 개인으로 돌아오셨지만 지금 상황은 세상의 이목이 집중해있는 때입니다. 집안뜯을 거닐지 못하지도 못하시겠지만 말씀 그 이전에는 왜 안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사진기자들이 봉화마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택을 주시하지 않던가요? 몇몇하시다면 이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할말 하시고 카메라 의식하지 마시고 할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론을 대하시는 태도 자체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시네요 푸념들어놓으시는 것도 이젠 그만 하시고 정당하게 재임시 하신 잘못 정당하게 잘잘못 가리셔서 국민들 언론들이 신경안쓰도록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좋아 2009.04.22 01:49

사생활침해도 고소해버리세요.. 개념새끼들.. 완전 개념이없어요. 기자새끼들이나, 검찰새끼들이나. 양심이없죠. 특히 한국에서 그런것들은 사명감이 없고 없고 있는 쓰레기라서, 일체의 특권을 줄 이유가없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대응하세요 노무현대통령님.

달짜 2009.04.22 01:54

환장하네 환장해 ~~~사람이 숨을쉴수가 있어야지요~~

마당에나갈수조차 없으니

미칠지경아니겠습니까

제발 카메라좀 치아요

생각이좋아 2009.04.22 01:54

피터팬2// 몇몇한거랑 창문열때마다 사진찍히고, 잠시 밖에 나갔다올때마다 찍히는걸 감수해야하는 거랑 똥상관이나? 그리고, 언론이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서 거기예다 좋은말로 부탁한건데, 그 부탁이 이기적인 태도냐? 예휴.. 하튼 이런논리구조 가진인간들 알만하다. 앞뒤순서뒤죽박죽에다가 논리모순에다가 몰타기에다가 논점일탈. // 위글이 그저 최소한의 사생활의자유를 침해하지말 아달라고 부탁하는거다 부탁.. 참내. 그게 부탁할 성질이나?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기전에 좋은말로 타이르는데, 당당하게 집앞에 나오지않고 푸념? 그래서 그게 이기적? 어이없다 진짜..ㅋㅋ 내가 볼때 너의 그 사고방식이 이기적이다.ㅋ

달팽이집 2009.04.22 02:02

힘내세요. 기운내세요. 노무현대통령님 뿐만아니라, 여사님과 주변의 모든 분들 마음에 상처 받지 않으시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옷을 잃지마시고, 보다 멋진 모습으로 3년 몇개월 후에 힘차게 돌아오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기분 전환하고 있습니다. 마음 다치지 마시고, 힘내시고, 기운내시고, 맛있는거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행복합니다 2009.04.22 02:24

기자 여러분은 양심이란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한 가족의 최소한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할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철.수.하.십.쇼!!!

노무현 대통령님, 진정 서민의 편에 서셨던 단 한 분..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기원하고..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노무현 대통령님!
참 우스운 나라가 되가고 있네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모두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답답하시더라도 조그만 참고 기다리세요
화이팅입니다
당신의 푸근한 모습이 그립습니다

rjqrnts25 2009.04.22 03:20

노무현 대통령님...요즘 마음 고생이 많을 것입니다. 힘내시고요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지요. 1차적으로 기자들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 이후에 물러가지 않으면, 당당하게 집안과
마당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언론플레기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나라당에서 별 미친 소리 할 것이 뻔합니다.
다만 탄핵 받던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차피 만나라당과 명바기 일당이 싸움을 걸어 왔습니다.
그에 적절하게 당당하게 언론과 맞짱 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좌편향 2009.04.22 04:06

그렇다고 법을 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깟 세간의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불의를 위한 공권력에는 비
록 두려워도 해야만 했기에 대항했지만, 비열한 것에는 애써서 대항할 필요도 없잖아요. 일 생긴 후 보이질 않으니, 자꾸 궁금해서
더 관심을 갖는 것인데, 그냥 날 잡아 하루 좌악 보여주세요. 그러면 온갖 언론에서 이러쿵 저러쿵 기자 양반들 밥벌이는 몇일 하겠
죠. 그럼 알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알아서들 다른일 찾아보겠죠... 그런데, 그냥 참으신 김에 몇일 만 더 참으세요. 보궐선거 끝날
때까지만, 시기가 좀 그러네요... 지리산 곶 찍는 것도 아니고, 기자양반들이 더 고생이네요... 비오는 날 우비는 입고 있었나 모르
겠네....

돌박 2009.04.22 05:28

노무현전대통령님 힘내세요
명박이 재산 아직 환원한다하고 약속안지키잖아요
그리고 기자들이 더 도둑이라는거 세상이 다 아는사실입니다
이네들 보다는 훨씬났습니다
그리고깨끗합니다 정직합니다

돌박 2009.04.22 05:37

조.중.동이 가 현정권 밑에 빌붙어 얻어먹을게 있으니 서민물가 치솟고
살기힘드는데 물가너무많이 오른다고 언론에 한번 떠드는 소리들어봤습니까
지난정권에는 물가 조금오르면 시장물가 장바구니물가 하면서 난리였지요
정치잘한다 못한다하면서 대통령 욕했던 기자님들이여
왜 지금은 물가가 엄청올라 장바구니니 할처지도못되어 그래도 아무말안하는 조중동 보세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대한민국 돌박나
라 축구4강 야구준우승 김연아 등 이런세계적인 뉴스의나라인데 언론기자 정치가들은 왜 하류인생인가 그래도 진주속의진주 노무
현 전대통령이었습니다 힘내시고 당당하고 기요 봉화마을 주민들 기자들한테 똥물바가지 세례하세요 더러운놈들이라고 너희들이
더 추악한놈들이라고
알고보니 기자들이 사기꾼이요 국민을 우롱하는 위선자 배운도둑놈들이랑이요

달구별 2009.04.22 05:41

참으로 압살한 언론이군요. 누구(명박)같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언론이군요. 정도껏 해야지 망원렌즈로
24시간 감시는 양심의 가책이 좀 들지 않습니까? 역사가 평가 할 것이지만 노무현대통령님은 10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하늘님
이 한반도에 내리신 보물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님을 지켜내지 못하면 한국역사(한국의 민주주
의)는 1000년 후퇴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심초사 하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은 봉화마을에서 떠나라!

노짱 만세 2009.04.22 05:47

대단한 언론입니다. 이것들을 한번에 싹 쓸어버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차라리 매일 신문에 대서특필되어서
그거 모았다가 반격에 쓰면 어떨까요??

더 나은 세상 2009.04.22 05:49

인터넷 댓글로 피해 입는것보다 하이에나같은 언론에 피해입는게 더 크다.
인터넷 사용자를 탄압하기전에 묻고 뜯는일이 일과인 언론놈들부터 깨끗이 씻어 내버려야 한다.

안영규 2009.04.22 06:00

꼴통 언론과 검찰을 보는 것이 힘듭니다. 나의 인내심이 언제 바닥날지...무한정 테스트 당하는 기분. 노무현 대통령님의 승리를,
혹은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를 위하여 ... 힘내세요.

코스피아 선이 2009.04.22 06:21

당당하게 앞뜰을 거닐어보세요~~꼴통 언론과 검찰들..한나라당님들,명바기는 노통님이 움츠러들수록 박수를 쳐대고 있을겁니
다...그러니까 어께 당당하게하시고 하고 싶으신대로 하세요~~그런 쓰레기들 신경쓰지 마시고..노통님을 응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잖아요~~노통님에 비하면 사기꾼 명바기는 4년후에 사형감입니다..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처하시고 산책도 하세요!~~
암튼 건강 조심하시기를~~힘내세요!~~~

51토끼 2009.04.22 07:29

아아...
노대통령님 내외분...
어쩌나..
어쩌나..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해
그저, 발만 동동구르며 울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노대통령 내외분 사랑합니다..사랑합니다..

명경짱 2009.04.22 07:49

참으로 안답갑습니다..대한민국의 비극이다.....

chunria 2009.04.22 07:50

바보 노무현?

당신을 죽여 얻을게 뭐 있을까 싶어
이잡듯 해집는 저남들이 승승장구할까 같아도
곧 역풍을 만나게 될 것이외다.

당신은 절대로 죽지 않으리라 믿소이다.
수천억 먹은놈들도 견제하던데...
우사 당하는거 보니 쯤 안타깝소이다.

넬 사자바위에 올라
천리아가 하늘에 묻겠소이다.
그 소리가 들리거든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바깥으로 뒤편과 손을 번쩍들어 환호해 주십시오.
당신이 당당해 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天理兒 <http://www.tenrio.com>

또아리 2009.04.22 07:53

힘내세요.....!!
지금 같아서는
시간이 빨리 지나기를 바랄뿐.

toefl 2009.04.22 08:02

국민에게있는 대통령 투표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권리를 제대로 신중하게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지금 뼈저리게 느낍니다...

힘내세요, 대통령님..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과연 누가 국민앞에 부끄럽지 않은지는 역사가 곧 심판해 줄겁니다..
흠집을 내다내다 낼게 없으니, 정말이지..

더러운 똥 밟았다 생각하시구, 힘내세요.

저는 이나라 보통의 한 시민으로서, 당신의 청렴했던 삶을 믿습니다.
누구와 한통속이된 검찰의 발표가 200% 300% 사실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힘내세요!!!

원머리소년 2009.04.22 08:02

악랄한 카메라여, 저주받을 시선들이여! 무슨 죄가 그리 크다고 '자택감옥'가둘 수 있던 말인가?????

열혈청년so 2009.04.22 08:11

대통령님 힘내세요....휴~한숨만 나오네요...

단기사병 2009.04.22 08:20

고맙습니다.
참고 잘건너주셔서.
조금만 지나면 그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나만의길 2009.04.22 08:21

힘내세요. 노대통령님 항상 뒤에는 진실함을 아는 모든분과 국민들이 있습니다.

슈프림 2009.04.22 08:24

대통령님 이 암흑과 같은 시간이 빨리 지나길 바랄뿐입니다. 힘내세요.

수호천사1호 2009.04.22 08:37

숨이 막히고 답답함. 그리고 걱정과 한...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같다고 생각하시고 이겨내 주십시오.

짐주 2009.04.22 08:39

.....

존경무현 2009.04.22 08:50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한 일들이 지금 시련을 주고 있는데, 현정권은 어떻게든 대통령님과 엮어서 처벌하려 들것입니다. 마음 단단히 갖으시고 당당하게 행동해 주세요. 지금처럼 잘못해서 숨어 사시는 모습은 대통령님 답지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밍규아빠 2009.04.22 08:54

더이상 관심 받는게 싫으신가요?
과거의 관심과는 다르신게 싫으신가요?
방안에서 비서들과 대화하는 모습,
안 뜰에서 나무를 보고 있는 모습,
마당을 서성거리는 모습,
이런것들을 국민들은 알고싶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고싶을 뿐이겠죠
진실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나요?
법망을 피해간다고 해서 진실까지 피해갈순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든 말든 그건 당신의 선택이겠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법의 구속력을 피해간다고 해서
남는것은 무엇입니까? 명예? 권력? 돈??
머리가 나빠 더이상 생각나는것은 없지만...모두 우습군요....

lsr25x 2009.04.22 08:55

노무현 대통령 님의 심정 이해하며 동감합니다.

이미 죽은지 오래되어 뱀새가 고약하게 나는 우리 나라 언론은 언제 진정한 언론으로 거듭날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80년대에 저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타도를 외치며, 독재와 맞서고 부정과 비리에 대해 우리는 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젊음의 합성이 죽은지 오래입니다. 나라는 점점더 소수를 위한 정적으로, 소수의 기업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경제와 더욱더 커지는 경제의 위기, 모든 것이 암울하기만 한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무너져 가는 이 캄캄한 어둠속에서

노무현 대통령님!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들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예전의 그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이제 40이 훨씬 넘어버린 내 몸엔 아직도 "의"를 위해 외치고자 하는 간절함이 남아 있습니다.
노무현 당신을 기다립니다. 존경합니다.

챙비리 2009.04.22 09:00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웃을날이 꼬옥올겁니다

5년중 2009.04.22 09:01

5년동안 온 세상사람들을 그 가벼운 입으로 분열시키고 김정일한테
퍼다줄때는 좋았을것이다
잘난 권력5년까지고 평생할줄알고
너까리고.떠들고>퍼다주고>없는자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부지런히 일해서 벌어들인사람들을 못살게 하고 온갖규제는 다만듣고.....
여보시게~~!노무현씨
봉화궁이 감옥이라고??????? 당신에 아방궁 아니던가???
감옥이라는곳을 모르고 하는소리야????
개성공단이 잘되고 있다는 옛 수장이던사람이
그곳에 억류되어있는 우리국민이 지내고 있는곳이 어디인지나 알고 푸념하는건가???
여보시게 무현씨~~!!
감은 복덕이 감옥이다 당신은 지금 봉화 아방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곳이 싫으면 자수하고 고백하고.졸렬하게 흠뻑가지고 장난하지말고 세상사람들 모두에게 선은 이렇고 후는이렇다" 라고 고백하시게..
당신이 인권.인격 하는데 전두환 전직대통령에게 명패던지면서 하여던것은 무엇이러 하겠는가???
그것은 인격모독이아니고 사랑인가???
남상국 사장님을 죽게한 그책임또한 분명하게 저야 할것일세
당신은 아마추어 이지만 남상국사장님은 전문경영자였네. 나라에서 전문가 하나 양성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드려야 나오는지나 알고 있나???
집에서 이렇다.저렇다 짜증내지말고 세상밖으로 나와 땃땃하게 입을 여시게나
지금은 졸렬 그자체고 자네을 증오하네

사모곡 2009.04.22 09:08

피눈물 내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비겁한 자들을 응징하실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대한민국의 영원한 대통령님!

소상공인 2009.04.22 09:13

답답합니다. 그러나.....이것만 생각합니다. 불의는 정의를 이기지 못하고 거짓은 진실을 덮지 못한다 합니다.

로드니78 2009.04.22 09:14

노무현 대통령님..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30대 평민입니다..
대통령님이 지금 당하고 계신일들은 분명 잘못된일들입니다..
대통령님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겠지요~~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 많이받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이유아 어찌됐던 전 이상황은 대통령님께서 만드신일 아닙니까??대통령님의입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국민 이전에 우리의 리더였습니다..그런분들이 온갖 자금을 연관되어 있지않습니까??
저는 그 기자분들이 더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님께서 깨끗한정치를 하셨다면 기자들이 멀리 봉화마을까지 내려가지도 않았을테고 24시간 밤샘하면서 사진을 찍지도 않았을 테니 말이죠~
그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님이 어떻게 지내나 하는 메시지를 저희에게 보여드리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만큼의 값어치가 대통령님께서서는 충분히 된다는말입니다..아무리 털어서 먼지 않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이건 아닌거같습니다..노 대통령님..이건 대통령님 그리고 가족들의 업보입니다..
기자들을 뭐라 하기전에 대통령님의 가족들이 하신일들을 먼저 생각하십시오..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님과 가족들에게 겪은 실망과 울분을 절대 잊지 마세요..

뮤즈 2009.04.22 09:15

아직도 심각한 뇌물공여자 남상국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추모하는 인간이 있군요. 거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글도 기네요. 사생활 침해하는 기자놈들, 어떻게 골탕먹일방법 없을까요?

현이와함께 2009.04.22 09:16

밥맛 없겠지만요..힘내세요.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기가 막힌다는 게 이런 건가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희망입니다. 이런 말도 무거울 거 같습니다.....그저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민주당쟁이암! 2009.04.22 09:18

이 글을 읽기전 생각없이 떠든 말한마디에
차디찬 한강물에 울분을 삭히며 돌아가신
"남상국"대우건설 사장님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과부터 하라.
또한 "남상국"님을 잘 모르시는 분은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저처럼 같은 생각을 하시게되어 분노의 감정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부디 사과해주십시오.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왜 전두환을 찬양하냐고?

한국청년 조희: 26 | 2007.11.26 15:24

왜 전두환을 찬양하냐고?

어떤 사람들이 나더러 왜 전두환을 찬양하느냐는 항의를 쪽지와 편지로 보내왔다. 왜 전두환을 찬양하냐고? 대한민국 헌법에 전두환은 찬양 받으면 안된다는 법이나 규정이 있던가? 그렇게 궁금해서 못견디겠다면 그 힌트를 답해주마.

오카모토라는 창씨개명을 쓰던 집안의 아들이 누구?

동네 아나베들 앞에서 소변보던 것을 자서전에 당당하게 공개한 놈은 누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일기업주 의혹을 받았던 김지태의 부일장학회 장학금으로 고등학교 3년을 다닌 인물은 누구?

죽창들고 11만명의 양민을 학살하다가 수감됐다가 사형당한 자의 만사위는 누구?

장인에 이어 장모도 남로당 당원 페미니스트인 집안의 사위는 누구?

전남 출신이면서 경상도 출신이라고 사기치던 놈은 누구?

소년시절을 한마을에 살던 이웃어른을 얼굴도 모르는 장인이라고 구라친 놈은 누구? 장인이 되고 사위가 되는 것은 못봤어도 한마을 살며 얼굴한번 안봤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

친일과노릇하며 일본제국에게 상납하던 친일기업인이 운영하는 부일장학회 장학금 받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그 친일과돈으로 사법고시까지 패스한 놈은 누구?

1980년대에 을사오적 송병준 증손자 송재X이의 고문번호사노릇 하던놈은 누구?

2004년 일본에 가서 일본왕한테 고개숙이고 굽실굽실대며 김구는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라며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말하며 아무벌던 놈은 누구?

그 아부와 굴욕외교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등신애교라는 소리를 듣고 개구리 별명을 받은 놈은 누구?

독립운동가의 아들 전두환에게 명패를 던진 주재님은 친일과 굴목죽! 굴목죽 원조는 누구계?

1998년 독도와 동해바다를 한일어업협정으로 주변 200해리가 고스란히 일본놈 손으로 넘어갈 때 바다와 도서문제 담당. 해수부 장관은 누구계?

독도주변 200해리와 그 밑에 깔려있는 천연가스과 어자원 등을 일본에 거저 넘겨준 게 누구계?

친일과 송병준의 친손자를 한국은행의 이사 등 감투직에 앉힌 놈은 누구계?

독립운동가 8명을 고문한 악질고문 경찰관 시계미즈 구니오 신상목의 아들들 당의장으로 쓰고 장관으로 쓴놈은 누구계?

친일파 이병도의 친손자를 국립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한 분은 누구계?

동양척식회사와 식산조합 서기로 조선의 곡식을 일제에 상납한 놈의 큰아들놈을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하신 분은 누구계?

2004년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공식언론에 떠벌리신 분은 누구계?

뇌물을 요구한 둘째형 노건평을 봉하호수로 빼돌린 인간은 누구계?

2006년 공식석상 기자회견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했다가 한나라당 의원들과 국민들로부터 야유당한 놈은 누구?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해도 사실을 숨기고, 축소시키고 은폐시킨 놈은 누구?

2005년 11월, 한국인 신혼부부가 중공에 갔다가 부인이 납치살인되고 남편은 그 충격으로 정신이상자가 됐으나 중공에게 항의한번 못하고 끄덕댄 놈은 누구계?

2007년 2월, 중공의 불법체류자 애들이 한국경찰에 검거되어 여수항구에 방화했다가 중공인 15명이 됐었는데도 중공정부에 사과한놈은 누구?

그때 한국 경찰과 전경 90명이 중화상에 입었다.

일본이 동해바다를 일본해로 UN에 로비를 해서 성공시키자 2007년 4월 일본에 찾아가서 평화의 바다로 합시다 라고 말하다가 일본인 방청객들에게 야유를 받으신 분은 누구계?

2006년 이어도와 마라도를 중공에 넘겨주신 분은 누구계?

독도를 2004년 10월, 2006년 12월, 2007년 3월 세차례에 걸쳐 일본땅으로 인정. 독도를 다케시마라 하고, 동해를 일본에 팔아넘기고 평화의 바다로 하자고 했다가 야유당함

김씨인지 장씨인지 누구 씨알인지도 모르는 복자라는 호로애가 독립군 사칭하도록 힘써주신 분은 누구계?

한상구, 김성 애국지사를 탄압하고 구속하고, 노무현 사생아 의혹과 출생지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매장하려던 악랄한 놈은 누구게?

친일과 인명사전 자금 용도에 의혹제기한 30대 김모씨, 정모씨 등 애국지사 구속한 분은 누구게?

대선자금 110억과 장수천 300억 비리 게이트, 안희정 염동연 게이트에 민경찬 850억 펀드 비리 등의 각종 부정비리와 대선당시 돼지저금통 불법모금 10억원 횡령 비리

국고 혈세 낭비인 민족문제 연구소 해마다 투입된 4억원 여성부에 투입된 4억원의 돈낭비와 건강보험공단 연금 고갈사태의 주역은 누구게?

안상영 시장 살해사건과 노건평 뇌물 4억 수수사건, 남상국 사건

정몽헌 현대건설 회장, 이수일 국정원국장, 장래찬 금감원차장 살해사건과 노무현 하수인 정연주에 의한 국영 어용방송국에서 방송인 2명 사고사망과 의식불명, 이기명 아들 MBC방송국 여직원 추행사건은 누구의 측근들이 한 짓일까?

김대중정권의 반체제인사 도청사실 몰타기 공작 일왕 앞에 가서 김구는 실패한 지도자라 하고 황우석 기술을 해외에 헐값에 매각

대선 앞둔 인혁당 정치재판결 사태와 동의대 경찰 살인범을 국가유공자로 인정 등 반국가적 행위

대한민국 건국 부정한 여운형에게 건국훈장 추서하고 인혁당 폭도에게 30억에서 50억의 거액의 보상금 납부

신정아 사기극 교수 임용과 신정아 비리 게이트

타인의 신상정보를 도용하여 개표조작 여론조작으로 정A 예비후보 개표비리 사건? 북한 개표조작부대 투입 예고?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 스캔들(scandal) 대선 전후 정치 자금 관련

생수회사 '장수천' 사건(2003년 5월)

생수회사 '장수천'의 빚 변제와 자회사 매각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이광재씨, 강금원씨 등이 불법 수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검찰 및 특검 수사 후,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가 구속됐음.

나라중금 사건(2003년 4월)

2조원대 공격자금 투입을 유발하고 퇴출된 나라중금의 대주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이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와 염동연 의원, 여택수씨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썬앤문 불법자금 의혹사건(2003년)

이광재 의원과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노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문병욱씨가 회장으로 있는 썬앤문그룹으로부터 각각 1억원,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음.

이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여씨는 롯데그룹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까지 합쳐져 구속기소됐음.

불법 대선자금 관련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003년 SK그룹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음.

-대통령의 부산 지역 후원자인 이영로씨가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지병 악화로 조사가 불가능해 기소중지됐음.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사법처리됐다 사면.

청와대 참모 관련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비호 스캔들(2007년 8월)

신정아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 성곡미술관 기업 후원 등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정윤제 청와대 전 비서관의 '김상진 사건'(2007년 8월)

노 대통령의 386 핵심 측근인 정윤제 전 청와대 비서관이 1년 전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씨에게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소개해주고 로비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현재 검찰 수사 중.

국가 정보원 여직원 스캔들(2006년 12월)

지난해 말 국정원 내부의 간부 및 직원 4명과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무더기로 해임 및 징계 당한 것이 밝혀졌음. 해당 남성 중 한명은 사무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고 해임된 여직원은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음.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의 JU그룹 게이트 연루

이 전 비서관의 가족이 불법다단계 영업으로 1조80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의 JU그룹에서 10억원대 돈을 거래한 혐의.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살해

2006년 3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불륜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 이모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한달도 안돼 풀려났다

장현철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의 폭행 사건

2006년 4월 전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폭력을 행사해 고소당했으나 무죄처분받고 6달 후인 8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임용됐음.

김남수 전 청와대 사회조정2비서관의 골프 논란

2006년 4월 공무원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 시기에 대기업 임원과 주말 골프를 즐기다 문제돼 사표를 제출했음.

이광재 의원의 '오일 게이트' 연루 의혹

철도재단이 유전 개발을 위해 러시아 사할린에 설립한 코리아쿠르드오일(KCO)의 유전개발사업에 이광재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

청와대 비서관 모 씨가 휴가때, 청와대 전용헬기를 가족휴가에 사사로이 사용.

친인척 관련

노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2003년 9월 사장 연임 청탁과 관련해 3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서울지검에서 불구속 기소. 노건평은 책임회피하고 달아나고 남상국씨를 실명을 거론해서 망신시킨다음에 살해함.
- 원주민의 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남 거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토지에 주택과 커피숍을 지어 부동산 투기의혹을 샀음.
- 노건평은 세무공무원으로 있다가 뇌물수수받고 파직된 경력도 있다.

노건평씨의 처남? 민경찬씨

병원의 30대초반 인턴의사다. 청와대 청탁 병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2004년 3월 구속. 검찰 조사 결과, 민씨의 850억원 펀드는 근거 없는 허풍으로 거액의 투자 유치를 위한 자작극으로 결론 남. 나머지 비자금 조성 배경은 밝히지 못했다.

노 대통령의 사돈 배병렬씨(아들 노건호씨의 장인)

경찰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음주측정 거부한 사실이 3년 뒤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경찰청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 농협의 자회사인 농협 CA투자신탁운용이 배씨를 회사의 비상임감사로 임명해 특혜 시비.

노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

2005년 8월 바다이야기 제조업체(지코프라임)가 인수한 회사(우전시스템)에서 이사로 근무. 당시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면서 사세를 키워나간 것이 의혹의 핵심.

도요다 정부

웃 로비 사건(1997년) |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던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씨 등 고위층 부인에게 고급 옷값을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제기된 사건. 유명한 당신 이름은? 김봉남씨 사건이 이 웃로비 사건.

정현준 게이트(2000년) | 한국디지털라인(KDL) 사장 정현준씨와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씨 등이 수백억원대의 금고 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금융감독원 검찰간부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진승현 게이트(2000년) | MCI코리아 진승현 부회장이 1999~2000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열린금고와 한스종금 등에서 2300여억원을 불법대출 받고 주가를 조작한 것과 관련해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제기.

이용호 게이트(2001년) | G&G그룹 회장 이용호씨가 계열사 전환사채 680억원을 횡령하고 보물선 발굴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한 뒤, 수사 무마를 위해 검찰·국정원·정치인에게 로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

최규선 게이트(2002년) | 최규선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씨와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청탁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

홍삼트리오라고 부르는 3홍(도요다 전 대통령의 세 아들) 게이트 | 도요다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씨는 이용호·진승현 게이트에, 차남 홍업씨는 이용호·정현준·진승현 게이트에, 삼남 홍걸씨는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김영삼 정부

한보 비리 사건(1997년) | 한보그룹 부도를 발단으로 드러난 권력형 금융 부정과 특혜 대출 비리. 한보그룹 회장이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하는 과정에 정.관.계계 핵심부가 유착, 부정과 비리가 행해진 사건.

김현철 게이트(1997년) |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한보에 대한 산업은행의 특혜대출 배후일 뿐 아니라 각종 공직의 인사와 신한 국당 공천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앞선 수재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건.

린다 김 사건(2000년) | 문민정부 국방사업인 '백두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린다 김. 그가 이양호 전 국방장관과 연서(戀書)를 나누는 등 적절치 못한 관계를 맺었다고 화제가 된 사건.

이런 미치광이를 98%라는 물표를 주고 지지를 보내며, 털끝만큼의 비난을 해도 폭언과 테러를 퍼붓는 노사모라고 하는 전대미문. 앞으로도 필적할 존재가 나타나기는 어려울만큼 98%의 포라이 사이비 싸이코 광신도들도 존재하는데, 전두환이라고 찬양받으면 안된다는 법은 없지. 안그런가?

1992년 도요다 92% 1997년 도요다 95%를 주는 털떨어진 싸이코 사이비 광신도들이니, 노무현에게도 2002년 노무현 98%라는 신화

를 달성한 것이다.

인민공화국도 아닌 곳에서 98%의 물표 지지가 웬말인가?

사기전과 8범 겸 강간전과 1범이 의인이 되고 영웅이 되는 마당에 전두환이라고 영웅소리 들어서 안될 것은 또 뭐가 있나?

차라리 전두환을 찬양하겠다. 전두환 장군은 조선의 세종대왕과 같은 통치자이니 보국안민과 정의사회 구현이 전두환 정부의 행동 강령이다.

1990년대 이전에는 적어도 한국이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는 아니었다. 폭주족, 과속운전,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처벌되었고, 면허 기준도 김대중이가 음주운전이나 과속, 폭주, 뺑소니운전자들에게는 몇시간 교육이수만 되면 다시 면허를 주었는데, 당시에는 이런 사고만 냈다 하면 최소 2년이었으므로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무면허에 대한 처벌도 강력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입학 시험이 있었으므로, 졸업반이나 졸업반 전반은 항상 면학의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당시에는 학력고사 하여 매달에는 월말고사, 중간고사는 지금도 존재하고, 기말고사가 있었고, 시 학력고사, 도 학력고사 같은 것도 있었다. 그때는 고액과외도 합부로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학벌귀족 따위는 존재할라야 할수도 없었다. 빨갱이들이 말하는 평등교육이란 바로 전두환이 실시한 부정과외 폐지같은 것이 바로 학력평등 아닌가?

새마을운동과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꾸준히 계승되어 새로운 나라 건설과 부지런한 국민으로써의 계도에 힘썼다. 지금도 생생한 것이 아침 6시만 되면 면사무소에서 새마을 노래부터 시작해서 몇곡의 건설적인 계몽가를 틀어주던 것은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다. 거리는 지금처럼 오물천지가 아닌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처럼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는 등 밝고 맑고 명랑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여기에 전두환 대통령 대영웅은 박정희 각하가 생전에 내놓은 88올림픽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위를 선양시키고 해외에 대한 거지나라 코리아의 이미지를 세계 4대 잠룡의 하나로 끌어올릴만큼 나라의 위상을 격상시키기도 했다.

동시에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사건, 광주 폭동 등 반란과 폭동을 진압하여 민생을 안정시키지 않았느냐!

지금은 인륜지사의 기본개념인 결혼과 가정마저 와해되고 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전두환 때는 감히 신랑, 신부감을 고를 때 돈을 보고 고르는 그런 더러운 도둑놈같은 짓은 할수조차 없었다. 합부로 이혼할 수도 없었다. 이혼의 자유? 그보다도 지금

TV와 언론을 보듯, 한순간의 충동으로 인한 양자의 집안은 물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던가?

동시에 박정희의 사업을 계승한 새마을 운동, 국토종합개발계획 모두 저 좌익 빨갱이 김영삼, 김대중 따위가 다 폐지시켰다. 전두환때 잡아들인 폭도와 강패와 조폭, 성추행범, 양아치, 도둑놈, 살인자, 불순분자, 빨갱이들 교육기관인 삼청교육대의 적법한 처리를 마치 인권을 탄압한 위법행위로 몰아버리고 있다.

폭도, 강패, 조폭, 성추행범, 양아치, 도둑놈, 살인자, 불순분자, 빨갱이들을 잡아서 계도하고 사람 만든 일을 인권탄압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당시 민생은 누구보다도 살만 했었다. 명청한 노태우가 들어서면서부터 화성 연쇄납치사건 따위가 발생했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3대를 거치는 동안에는 폭도와 강패와 조폭, 성추행범, 양아치, 도둑놈, 살인자, 불순분자, 빨갱이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무고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폭행과 약탈을 일삼고 있으며, 그런 더러운 행위들이 영웅시되고 있다!

80년부터 88년까지 경제를 안정시켜서 모든 물가는 2번 올랐다. 일년에 물가가 몇번을 오르는지도 모르는 것이 노태우 이후 지금까지의 경제다.

전두환은 물가를 꼭 잡아서 국민경제를 안정시키고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국위를 선양시켰으며 강패, 강도, 강간범, 조폭폭력배, 알콜중독자, 살인마, 양아치, 성추행범, 인신매매, 음주운전, 과속운전, 뺑소니, 방화범, 약물중독, 마약중독자 같은 인간쓰레기들을 있는대로 죄다 잡아다가 삼청교육대에 보내서 인간을 개조시켜서, 인간 만들어 내보낸 것만으로도 전두환은 찬양받더라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sj0579 2009.04.22 09:18

노무현 대통령님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민주주의와 국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조금은 부족하신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신 시민민주주의가 완성될 때, 그분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아직은 너무 요원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 강물의 가장 앞서가는 물줄기가 바다를 포기해서는 안되겠죠. 아직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 지를 모르겠지만,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In-a 2009.04.22 09:19

언제나 그림고 사랑스런 대통령님!
어릴적 보았던 도깨비 감투라는 만화가 생각이 납니다
도깨비 감투가 어릴적도 이렇게 갖고 싶지는 않았어요
투명인간이 될수있다면
그들을 몰아낼수 있을텐데...
내영혼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언제 한번 뵈러 가겠습니다
사모님께도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순천에서 정인아 올림

봄가을 2009.04.22 09:21

참 언론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조명해야 하는지를
요즘들어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고 한숨을 쉬게 합니다.
우리들의 세상이 이것밖에는 아닐까요.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셨으면 기도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앞으로
우리 역사의 귀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해제 2009.04.22 09:39

누가 그랬죠? 밤이 깊을 수록 새벽은 가까워 진다고---노대통령님 건강만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곧 앞 벌판에 눈물을 가두고 범썩 선종하여 못자리 할때가 되어 지거든요.시간이 지나면 누가 뭐래도 개구리 소리가 불하마을을 노래 하게될겁니다.

사랑으로 2009.04.22 09:42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말밖에 해드릴 수 없네요.

덤미가 2009.04.22 09:43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너무 힘드시겠지만 언젠가는 대통령님을 인정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희망택배 2009.04.22 09:43

힘드시죠.조금만 참으세요. 그리고 기자 니들 이정도로 호소 하시는데

인자 철수해라..죽는다

늬은이 2009.04.22 09:48

몇년전 한라당의 집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때 좀 심한 말씀이 아니신가? 했습니다
이제와서 보니 끔찍정도가 아니라 참담 통곡할 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노대통령 님 조금만 참고 견뎌내세요
내 저승에 가는데로 하이어나 보다도 더 악랄한 인간들
씩 잡아들이라고 열라대왕을 닦달할것입니다

선이 2009.04.22 09:50

가슴이 넘 아파서리 무슨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멀리서 도움도 드리지 못하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정말 우리나라의 언론들 정말 양은냄비같은 녀들..장자연사건은 묻어두면서 왜 우리 대통령님은 그래 물고 늘어지는지 나쁜 녀들..세월이 흐르고 나면 양심선언하는 기자님들도 나오겠지..정말 죄송합니다..이렇게 험한꼴을 당하게 해서리...그래도 사랑합니다..힘을 내시기를 멀리서나마 기원합니다..

대도오2 2009.04.22 09:54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힘내세요.
취바기,조중동은 언젠기 죄값을 받을것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존경합니다.

nono4 2009.04.22 10:06

힘내시고요 .절대로 굽히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당신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으며 함께호흡하고 있습니다 .

선대렐라 2009.04.22 10:08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노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TT.TT

남자 2009.04.22 10:10

조중동스런 여론몰이 하는 언론사들 정말 기가잡니다.
그래도 지금 저들의 여론몰이가 진실이라 여기는 국민들보다
제대로 진실을 보고자 하는 국민들이 더 많기에 다행입니다.
노공이산님과 권여사님
얼마나 맘 힘드시까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어떤일이 있어도 지지합니다.

성그런 2009.04.22 10:10

노무현 대통령님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위축대지 마십시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님 아닙니까
우리는 노무현이란 사람을 사랑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노시러*10 2009.04.22 10:13

국민들로부터 동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시는군요...
참 인터넷정치, 언변정치만 잘 하십니다...
집 밖으로 왜 못 나가십니까?
카메라가 왜 두렵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십시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고...
본인이 떳떳하다면, 카메라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믿음따라 2009.04.22 10:13

날마다 이곳 사람사는세상을 들러 응원하는 분들을 보시면서 힘내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 생각 합니다.
건강하세요

믿을꺼예요 2009.04.22 10:18

힘내세요~~~

채송화길~ 2009.04.22 10:19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곳이 좋습니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니까요....
그들과...
또한,
대통령님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사진속에담긴세상 2009.04.22 10:21

참... 어이없는 일이네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건지..... 힘내십시오. 항상 그리워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음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부미 2009.04.22 10:26

힘내세요..이 말씀밖에는 드릴말씀이 없네요.건강 잘 챙기세요.
이 정권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국민의 손에 의해 심판을 받을 날이 올것입니다.
노짱님. 그 아픈마음 빨리 떨쳐내시고 좋은날이 하루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내세요...

sonamu1969 2009.04.22 10:29

정의로운 우리의 노무현 대통령님
힘을 잃지 마시구요..건강하세요..그리고 꼭 당당하세요.

dooki 2009.04.22 10:35

힘내세요 대통령님

강릉의하니 2009.04.22 10:36

머칠동안 아팠습니다.

아침에 사무실에서 만난 거래처 사장님이 왜 아팠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아팠다고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 때문에 아픈게 아니냐고 묻더
군요.
이 사장님은 저를 조금 알기에 물어 보신 것 입니다.

대답은 안했지만 마음은 천길래 만길래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저의 몸과 마음이 이 모양인데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는 어떠
하실 지 정말로 걱정입니다.
모든 분들이 염려하시듯 건강을 해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같은 사람들의 가슴속의 한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떡김들과의 싸움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더욱 건강하셔야 합니다.

dooki 2009.04.22 10:36

도대체 반대하는놈들은 머야? 인간이야?

현재와미래 2009.04.22 10:40

언론들이 살려고 몸부림 치는게 눈물겹더군요.
그러길래 왜 확인도 안된 사실을 바탕으로 추측보도를
남발하는 것일까요.

사자바위에는 왜 올라 가있나?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캐리양 2009.04.22 10:46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이라는게... 부끄러움도 안느껴집니다. 그럴 가치도 없는 것 같아서. 봉화를 둘러싸고 있는 취
재군단을 취재,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어떨까요? 쓸쓸해서 별상상을 다해 봅니다. 힘내세요, 노대통령님!

길게살자 2009.04.22 10:54

"힘내세요"
5월1일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간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힘을 드리고 싶어서요.

산노을 2009.04.22 10:54

기자 검찰들의 이런 것거리가 없는 세상.. 바로 사람사는세상을 희망합니다. 힘 내십시오!!!

묵기 2009.04.22 10:55

다음정권은 어디서 잡을까? 만약 다른정당이 잡는다면 쥐박이는 이나라에 못살꺼야,,,, 근데 재산 사회헌납한다던건 우짜되었지?
사시꾼은 다르긴 달라,,, 철면피 쥐박이

청송사과 2009.04.22 10:59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역사가 심판할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노짱님

드림소사이어티 2009.04.22 11:04

참으로 비통합니다.내가족이 당하고 있는듯한 심정을 감출수가 없어요.
내가 한번 좋아한 사람인데 언론에서 별짓을다해도 나에게는 와닿지가 않아요. 정말로 힘내시고 이환란을 꼭 견디어 내시기를 바랍
니다.

집나간짱구 2009.04.22 11:16

힘내십시오 --. T 노짱님.....

Free Like a Bird 2009.04.22 11:19

다 제 몫의 시련이 있기 마련이나 대통령님의 시련은 왜 이다지도 끝도 없고 크기만 한지요? 지금껏 그래 왔던 이 시련의 끝에도, 대
통령님, 지금은 그 그림자도 짐작가지 않는 밝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리니....' 솔로몬이 그랬지요?

노로사 2009.04.22 11:19

부디 힘내시고 건강하셔야합니다.

우물지기 2009.04.22 11:19

4월 12일.
제가 간 날에는
권양숙 여사님께서 출두하시는 특별한 날이라
기사거리가 있어서 기자들이 들끓는 줄 알았습니다.

봉화산을 돌면서 보았습니다.
사자바위 아래에서, 산 중턱에서...
봉하들녘을 돌면서 목도했습니다.
봉화산 자락에 숨어서 망원카메라를...
사저 골목에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예 진을 치고 죽치고 들이대는 것을...

저는 이런 기자들을 취재했습니다.
너무 한다는 폐쇄한 마음이 들어서...
올바르게 전한다면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사진을 왜곡하고 기사를 비틀고하는 그 곡궤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도 상대방의 허락을 득하지않고는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초상권 침해라는 게 있어서...

노 대통령님 초상권 침해로 고발하면 되지않나요?
아니면 '사람사는 세상' 사람들의 연서명을 받아 할까요?

불수록 열천불이 납니다.
사진이야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믿는
우둔한 백성들이 있기에 그 것거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배울만큼 배운 기자들이여!
시대의 양심이라고 자부를 하려면 직필을 할진저!

PS. 그 씩씩한 현장을
참여사진관 3422번 글
"조중동이 아무리 뭐라 해싸도 '봉하마을은 맘음'입니다."에 올려놓았습니다.

12사 2009.04.22 11:26

똥파리 시키들 에프킬라 뿌리기전에 가라 가

오아시스 2009.04.22 11:33

당신 기사는 이제 안읽을려고 합니다.
검찰에 돌아나 춤을 추는 언론이 불성 사남습니다.
힘내세요~~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대구이성 2009.04.22 11:33

공정하지 못한 정부는 범죄조직입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법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에게
우리과 너희들에게
동일한 잣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나라당의 과거와 현재의 부정을 판단하는 기준과
(과연 차떼기 당시에 500만원 10억을 부정으로 걸고넘어졌다면 무엇이랄했을지요)
노무현 정부의 부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하여합니다.
선거자금만해도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야 원래 부패한 정당이니
몇백 몇천억을 뒤편으로 사용해도되지만
도덕을 이야기하고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너희들은
5000만원도 안된다는 이중잣대는 곤란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사람들과 싸울때는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려야할것입니다.
자칫 양비론에 빠지는 도덕적인 시민을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는듯하여 안타깝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국민으로 노무현) 힘내세요.

여기서 좌절하면
한나라당만 도와주는꼴입니다.

굽~벙이 2009.04.22 11:34

저의 짧은 댓글이 노짱님께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죄송하고 송구스러울뿐입니다...우린 노짱님하면 원칙과상식으로 통합니
다..대다수 국민들이 노짱님을 바라보고있습니다.힘내시고 이겨내셔야합니다..꼭 건강하시고요..

알순아지메 2009.04.22 11:42

정의롭고 마음이 따뜻하신 노무현대통령님...

언제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내외분 건강하옵길 간절히 빕니다

질주조운 2009.04.22 11:42

부디 몸/정신 모두
건강하세요!

강하3분전 2009.04.22 11:43

최소한의 권리는 지켜져야죠.. 조중동은 언론플레이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무차별 중단폭격을 멈추기 바랍니다. 검찰도 역

시 마찬가지로이고요.... 정확히 어떤 범죄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선량한 시민 아닌가요???

화정 2009.04.22 11:45

가슴이 저려웁니다. 대통령님 힘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 꼭 좋은 날이 올거라 믿습니다. 화이팅!!!

boramiuv 2009.04.22 11:50

2009.04.21 16:42 | 노무현 |작성한 이후로,
조회 33976 | 추천 555 | 반대17 |
인 걸로 봐서 알바들이 겨우 20명을 넘지 않았군요?

알바들 참 고생한다. 이제 그만 쉬거라.

노무현 대통령님, 힘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오솔이 2009.04.22 11:52

이 고난과 시련이 기쁜으로 승화하는 날을 위해...기원합니다.
세상사 모든일이 생각하기 나름이라 쉽게 다른반대로 생각할수도 있고
너무 어렵게 지금 생각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이 어떤가를 좀 떠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자신이 옳아다 생각하시면 됐다.잘못한게 있으면 그냥 미안하다.
이미 다하신 노짱님이기에 그냥 마음이 편했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김덕찬 2009.04.22 11:55

힘 내세요 그리고 건강하시구요. 제 마음이 다 아프군요.....

견디셔 2009.04.22 12:06

그냥 밖으로 나오세요. 침에만 힘들지 나중엔 지들도 뭐 내용없는사진 계속 찍겠습니까? 당신이 대단하신 한가봐요. 이렇게 관심
들이 많다니...그래도 조중동기자님들은 얼전거리지 마라~~

물처럼바람처럼 2009.04.22 12:11

노공이산님 힘내세요. 정의는 항상 승리하며, 조만간 시련은 끝나리라
생각됩니다....

꿈그리고바다 2009.04.22 12:14

함께 하고 있습니다....대통령님....함께 하고 있습니다...건강 챙기시구요...

금털강아지 2009.04.22 12:16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휘가로 2009.04.22 12:18

그래도 너무 삼심 마세요^^^이시련이 지나면 다음달 5월부터는 태양이 대통령님 과함께할것입니다~~!건강하시고 힘내세요 뒤에
서 수백만이 응원합니다~~

탁서방 2009.04.22 12:21

힘내시라는...건강챙기시라는.... 댓글밖에 할 수 없는 현실에
마음이 더욱 아프고, 또 화가 납니다.

지금처럼 좋은 봄바람도... 따스한 봄별도 느낄수 없다니..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언론에서의 말과 여론은 일부의 의견이지, 절대 우리 국민전체의 의견은 아닙니다..!!

리욱 2009.04.22 12:31

어쩔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 참으세요! 받아 드리세요!

바르고착하게 2009.04.22 12:52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런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내십시오~

만인의노짱 2009.04.22 12:58

왜 눈물이 나는지....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부디부디 힘내세요....ㅠㅜㅠ

민이가 2009.04.22 12:59

여기에 잡소리 올린것들 낮짜쪽 봤으면 좋겠다 !! 너 집안은 얼마나 잘났냐 ? 다 ~ 조상들 잘못 만나거지 ! 더러운 새끼들 !! 언론 썬
라시 들한테는 건달 깡패 가 제격 일꺼야 !! 우리가 가서 언론 썬라시 사진기자들털을 쫓아 내야지 않냐 ?

BuriBuri 2009.04.22 13:00

노무현 전대통령님. 언론의 힘은 어디에 두셨나요?

연배가 아래인 저이지만 올린 글을보고 있다면 마냥 아이가 보채듯이 마냥 투정부리듯이 보여 그냥 안스럽기만 합니다. 언론들
어디 한두해의 일도 아니고 그만한 것쯤은 다 품고 가실 정도의 여유로운 마인드는 어디로? 그릇이 그정도이신지? 당장 밖에 나가
잡초도 뽑고 기르고있는 애완동물이 있다면 먹이도 주고 보살피기도 하고 동네주민 만날 분들있으면 가서 만나고 할것들을 하세
요. 인생의 허울뿐인 껍데기 기사에 오르내린다고 뭘 그리 푸념하시나요!

그것들도 밥먹고 살려고 오늘도 사진한장 캡쳐해가려고 하는가 보다 하시고
나가서 그것들도 보살펴주세요 그냥~ 한나라의 대통령쯤 했으면 배포경도도
커야 할듯 싶습니다.

" 그들은 그들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보리차 2009.04.22 13:06

제가 비밀리에 개발한 해리포터의 투명망토 보내드리겠습니다~

엄마랑아들이랑 2009.04.22 13:12

가다가막히기도하고 굶이쳐 흐르지만 결국 강물은 바다로 간다는 당신의 퇴임사 를 듣다가 KTX를 타고 봉화를 왔던 주부로서.. 당
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결국 진실은 승리할것이고 ..진심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시간이 흐른뒤 평가 할것이고요. 다 잘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통사람들이 할수 없는 그무엇인가를 원칙과 소신 국민에게
둘려준 기본권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당당 하게 대처 하십시오..

미소쟁이 2009.04.22 13:24

진짜 이 거짓 소셜쓰는 기자단을 아예 봉하마을에서 추방 시켜야합니다. 이 인간들은 정말 상종도 못해요. TTTTTTTTTTTTTT
TTTTTTTTTTTTTTTTTTTT 못지켜드려 넘 죄송해요. 다음달에 제가 봉하마을 가서 쫓아 낼게요. 이 썩은 인간들이...

거창때기 2009.04.22 13:28

정말 심장 떨립니다. 저런 것이 얼론이라면 우리에겐 언론 따윈 필요가 없습니다.....

rogur(舊) 2009.04.22 13:39

대통령님...죄송합니다..

아무 힘도 되어드리지 못합니다...죄송합니다..TT TT

응원군 2009.04.22 13:53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무현쟁쟁 2009.04.22 13:54

타인의 행복한 모습을 잡기보다는 타인의 결점을 잡기에 급급한

그러면서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언론뿐만이 아니라 소위 무언가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용기를 가지고 맞짖으신 노짱님을

그래서 국민들이 존경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노짱님의 순수하고, 바다같은 마음을 알기에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몸에 똥이 묻은 줄 모르면서도

터킬똥은 허물을 나무라는 어리석음을 목도하고서도

차마 큰 목소리내지 못하는 무력함에 한탄을 할 뿐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죄인들이 제 세상 만났다고 지껄이는

멍멍이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할는지요.

하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는 항상 빛을 발하였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함을 알기에

노짱님이 겪으신 시련은

국민들의 피맺힌 후회로 송글송글 맺혀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허물이 있다면

그건 허물이 아니라

당신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국민들의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야 국민들에게 피눈물 맺게 한 멍멍이들에게

이제 그만 짊어라 호통이라도 한 번 치실 것 아닙니까?

\

피라미드 2009.04.22 13:55

똥물은 자신의 몸은 모른체 남의몸에 묻은 머리카락한울을 손가락질하는 현정권의 꼴이 가관이 아니네..전과14범이 떡검과 짜라시
언론을 등에 업고 개망나니 처럼 날뛰며 국민과 가장신뢰받았던 지도자를 기망하고 더 나아가 영원한 권력을 탐하는 하이에나 같
은 차떼기당족속들아..국민의 손에 아니 가진자의 10%에 못드는 서민들의 손에 꼭 심판당할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존경하는 16대 대통령 노무현님 꼭 이 역경을 참고견디시기 바랍니다.건강있지 마시고요..

dorae 2009.04.22 13:57

답답하고 짜증이나는 현실입니다..사랑하는 대통령님!! 제발 건강있지마시고...힘내십시오.

♡노무현♡ 2009.04.22 13:59

노대통령님 힘내세요^^;;ㅋㅋㅋㅋ

그래 옷자 2009.04.22 14:01

힘내십시오,,,대통령님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지도 당신을 점점 닮아 가는가 봅니다..정의롭지 못하면 밤잠을 설치는 제 모습을 보니
우리가 서로 닮아 가는가 봅니다..건강하십시오.

fact 2009.04.22 14:05

지난5년동안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고생하신 대통령께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나쁜놈들..기사를 쓸려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
는 장자연사건에 연루된 것들 어떻게 됐는지 거기서 죽 치고있어야지 취재원들은 위에서 시켜서 봉화마을에 있겠지만 아마 행복할
거예요 대통령 가까이 있으니까요

홍민 2009.04.22 14:07

지난 주 한겨레신문에 두 분이 뒤뜰에서 찍힌 사진을 보고

너무들 한다고 우려했는데 역시나 맞았군요
"한겨레 너마져..."하고 실망했습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을 외면하고 있지만, 깊어가는 측은지심과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처지가 안타깝네요
"이것 또한 지나갈것이다" 위로하며 두 분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傾國之色 2009.04.22 14:08

힘내세요.

믿을꺼예요 2009.04.22 14:09

힘내요.....
대한민국 국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님 편이니깐요~~~~

그델위한사랑 2009.04.22 14:11

힘내시고 건강은꼭 지키셔야합니다...
존경합니다~

faust 2009.04.22 14:17

힘 내십시오. 적들 못지 않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은 참으로 복있는 사람입니다.

수정맘 2009.04.22 14:20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글을 올리셨을까요... 창살없는 감옥이시지요... 언론인분들... 노무현대통령님의글 읽어보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여태... 언론에 총칼이나 휘둘렀지 이런 사생활 보호 부탁하는 대통령이 어디있었습니까...ㅠㅠ

깨끗한세상7 2009.04.22 14:21

어찌합니까... 퇴임전 조중동 개박살내고 퇴임하셨어야지요
이제는 암울한 독재에 불과한 현실속에 나라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는데 땅만파려는 미친놈 한마리 때문에 민심과 금수강산은 병들어갔죠...
노통님 이번 탄압지나고나면... 개명박이 비리 터트려 그 개잡놈 사형시켜버리죠...

남산동매 2009.04.22 14:41

누가 뭐래도 당신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향기나는사람 2009.04.22 14:42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그사람들에게 부탁 하신다고 들겠습니까?
차라리 그들 무시하고 평소대로 생활 하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시면 그런대로
이럴 때 일수록 더욱 많이 보여 주시면, 오히려 그들이 물러가지 않을까요?
여사님과 손잡고 뜰을 거닐어 보십시오. 아프신 모습 그대로.....

착한구슬 2009.04.22 14:46

힘 내세요. 말주머니 없어서.. 다만 마음이 참담합니다.
참고 기다리면 개혁할 날 있을겁니다. 우리가 있어요. 지원하는 우리가.

적세 2009.04.22 14:51

취만도 못한놈들 4년후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할놈들 남잘된꼴못본놈들 손모가지에서 더러운똥통잡고 안나주려고하는몸부림
지난10년 얼마나 원통했을까 현법을바꿔서 노짱님이 4년만 더했으면 완전 박멸할수있었는데 ^^ 사필귀정^^ 핫팅

용인 2009.04.22 14:54

노무현대통령님 제생각에는 옛전처럼 방문객도 만나시고 자저거를 타시면서 들에도 나가시고 모(벼)자리도 돌보시면서 농사준비
하셨어야지요
대통령님 건강을 챙기십시오. 그리고 힘내세요 영원히 함께합니다

산골짜 2009.04.22 15:01

댓글을 보니
국민들이 참는데도
한계에 도달한 느낌을 받는다.
멀지않아 어떤 형태로
폭발할 것만 같다.
분노로 들끓고 있는 뜨거운
기운을 느끼게 한다.
어제의 역사를 보건데
우리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폭발할 것 같은 일촉즉발의
기운이 느껴진다.
신은 정의의 편이다.
악은 오래가지 않는다.
I love 노짱.

minimini 2009.04.22 15:06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왕 언론이 떠들어대는 것이고, 더 이상 망설이며 언론의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무슨 대 죄인인양 하시면, 결국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 하지않을까요. 그냥 태연스럽게 언론은 언론대로 놀게 하고 대통령님은 대통령님대로 예전 처럼 행동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피하기니까 그들이 더 의구심을 갖지 않을까요?

동창생 2009.04.22 15:11

어배어나 주르른 추악한 미, 일추종자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고, 수십명 죽인 살인범도 인권이라고 마스크를 씌워 보호하는놈들이 감히 대통령의 사생활까지 침범하면서 언론이니 기자니 까불고 다니니.. 감히 대통령과 맞짱 뜨자던 싸가지 없던 검사와 같은 부류들이지.. 근데 그 검사는 지금 어디 갔지? 상드기형제와는 한 판 안볼고.. 좋은 사람은 물어뜯는 승냥이 가튼 녀름!!

레볼루션21 2009.04.22 15:28

사랑합니다....

승이아빠 2009.04.22 15:28

대통령님 건강하시지요,,?힘있는 몇몇권력짜라시 밑에 기생하는 과라치들이라 생각하시지요,대통령님 국정돌보실때에도,시도때도 없이 판지결턴-그 메이저 짜라시들이 아니었던가요,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메이저 족벌언론을 언론으로 보지않을것입니다,그저 짜라시로 치부할 뿐이지요? 그 메이저가 주관되어 언론플레이하듯이,정치검찰로 전락한 현실앞에 대다수 힘없고,나약한 국민들은 바르게 보지 않을것이기 때문이지요>>?대통령님 늘 건강하시고 웃음 일치 마십시오,사랑합니다,당신은 우리의 소중한 대통령 이십니다,

디케의저울 2009.04.22 15:42

대통령님 절대 검찰소환 응하지 마십시오.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을 어떻게 검찰이 소환조사 합니까? 그럴 사안도 아닙니다.여쭙는 것 으면 직접와서 조사하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이 국회에서 시정연설하러 들어가실 때 한나라당 의원들 절대 기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본예의도 없는 한나라당 권력하의 검찰에는 절대 소환에 불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검찰의 소환에 응하시면 안됩니다.

빵장 2009.04.22 15:56

힘이 되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마음은 늘 함께하겠습니다.

투표권 2009.04.22 16:01

죽치고 있는 언론들 보면서 힘드시겠구나 생각했는데...ㅠㅠ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노통팬 2009.04.22 16:17

노짱~~언제나 당신과 함께할것입니다
사랑하고,,,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박경민 2009.04.22 16:24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등을 돌린다해도 저희는 대통령님 곁에 있겠습니다..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ㅠㅠ 정말 언론도 너무 심하네요

포돌이엄마 2009.04.22 16:26

존경하는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작은힘이라도 되어드려야 하는데...

바다바다 2009.04.22 16:31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잘 이겨내시고, 큰 힘 내십시오.

강하빈 2009.04.22 17:11

문화가 문명을 그나마 따라가면 선진국에 가까운 것이고, 멀어질수록 후진국인 것처럼 기본이 안되는 언론은 반성해야 합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언론이 진정한 국민의 눈과 귀가 될 수 있겠습니까?

destiny_ 2009.04.22 17:16

기자들때문에 집밖도 못나가시다니..
기자들도 참..;

명량아부지 2009.04.22 17:21

노짱님!
힘내시길 바랍니다.
꼬~옥...

김범연 2009.04.22 17:25

자자.. 다들 진정하시고.. 3년정도 참고 참여정부 시즌2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합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죄든, 무죄든... 뭉쳐야 할 시간입니다.
실망과 분노를 가진 분들도 마음을 다시 잡으시고, 그를 열렬히 지지합시다.

산너울 2009.04.22 17:37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침묵한다는건 지금으로서 뭘 의미하는지 전 조금알것도 같습니다
이번일로 오히려 국민들이 노공이산님을 더 알게되고 사람사는 세상 흥피도 더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군대갔다고 인터넷도 끊었던 친정 오빠가 며칠전 인터넷 신청했다고 저한테 몇가지 묻는 전화가왔었습니다
컴맹인 제게 말예요 ㅎㅎ전 그때 문득 하늘이 도우실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말은 도움되진않겠지만 그래도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ㅠㅠ
마음고생 많으실 우리 여사님,,,서로 챙겨주시며 건강챙기시길 빌겠습니다.
두분 존경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운전사 2009.04.22 17:45

알 권리라는 미명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재임시절에도 그랬지만 기자들의 무자비한 취재는 과히 살인적이랄 할수있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님 힘 내세요. 부디 정의가 승리할수있길 바랍니다.

여우눈물 2009.04.22 18:16

힘내세요... 그저 할말은 그것뿐인것 같습니다. 기자들도 입장은 이해하지만 최소한에 예의는 가취되어야하듯 하네요.. TV에서 국민들에 최소한에 기본수준을 요청하듯 기자들도 최소한에 기본수준을 지켜주면 행복한 나라가 될것같습니다.

행복하길 2009.04.22 18:34

힘내세요..... 제가 제일 존경하던한분을 이렇게 무참히 목살시켜려하다니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힘내생!

winwin1789 2009.04.22 18:40

에고고. 노무현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별다른 도움이 못 돼 드려서요...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실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긴 하겠지만, 반드시
정의 진실이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새 역사를 쓰신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계시기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별 다른 도움이 못 돼 드려서요...
건강하시고요...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물론 절 모르시겠지만요...

행복나라 2009.04.22 18:48

죄송합니다.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 당신을 지켜드리지 못한 점... 가슴이 시리도록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외에는 아무말도 할 수가 없군요. 당신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칼리나칼리나 2009.04.22 18:51

힘내세요!!!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좋은 날이 올겁니다.
그때까지 조그만 힘내세요!!!

더글러스 2009.04.22 18:56

사자바위에서 카메라 들이댄양반들...
이제는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4월에 번개맞아 떨어질지도...
안마당을 거닐수 있도록 해 드립시다...

큰호수 2009.04.22 19:02

너무너무 슬픕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리들 성화인지.
저들의 사악한 공격으로부터 당신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있는게 너무너무
슬픕니다. 힘내세요..대통령님..당신의 이 나라의 영원한 대통령님이십니다

민주주의를외치다 2009.04.22 19:10

비운뒤 땅이 더 단단하게 굳는 법입니다...지금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하지만 기력잃지마시고 더 당당한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밝으면 밝을수록 더 살아나는게 바로 진실이란 풀입니다...걱정하지 마십시오

광우병사골국안먹어 2009.04.22 19:14

노대통령님 힘내세요.
건강조심하십시오.
사랑해요.

밝은 세상이 오는 날까지

중수 2009.04.22 19:32

존경하는 노무현대통령님.. 국민을 믿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국민대혁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9405>

중수 2009.04.22 19:32

존경하는 노무현대통령님.. 국민을 믿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국민대혁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9405>

안사마야 2009.04.22 19:58

끝날날이 몇일 안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너무 심려하시지 마시고요~

pusan76 2009.04.22 20:03

언론 기자님들 아가리와 손목까지 박살내고싶다
예의도없는 기자 시방새리털

농협사랑 2009.04.22 20:32

참 희안한 세상입니다.. 힘내십시오..

나리장다리 2009.04.22 20:58

힘내시고 세끼밥꼬박꼬박챙겨주세요 건강하셔야 합니다.

american 2009.04.22 21:07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시련은 있어도 불명예는 없다.
이렇게 될것입니다.
아~마님의 얼굴에 웃음이 다시 피어날날이 멀지 않았습니니다.

asdfgg 2009.04.22 21:42

힘내세요
저는 노무현님께서 대통령하셨을때가
제일 좋았어요!

차장면 2009.04.22 22:32

부끄럼. 어쩐지 파란 하늘을 보기가 싫어요. 이게 무슨 이유인가요

바라기 2009.04.22 22:56

언젠가 당신님의 뜻을 알겠지요

마리나맘 2009.04.22 23:13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당신을 지지하며 성원합니다.
얼마나 힘드실지 도움도 못드리고 맘속으로만 안타까운 요즈음입니다..
건강 챙기시구요.. 많은 국민들이 당신의 편이랍니다
기운내세요. 핫팅~~~~!!!

사랑의실천 2009.04.22 23:30

힘내세요 힘드시겠지만요 ..

반야풍선 2009.04.22 23:35

님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소낙비 지나면 맑은날 오잖아요.
당당함 잊지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워하는이 2009.04.22 23:40

노짱님, 힘내십시오..
멀지않을 날에... 노짱님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지치고 지치면, 무언가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 봅니다..
힘내십시오!~

바람숨♡ 2009.04.23 00:14

정신적 고통으로 병환이라도 나실까 염려됩니다. 부디 쓰러지지 마세요 ㄸㄸ

휘소 2009.04.23 01:12

부디 흑한의 시기를 잘 참고 견뎌주십시오..

아직 다수의 국민이 노짱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공정한 잣대를 들이댈 때까지..

그리고 사람은 세상이 폐쇄되는 건 정말 막고 싶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_-)

아덜돌 2009.04.23 01:21

하루빨리 울대통령님 웃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야만적인 언론들

nymph 2009.04.23 04:31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마음속 깊이 응원드립니다.

Lousalome 2009.04.23 06:06

ㄸㄸ...

적광 2009.04.23 06:21

취세끼들 보다 더 한 놈들이 또 있네요.
힘내세요.....

사또. 2009.04.23 09:43

힘내시길 바랍니다..

ieyodo 2009.04.23 09:47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힘내십시오, 당신만이 진정한 대통령이십니다..

안병일 2009.04.23 10:20

퇴임후 눈동글에서 감람을 드시는 소박한 님의모습을 사진으로 보았는데 안타깝네요 ,언론의 집중이 되신것이..

행복한나귀 2009.04.23 10:44

목이 배어 눈물꽃물만 나네요. 어찌다 이나라가 민주주의는 어디가고
살벌한 세상이 됐는지..노무현 대통령님 계실때는 억울한 사람은 없었는데..노짱님 난 당신의 그모습 그자체가 좋습니다. 답답 하
시겠지만 어둠이 있으면 밝은 내일 반드시 옵니다. 잘 이겨 내시리라 믿읍니다..

불쏘시개 2009.04.23 11:06

음 오래간만에 들어와 보니 이런 글도 있었네요!!
방법 간단합니다. 내 사진을 실었을 경우 초상권 침해로 고발하겠다고 하시고 그후 신문이나 다른 곳에 촬영되어 실렸을 경우 실제 로 초상권침해로 고발 해 버리십시오! 10명을 죽인 살인자도 얼굴 감추고 모자이크 처리하고 하는 마당인데 왜 남의 얼굴을 맘대로 실고 난리야...신문이나 잡지에 실어도 된다고 허가 한적 없는데...그리고 당당하십시오!!... 뭘때문에 집안에만 있습니까...전두환도 김영삼도 잘도 돌아 다니고 있는데..너무 소심한것 아닙니까?...뭘 줄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전두환 보다도 김영삼 보다도 백배 아니 천배..천만배 더 훌륭하십시오...당당하십시오!!...마당에 나오셔서 꽃도 가꾸고 야채도 심고...뭘가 풀리십니까?...진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하나님만이 내 편이라면 이세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Qkfroddl 2009.04.23 11:55

대통령의 한 마디로 어느 가정은 가장이 자살을 했다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런 점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코알라ksj7 2009.04.23 13:19

위에분? 자살 나와서 말인데, 혹시 전 대우건설 사장말인가요?
아하하하~ 웃깁니다. 이래서 '수준'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살까지 하는 배경에는 얼마나 많고 많은 일들이 있는줄 아세요?

귀가 상당히 얇고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디 신문사처럼 그분의 자살 사건을 알지도 못하면서,
고인이 된 사람의 이름을 이용하여
본인들이 싫어하는 노무현 전대통령을 괴롭힐 생각에
형편없는 풍광이로만 가득하다면 그만하는게 본인에게 도움되지 않을까요.

기업세계의 경쟁은 끝도 없습니다.

hanabi 2009.04.23 13:38

썩어빠진놈들 어디 감히 전 대통령님의 사저 안뜰까지 쳐들어와서 마구 사건을 찍어댔니까! 천하의 배은망덕한놈들같으니..

망한나라 2009.04.23 14:20

가족을 버렸는데 집에 있는 딸은 못버리나...
가족보다 안뜰 걱정하시는 분이시군요..
동정심에 호소하려는 느낌이 확 오는군요..
언제나 말로 수습하려는 모습..
보기 싫습니다.
가족이 걸려있는데 안뜰 걱정이냐 하다니..
사람으로서 정말 할것입니까??
이젠 말로 안되니.. 몸으로 하세요..
내 가족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민주주의니 지지자니 말씀을 하시는지..

자업자득..이제 마무리 하셔야져..

킹왕짱이십니다요., 2009.04.23 15:25

우리가 2MB를 대통령으로 뽑은 순간부터 망한나라지요...죄송스럽습니다...우매한 국민이라서...그리고 원망스럽습니다...좀더 궁색하지 그러셨어요?...그러면 우리들이 가만히 안있었을텐데...ㅠ.ㅠ..정말 죄송합니다...

여전사65 2009.04.23 15:53

저들 기자란 인간에 탈을 쓴 이들이 과연 전직 대통령 다른 누구에게 이런 행동을 한 기자님들이 있는지? 묻고싶네요.. 정말 이글보면서 또 눈물이 납니다. 아니 화가 치밀어서 미치겠습니다..

조아트 2009.04.23 16:12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전직대통령이기 이전에 한사람의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감옥살이도 아니고 도대체 뭐하는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노짱님 힘내십시오

따뜻한사람^^ 2009.04.23 16:42

정말 너무하네요...
노무현대통령님 힘내세요!!!!
눈물이 울컥하네요..ㅠ_ㅠ
지금의 우리나라 이 현실...이민가고싶습니다...

송하 2009.04.23 16:43

대통령님
새벽은 옵니다.
부디,건강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조앤 윤 2009.04.23 17:28

가슴이 너무 아프고, 어이없는 현실에 할 말을 잃습니다
노공님! 힘내세요
가족분들 모두 이럴수록 건강챙기시고,
악몽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편지 2009.04.23 17:51

노무현 대통령님 힘 내셔야 합니다.
꾸뚝하게 견디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는 노무현님과 아픔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번 일이 꿈이길 바랍니다.
온갖 모함과 질시와 증상모략과 계략이 난무해도
진실은 죽지 않는 법입니다.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하늘땅땅만큼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 가장 행복하신 노무현 대통령님,
국민의 사랑을 한껏 받으시기에는
땀가를 치워야 하는 일입니다.

무현♡ 2009.04.23 20:31

힘내세요
노무현전 대통령님도 한나라의 살고있는 시민이신데
이렇게 사생활을 포기하다 싶어 사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힘든것은 알지만 조금만 우리 견디서
남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정치가 바로 잡아졌으면 하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반란군 2009.04.23 20:35

대통령님 오직 우리의 대통령은 노짱님 뿐입니다, 어제나 당당한 모습으로 건강 하셔야 합니다, 노짱님의 건강은 님의 건강이 아닙니다, 꼭 우리의건강이고, 우리의 희망 이니깐요.. 늘 건강 하셔야 합니다.

순아 2009.04.23 21:32

제 가슴이 터질것만 같네요...

yumi75 2009.04.23 22:19

노무현전대통령님 정말울화통터지겠네요.....기자들이너무하네여.....

사생활이있는데그것까지 방해를하다니....

장가이버 2009.04.23 22:20

힘내십시오~~ 언제나 사랑합니다~

ksb6042 2009.04.23 22:24

살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님의 가정과 덕내와 자손들 위에 늘 함께 하십시오 가문의 영광이요 자자손손 영광이 되시는 노무현님! 님의 글도 읽어 보았고 열성팬님 악성팬님들의 글도 쓴소리들도 읽어 보았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의 소견은 과거 어떤 대통령님이든 개개인들이 비방하는 처사들은 옳은 일들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큰 부자와 왕과 대통령은 하늘에세 내린다는 속담도 있듯이 참새(국민)들이 봉황(대통령님)의 나라와 백성들과 국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마는 대통령님이 되시니 국민 모두가 투표하여 세웠고 5년 동안 검은 머리가 쥐기까지 이마에 일자주름이 깊어지시며 국정과 국사를 열심히 돌보시다가 퇴임하셨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정에 가장노릇 하기도 힘든 일인데 일국의 대통령님으로서 얼마나 고초가 많으셨겠습니까? 박수와, 찬사와, 갈채를 보내고 싶습니다. 노무현님! 이제부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님께 환포를 찍은 유권자로서 쓴 소리 드리고자합니다. 저는 열성팬도 악성팬도 아니며 정치면 더군다나 아무 관심도 없습다. 여당편도 아당편도 아닙니다. 아는것도 배운것도 잘난것도 없거니와 가진재물도 아무런 재주도 내세울것도 없는 56세에 당뇨병을 앓고있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나이먹은 촌로에 불과한자입니다. 남편은 11년전 IMF 쇼크사로 세상을 훌연히 떠나버렸고 운영하던 공장과 살던집은 집달리에 빼앗겼고 지금은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딸 둘과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두딸이 부족함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비결은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행복하며 세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린후에야 찾아온 행복이란걸 터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욕심이 없다는것은 분명코 여짜가 있는말이며 어찌면 바보같고 천치같은 말이겠지요. 재물이란 녀석은 분명코 풍요롭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생활수단을 만들어 주는 녀석임에는 틀림없으며 절대로 부정을 하진 않습니다. 하늘같이 믿었던 가정경제의 주 원동력이 되었던 남편이 어느날 훌연히 하늘나라로 가버리고난 후에 저는 고아와, 과부와, 앓은병이, 귀머거리, 림플발이, 등 장애를 가진이들의 눈물과 아픔을 알기시작했습니다. 당뇨병외에 아직도 저는 팔, 자리가 성성하여 장애를 가진이들의 애로는 잘 모르는게 사실이겠쎄. 사랑하는 노무현님, 마음을 낮추시고, 내려놓고, 님보다 낮고, 친하고, 약하고, 아무힘이없는, 낮고 친한 백성들에게 마음도 물질도 나누어 주는 삶을 사심은 어떠신지요? 그렇다고혹시 저를 도와달라는 예긴 더더욱아닙니다. 자손도 다여우시고 일평생 연금나오시니 의식주 염려 없으시니 무슨 더이상의 재물이 왜 필요하며 수행 비서가 두 노인양반 사시는데 무슨 필요가 있으십니까? 미국에 지미카터 대통령같이 서민으로 돌아가 땅콩밭에서 농부로 일하며 이마에 땀흘리고 열심히일하여 낮은곳에 손을 뻗히며(숨은적선, 구제등) 얼마나 칭송받으며 하나님 앞에 사람앞에 칭찬과 자랑이 되며 저냥반이 과거에 정말 전직 대통령 이셨나 할 정도로 겸손하게 하늘나라 가기전 남은 삶을 하나님앞에사람앞에 떳떳하고 보람되게 사실순 없는지요. 봉하마을엔 윈 그리도 화려하게 치장을 하여 국민들의 비난을 무데기로 받으셔야만 하나요. 그런돈을 여틈이면 홍수로 집과 재산과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홍수피해지역에 쓸수는 없었던가요. 100원을 쓰셔도 국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곳에 쓰셨더라면 얼마나 님을 칭송했을까요. 님이쓰고도, 쓰고도다 못쓰시는재물, 건평님의재물, 아들, 사위님의재물들 낮은곳에 부디 푸십시오. 청량리 굴다리밑에서 밥퍼주는 최일도 목사님께 인생의 참다운 삶을 살려면 어찌 살아야되는지 안방거실에서 불필요한 국가적으로낭비인 국민들의 혈세가 나가는 비서들 다 집으로 보내시고 불필요한 탁상공론 마시고 남은삶을 보다 값지게 사시기위해 고민중 하십시오. 불필요한 재물에 욕심에빠져 세상떠날때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욕심을버리십시오. 재물욕심으로 님의인생에 끈을수없는 족쇄가된다것 왜모르십니까? 욕심이인태한즉죄를놓고죄가인태한즉사양을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시고 닦아 가십시오 주는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배푸는삶을 사십시오 아마도 마음의 평안을 찾으실겁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자녀 손자손녀도 예수님께 하십시오 밖으로 마음대로 외출하십시오 수행비서모두보내고말입니다. 카메라맨들은 자기들의 소중한 직업을 가진 처자를부양하며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될 훌륭한 분들입니다. 왜신경을 쓰십니까. 왜의식하십니까? 선한일로 청량리굴다리 밥퍼주는 전직 대통령으로 지미카터대통령과같이 세계의메스컴 한번받으시며 카메라세레한번받아보심은 어떨런지요. 제가읽어본 댓글들 쓴소리 한 몇분외에는 충신이 없다고보시면 맞습니다. 저는안동김가로써 부친께 배운것이 충신은 충언하고 간신은 간언한다 배웠습니다. 부디 님께서 과거대통령시절과 과거의왕관을 제발벗으시고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평범하게 지미카터와 같이 국민의 칭송과 자랑이되는 님이되시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늘 주안에서 님의가정이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믿는다니깐 2009.04.24 06:59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부디 기운내세요.

빈혜 2009.04.24 08:11

당신은 우리의 믿음이자, 우리의 친구입니다.... 힘내세요!!! 새벽은 반듯히 옵니다!!!!

종이비행기 2009.04.24 09:28

아직까지 활일이 많으십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힘내시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으쌰으쌰 화이팅!

호반의 달빛 2009.04.24 09:37

사저 앞에 있는 기자들, 카메라 사진보고 깜짝놀랐네요... 노짱님의 고초가 얼마나 크시면 이런글을 올리셨을지... 다른 큰사건들도 그렇게 조사 좀 하지 뭐하는지...

대한민국대표야빠 2009.04.24 10:55

기자들... 너무 하네요.... 안그래도 힘드신 분에게 이렇게 큰 짐을 짊어지게 하고 있으니... 자기들의 쓰레기 신문에 거짓 정보를 담기위한 사진을 찍기위해... 역시 세상은 더럽군요... 힘내십시오 대통령님

차가운별빛 2009.04.24 12:38

기자들이 전두환이 쟁겨먹고 아직도 국고에 환수 안된 수천억의 돈 출처나 파는 탐사보도나 해라..

killer47 2009.04.24 19:19

☞☞ 지금이 기회!! <http://REALSTAR.TK>를 클릭하세요!!☞☞
☞ 나이트퀵라스 플레이텍 영국 AIM시상 상장회사인 플레이텍에서 개발
☞ 무료 체험머니 10만원 지급, 첫입금시(10%)보너스지급
☞ 실전과 같은 카드 찍기 3D 구현!!! <http://REALSTAR.TK>
☞ 24시간 고객센터 메신저 응대 <http://REALSTAR.TK>
☞☞ 지금이 기회!! <http://REALSTAR.TK>를 클릭하세요!!☞☞

새와나무 2009.04.24 20:25

늘 감사드리면서도 이렇게 힘든걸 보고만 있어야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픡니다. 건강하세요...

달맞이꽃 2009.04.24 21:52

제발...우리 대통령님을 그만 힘들게 해주세요..최소한의 사생활도 보장이 안되고..집에서 문도 못열어놓고,,마당에도 못나오시니 얼마나 갑갑하고 힘드시겠습니까!! 이러다가 우리 대통령님 건강에 이상이랴도 생긴다면 당신들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호미 2009.04.24 22:18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 생각납니다.
여기 오셔서 가슴아파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제게는 감동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 내서 대통령 응원합시다. 무슨일있으면 일어서야죠.
역사는 말하리라, 당당한 우리의 길... 노래가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걸 우리가 보여줘야죠.

쟁하고해뜰날 2009.04.25 09:21

대통령님..아직도 당신이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부디 힘내시고 다음을 위하여 건강꼭 챙기십시오..

장용영 2009.04.25 13:09

한 없이 사랑하는 아들이 힘이 들어 할 때 도와주지 못하는 내 자신이 미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힘이 들어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한 없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옷에 먼지를 묻히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는 사람은 비 정상적인 사람 이던가 아니면 신 일 것입니다.

books 2009.04.26 01:17

착잡한 마음입니다. 마음고생 이루말할수없을텐데요...오래전 더한 고통도 견뎌내고 오셨는데..어쩌면 지금 겪고계신 이 상황이 더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 이제 모든 것 다 버리고 다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일어서십시오. 당신의 성품으로 보건데..가족들이 겪는 아픡과 '노무현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대한 마음이 더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무현님의 양심어린 마음, 그런 성품을 더 사랑하고 있기에.... 작금의 어려움을 함께하고있습니다.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힘 내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술내음 2009.04.26 23:45

노공님의 탄압은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바보입니다
물질만능시대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진실이 외면당합니다
정말 가슴아픡니다

사람이좋아 2009.04.27 18:52

사람냄새를 맡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심정 얼마나 힘들까요.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니미럴 2009.04.28 05:05

자식 키우고 밥세끼 먹는데 아무 문제 없다면 그런 고생은 감수하겠습니다 사람은 살라고 태어났지 구질구질하게 고생하면 살라고 태어나진 않았습디다 그래도 당신은 남이 갖지못한 영광을 누리고 살았잖아요

원마람 2009.04.28 18:27

똥물을 퍼맛인다 해도 이런 기분은 아닐것입니다.....T.T

별빛한잔 2009.04.29 00:02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그것들은 이미 언론이 아닙니다.
스토커로 신고해야할듯. 근데, 어디다 해야할른지.... 이릉표만 다른 같은놈들이라서.. 그제 답답할 뿐이네요.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찌될려는지.. 혼란스럽습디다.
제발 기준이 되어주세요. 아무리 저것들이 흔들더라도..당당해주세요.
이미 공정성을 잃은 언론의 삿대질따위를 두려워말아주세요.
판단은 저희가 하는겁니다. 저희를 위해서라도 힘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Sa, 2009.04.29 21:44

언론들 너무하네 -_- 그만좀 괴롭히지? 노전대통령께서 이렇게힘들어하는데 -- 진짜 노전대통령 소환하기전에 우리가 언론 소환시킨다 --

아미2 2009.04.30 10:04

언론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을 느낍니다. 아마도 언론은 노대통령님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는 모습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낱아주고 키워준 고향으로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사람사는 세상에서 사람 내음 맡으면 살고 싶습니다. 흠뻑 단으시면 안됩니다.

syhim 2009.04.30 13:11

아침 뉴스를 보고 하루종일 마음이 착잡합니다. 부디 지금의 어려움 잘 이겨내시고 당당함과 여유로움으로 당신의 안뜰을 맘껏 누리시고 당신이 생각하는 봉하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리없이 당신을 향해 해바라기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 잊지마십시오.

루디아둥지 2009.04.30 13:27

언론도 참 너무들 하시네요~

홍부마늘 2009.04.30 14:15

힘내세요~

노무현화이팅!! 2009.04.30 21:39

혁 어떻게그럴수가
-- 기자들 꺼져라!!!
어떻게 24시간 지키고 있을수가있어....

ilovejx77 2009.05.01 15:51

힘내세요..
이렇게라도 노통님을 응원할 수 있는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Buena Vista 2009 2009.05.01 17:40

아이,, 참. 언론들이 궁금해서 그렇잖아요
저같은 사람들은 노짱께서 어케지내는지 그런 언론
아님 알길이 없기딜랑요..ㅋㅋ
알아서 사진좀 올려주세요.. 매일매일요.
꼭매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잘계시는구나하고 안심하죠.

암튼 사진기자님들 노짱님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어흥~~

카르페디엠2 2009.05.01 21:37

힘내세요. 대통령님~!! 대선에서...열심히 응원 보냅니다.

캐서린 존스 2009.05.05 12:29

에너지~~ 노짱은 나의 에너지~~~

노짱님~~ 힘내세요
당신결엔 우리가 있잖아요...
끝까지 당신과함께 하겠습니다

강호산인 2009.05.05 22:15

대통령이라고 금건거래 하지 말하는 법은 없소
금전거래 그건 전혀 허물이 아니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현찰은 별로 없고
돈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것인데
당신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돈이 돌지 않아 내수가 마비된 것이오.

고로 대한민국 중산층의 90%가 무너졌고
김대중 정부까진 멸절하던 자영업자들의
95% 이상이 망하거나 빚더미에 앉게 되었소
그 아픔들을 아실라라 모르겠구려

일국에 대통령이었다면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아침꾼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않됩니다.

그나마 괜찮은 사나이로 남고 싶으면
홈피 닫으십시오

-개독박멸 쓰다-

.

로빙화 2009.05.23 12:39

오늘(5.23)아침 정말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고...망연자실..
정말 정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를 죽음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살았는데...4년 전 친정 아버님이 노환으로 돌아가신 때보다 더 눈물이
흐릅니다. 당신을 지켜 드리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고간 현 정권에 대한 꿈수정치에 치를 떨며... 언젠가 바보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은은한커피 2009.05.23 13:34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네요^^**
어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 입니까?
나라 대통령한번 살았다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어찌 이나라가 살아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너무도 합니다..

노무현만이살길이다 2009.05.23 14:31

부디 그곳에서는... 보고싶은 것, 하고 싶은것, 좋아하시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목이 매여서
더이상 희망도 즐거움도 없을 것 같지만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만이, 대통령다운 대통령이셨습니다... 끝까지 당신을 믿었고 끝까
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에 한가닥 작은 빛이셨지만 그 빛은 실로 어두움을 환히 비춘 위대한 빛이었지요... 이제는 누구를 믿
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앞이 막막하지만... 그곳에서는 근심도, 걱정도 없이 편히 쉬십시오... 영원히 기억속에서 놓지 않
으렵니다... 놓지 못할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gjan 2009.05.23 14:35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대석입니다. 2009.05.23 17:04

오늘 제 마음속의 큰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전 정치와 아무 상관 없는 초라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와는 상관없이 사람으로서 훌륭한 지표를 잃어 버려서

전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샵샵샵 2009.05.23 18:06

바보 아저씨...모든것은 흘러가는것인데...그렇게 가는것인데...

영원한 안락의 세계, 극락세계에서, 자유를 갖으세요.ㅠㅠㅠㅠT;;;

끼리리릭 2009.05.23 18:31

기자.카메라맨 다들왜그런건데요....왜한사람마음도생각안해주시는데요...생각좀해주세요...

노짱찬양 2009.05.23 19:00

노짱님 분부만 내려주세요 제가 얼른 그자식들 똥꼬털을 죄다 뽑아버릴게요!

김주경 2009.05.23 19:21

죽어야만 자유로울수 있다면 꼭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지는 않습니다. 남겨진자에 슬픔은 고통이되어 당신에게 또 다른
아픔으로 전달되니까요. 하루만 시간이 돌려질수 있다면 제가 자유롭겠습니다.

럽럽러브 2009.05.23 19:49

정말 언론...한사람을 망쳐놓군요.
최대한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야할것 아닙니까..

살알살알해요 2009.05.23 20:05

언론이라..정말반성해야겠군요.....그들은 지금 최소한 죄책감을 갖고 반성해야 합니다....왜당당했던 그런 자신감이 점점 줄어들었
는지...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정말 눈물이 ..말을 듣지 않네요-ㅠㅠㅠㅠ.....앞으로 가시는길 편안하시고 하늘에서 부디 행복하시
기 바랍니다..

어이없다... 2009.05.23 20:09

언론은 그렇게 활일이없나봅니다?... 이렇게 사람죽게까지하고
하.....화가나서 눈물도 안나옵니다 ...어이없고 화가나네요..

히히키키 2009.05.23 21:13

언론은 그렇게까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싶었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사생활까지도 침해할수있나요
정말 저는 어립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보니 참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언론,,반성좀했으면 좋겠습니다

음따뽕 2009.05.23 21:23

사람을 벌써 죽이고 있었네 아주

장난 치나 ?

벌써 사람 목을 조이고 있었네

사람이 하얀집에 있으면 미치잖아요 ?

완전 그꼴이네

ㅋㅋㅋ 인간들 왜이렇게 못됐나

욕심에 끝이 없네

그게 정말 옳은일이라고 생각해요 ?

아 처음에는 좋은 생각으로 그만 법 만들었겠지만

비장의 무기로 쓰이는 지금 ^^ 뭐가요

하하 정말 사람을 카메라 속에 가두면 누가 안미치고 버틸까요 ??

당신들이 죽인거다 진짜

자살이라고 떠들지마요

당신들이 죽인거야

사람이 죽어야 죽은게 아니잖아요 ?

진짜 못됐다..

사람이 끝을 모르니 .. ㅋㅋ

영웅을 잃었습니다 2009.05.23 21:27

얼마나 힘들셨을까.....
아...대한민국 너무 싫어지려합니다..
그곳에선 보고싶어하시던 산...나무... 친구들....
위에서 편안히 내려다보고 계신가요...

conseong 2009.05.23 21:33

괜찮습니다.기자들과 카메라가 감시하는 것이라도
그 뒤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메이.. 2009.05.23 21:54

글을 읽고 당신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셨는지...새삼 느껴집니다. 얼마나 힘들셨을까.....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노짱어페이 2009.05.23 22:01

존경했어요...
역사가 평가할것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고...

산초1 2009.05.23 22:47

글을 읽고 그동안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셨는지 알것 같아요.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명복을 빕니다.

사람사는세상에사는사람 2009.05.23 22:54

정말 존경했습니다. 역사가 언젠가는 바로잡아줄 것입니다..... 부디 편안히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줄 2009.05.23 23:06

이제서야 이런글을 읽게되는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힘든신줄도 모르고...
이제는 좋은 곳으로가셔서 편히 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라미 2009.05.23 23:24

오늘 처음으로 이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멈춰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준맨 2009.05.23 23:31

역사가 당신을 평가해줄 것입니다. 힘들었던 대통령님 모습에 너무나 침통하고 부조리한 이 사회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이 평소 추구하시던 가치를 잊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시민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꼬마빛 2009.05.23 23:36

얼마나 힘들셨으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싶은 마음에 애통하고 눈물도 나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지, 조금만 더 참아주시지, 보고 계신가요? 이 슬퍼하는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모두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존경합니다. 제 인생의 첫 대통령님... 기억하고 싶은 첫 대통령님... 편히 쉬세요.....

찾이팅찾이팅 2009.05.23 23:57

대통령님 얼른은 참나쁜거같아요 21-TRG 드릴테니까 바껴서 보는 사람들 저격하세요...

우리에 내일은? 2009.05.24 00:06

아.....!!!!
가없고...불쌍하고...너무도 억울하신 노대통령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누가 뭐래도...저는 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살아계신님을 어케 만나야 합니까?
왜..저에게...이토록 가슴에 못을 심고 떠나십니까?
님께서 살아 돌아 올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저가 대신 죽어 드리겠습니다.
눈물이..눈물땀에...더 이상 글을 못 쓰겠군요...

나은선군맘 2009.05.24 00:09

얼마나 갑갑하셨을까요? 얼마나 숨막히셨을까요? 정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셨을 겁니다. 아... 대통령으로 뽑아드린 게 죄송합니다. 그럼 이렇게 억울할 일도 없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가을국화 2009.05.24 00:23

이럴때가 계셨는걸 왜 몰랐을까요
왜 이제야 당신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껴지는지요
역장이 무너지려 합니다
당신을 존경하며 사랑 했었노라 왜 진즉 말한마디 못하였는지
현정권을 짓이겨 버릴만큼 분노가 치밀니다
빠른 결단만 내렸어도 이런 아픔은 없었지 않습니까
현정권이 물고간 비악을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보고 2009.05.24 00:31

나쁜시킴들 대통령이 니네들 밥벌이고 이슈고 그러나
나는 노무현대통령을 아버지로 생각하는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니네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을했나.....? 이게 다 권리뺏은 놈들이 아버지 죽인거야.....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고.....슬퍼.....눈물이 멈추질 않아.....

아버지였던 그대 2009.05.24 00:37

이 글을 읽으며 언론에 대한 분노를 처음으로 느낍니다.
대통령님의 고통이 결국 오늘의 비극으로 이어질만큼 크셨다는거.
원망하지 말라셨지만 안할수가 없습니다.
언론이 밉습니다.
언론이 싫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기억할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아버지였던 당신을!
고통없는 곳에서 부디 편하게 쉬시길 바랄게요 -

냥냥고 2009.05.24 00:40

이 글을 이제서야 읽으니 눈물만 납니다. 제 마음속에 오직 하나뿐인 대통령님... 부디 편안히, 행복만 곳으로 가세요. 사람을 이렇게까지 창살없는 감옥에 가둬왔으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

이겨낼수있어 2009.05.24 01:00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었으면 노무현대통령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까? 힘없고 어떻게 하면 이용해먹을까하는 현 정치세력은 반성해야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짐을 다 안고 가신 진정한 대통령님.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치세력에 맞설 수 있는 건 국민들밖에 없는데... 노무현대통령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짐을 다 풀어놓고 편히 쉬세요

gumbang 2009.05.24 01:06

마음이 넘 아픕니다... 얼마나 괴로우셨나요... 눈물만납니다...

서민보기 2009.05.24 01:07

이 썩어 문들어질 정치와 언론들이 정신좀 차려라...
너희들도 얼마나 고생이겠나만은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고생을 해보아라..더럽고 치사한 족속들아...

DarmaV 2009.05.24 01:17

대통령님.. 정말.. 우리나라 조중동을 비롯하여,
친일 - 군부독재 - 뉴라이트로 이어지는 이 썩은 동아줄을,
끊으려 하셨던 유일한 분.
부디, 대통령님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하나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달맘 2009.05.24 01:20

이런저런 핑계로 그동안 한번도 들어오지 못하다가 대통령님이 서거하신 이제야 들어와봅니다... 처음 서거 소식을 들었을때 믿기지 않아 그냥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 글이 맘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저는 당연히 누리고 있는 권리를 대통령님이 그동안 누리지 못하고 계셨다니... 대통령님을 한 사람의 농민으로 그냥 놔드리지 않은 수 많은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늘에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마당을 거니시길 기도합니다. 많이 그리울것 같습니다.

청둥오리 2009.05.24 01:24

이 신성한 곳에서 절대 상스런 욕은 하고싶지않으니 꼭꼭 마음속에 눌러넣는다
이 글을보니 충분히 노대통령님의 심정이 이해가간다
아나 열통터져죽겠다 사람을 살라는거야말라는거야?
완전 사람을 짐에가둬놓고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다...아 개돼지만도못한놈들
그분이 바라는건 단지 사자바위의 시원한 경치,
자기집 앞마당에서의 좋은사람들과의 오손도손한 대화
단지 이런 사소한 정말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릴수있는 당연한 자유와 행복이었다
다 너희들이죽인거야

무현지킴이 2009.05.24 01:25

살아서 숨을 쉬어도 숨을 쉰다고 볼 수 없으니 이승과 저승이 하나라 생각되었겠지요...저승에 가면 시달리더라도 알지...어쩌면 좋나오...저희는 등대를 잃은 조각배같은데...ㅠ.ㅠ

하늘버리 2009.05.24 01:33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토록 되돌려 받고 싶어 하시던 안마당을...
거기서는 편안하신가요? 아무도 뒤따르지 않고 하시고 싶은 일 맘껏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나오... 믿고 의지할데 없어 부초처럼 떠다니는 이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네요...

나는다람쥐 2009.05.24 01:38

죄송합니다... 이제 편안 하셔야 해요... 존경합니다...

당신을존경합니다노짱 2009.05.24 02:01

이제서야와서 죄송합니다.이제 편히 마당도 다니시고 가고싶은곳 다가세요.편히 쉬세요.우리맘의 대통령은 당신뿐이십니다.

평범한수연이 2009.05.24 02:13

이제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이제에는 없네요
앞으로도 없겠죠 ...

직접 와서 내 눈으로 보고 듣기 전에 신문 기사만 보고,
인터넷 기사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했던 제 자신이 한심합니다

좀 더 일찍 관심을 가졌더라면 좋았을텐데...
대통령도 우리랑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하늘 아래 사는 그저 한 사람일 뿐인데..
오늘 하루종일 일도 손에 안잡히고 그저 멍한 생각만 드네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사람 사는게 그저 다 똑같은텐데..

정말 정치에도 그 아무것에도 관심도 없는 저였지만
오늘은 하루종일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네요
뉴스에서 옆집 아저씨처럼 환하게 웃고 농담도 하시고
평범한 사람처럼 소소한 것에 너무나 행복한 웃음을 짓는
과거의 모습을 보면 더더욱이요 ...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발 그곳에서는 편안하시길..
그곳에서 여기서 못다 이루신 모든 것들..
자그마한 행복이라도 누리보시길..
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레몬주스 2009.05.24 02:49

정치인으로서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국민들 가슴속에 영원히 기록되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입니다.
정말 슬프네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편히 쉬세요...

제발좋은곳으로 2009.05.24 02:52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잊지못할것입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드라마71 2009.05.24 02:57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이젠 마음껏 마당도 거닐 수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길 빕니다.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렇게 고단하셨는지..

이제야 알게된 제가 참 밉습니다.

부디 편안하소서!

검심 2009.05.24 03:31

높은 곳에서 편안하게 .. 누가 보는 사람없는... 높은 곳에서
봉화 마을을 내려다 봐 주세요

검심 2009.05.24 03:33

언론 반성을 해야 합니다. 한 개인의 인격을 존중을 ...
장례식장에서는 인격을 존중을 부탁드립니다.

주니어브 2009.05.24 04:19

이글이 너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어찌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정말 힘들것구나..
맘이 너무아픉니다.

당신은영원한대통령 2009.05.24 04:45

당신은 우리들의 영원한 대통령입니다.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밝은꽃 2009.05.24 05:02

지켜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사랑합니다...그곳에서 편안하세요..

장장군 2009.05.24 06:54

죄송합니다 우리아들과 식탁에서 당신 얘기를 할때가 즐겁고 나이 오십에
존경하는 대상이 었는데 그렇게 떠나신다니 눈물이나요
가족과 함께 민주주의 성지인 봉화마을 찾아 가겠습니다

삶의 생명수 2009.05.24 07:41

언론이 잘못됐네.....
당신들도 권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보라고..
기자들은 인간도 아니야.....
인간의 모습만 하고있는 짐승일 뿐이라고,...

같은바보 2009.05.24 07:53

산다는게 무슨 쇼도 아니구 코메디두 아니구~~~~직업 바꿔라 이 생각 없는 기자 새끼들아~~~니들 안방에 카메라 설치하구 생중계
한번 해보든지....생각 없는 인간들...제발 직업 바꿔라 머리에 든거 없는 기자들은!!

skylove3808 2009.05.24 09:13

뉴스를 볼 때마다 이 곳 홈페이지 와서 응원의 글을 올리리라 생각했습니다만,
결국엔 이제야 이렇게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픉니다..

자유심 2009.05.24 09:19

이 글이 지금에 와서야 너무나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명복을 빕니다. 당신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길과 희망을 가르쳐 주신 분이
니다.

skylove3808 2009.05.24 09:22

제가 일이 있을때 가끔 친정엄마께 저희 집에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곤 합니다.
시골의 마당이 넓은 주택에 사시는 친정엄마께선 몇일을 주무실걸 계획하셨다가도
하루만 주무시고 나면 가고싶어서 아주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종종 저와 다투곤 하셨죠..

문을 열고 나가면 마당을 밟고 흙냄새를 맡고 싶어 하시는데
아파트는 집안에서 간혀 있어야 하니 힘들것을겁니다..
아파트생활을 오래 하신분들은 그 고통을 모르실겁니다.

뒷집지고 마당을 밟으며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싶으셨을겁니다.
그 흙냄새를 맡으며 삶의 희망을 찾고 싶으셨을겁니다..
사자바위를 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욱 찾고 싶으셨을겁니다..
그 작은 자유가 대통령님께 호홉과도 같이 소중한것을겁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것을겁니다..

skylove3808 2009.05.24 09:25

언론을 욕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들도 저 글을 보며 더 초라해지는 자신을 보았을테니까요.

부디 그 곳에선 자연과 함께 편히 쉬시길 기도드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정윤 2009.05.24 10:03

"저의 집 안팎을 둘러주세요" '나는 이글이 왜 여기에 있노했다'
근데 글쓴이가 ..노무현 대통령님입니다... 뉴스를 듣고 노대통령님의 발자취를 느끼고자 여기에 들렀는데..
대통령님이 평소처럼 강하고 굳건하게 잘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이렇게 지내셨구나..죄송합니다..

lBeethi 2009.05.24 10:13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서 죄송함만 앞설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곳으로 가세요.

여름내음 2009.05.24 10:15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대한민국의 아버지...

nozzang!! 2009.05.24 10:23

대통령님은 이렇게 힘들게 사시고 가시는데...
나는 겨우 이까짓걸로 힘들어하다니..
덕분에 저에게 용기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좋은곳 가서 다잇고 편히 쉬세요
명박이는 벌써 욕먹고 있어요 ㅎㅎ

빈이찬이아빠 2009.05.24 11:24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습니까?
이제는 편히 쉬세요..이제는 당신을 건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테니까요..
돌아가시고나서야 당신의 소중한함을 아니깐요..바보같이..

사랑합니다.고맙습니다. 2009.05.24 11:38

얼마나..외로우셨습니까.. 썩어문들어진 정치판에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습니까.. ㅠ ㅠ 마음이 아프고 또 아픕니다... 존경합니
다 사랑합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선 외롭지마시고 국민들의 안녕은 잠시 뒤로하고 마음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ㅠ ㅠ

쭈쭈빵빵 2009.05.24 12:28

이제 와서 돌려드리기가.....
이제 좀 돌려드릴려고 했더니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쭈쭈빵빵 2009.05.24 12:32

노무현 전 대통령 님의 유족들께서는 편히 마음을 놓으시고, 이제 더 이상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곳으로 갔다고 생각하십시오.
언론들 정말 너무 합니다.

김수민 2009.05.24 12:35

이게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으로써가 아니라 사람으로써 길을건고, 꽃밭에 물을 주는것조차 허용되지
않는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아밀리에 2009.05.24 12:38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아파하셨어요?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 보내드려야하는데, 눈물이 계속 앞을가려서
아직은 보내드릴수가 없네요.

myall 2009.05.24 12:45

대한민국정말 싫어 사람인권하나정도는 지켜줘야하는거아니야?언론기자니네도 똑바로쳐봐---뭐하자는건데?니네가 그렇게 심리
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생각안해?어이없다 정말 사람 마음 한번 아프게 하고 니넰 돈받는거?하 어이없다 진짜 언론기자들 생
각없이 기자쓰지만 얼마나 힘들것셋냐고 니네가 한번 생각해봤어?기자쓰려면 제대로 된 기자나 써대---갈잖은 기자쓰면서 사람 마음
에상쳐주지 말고 사람 목숨 그렇게 하찮은 거 아니니까 니네가 그런 기자내서 목숨 끊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니넰 그런 거 생각도 안해봤지?
인간 자격 없어보인다 정말 얼마나 힘들것셋냐고 얼마나 아프섯냐고 아 화난다 정말 대한민국 정말 싫어.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늘따랑 2009.05.24 13:41

삼성공화국인 대한민국이 부끄럽습니다.이건희회장 제대로 소환못하던 검찰이 노전대통령께 무례하게 한 것을 보면 부의 시너라는
생각만이 들 뿐입니다.
부디 이 세상 잊으시고 편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mj0407 2009.05.24 13:51

노무현전대통령님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들 언론기자들 너무나한거 아닙니까?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서
이런 짓을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숨도 못설 정도로 꼭 막히게 하나구요!! 비리 조사한다고 난리 치는데 다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들의 비리나 조사하세요!! 그리고 당신네들이나 잘하세요!!당신네들은 얼마나 잘한다고 그러니까???---

appleh12 2009.05.24 14:03

그동안의 노고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셔서 편히 쉬세요

with 영원히 2009.05.24 14:29

어떻게한시대의한나라의대통령님을언론이...정말생각하면생각할수록
기가막힙니다.. 정말.. 정말안타깝고슬프습니다...영상을볼때마다눈물이
너무흐릅니다...정말죄송합니다 부디그곳에서는 편안하게쉬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맨날머하노 2009.05.24 14:43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한번이라도 진짜 뵈었다면... 평생 한이 될 것 같네요... ㅜㅜ

꿈을넘어 2009.05.24 15:10

조금더..그마음 헤아려드렸어야할것을.. 무지한 국민이라서..죄송합니다.

원스 2009.05.24 15:42

이 글을 좀더 일찍 봤더라면.. 님한테 한줄이나마 마음이 담긴 글을 남길 수 있었을텐데.. 마음씨고 끔고 맑은 바보 노무현... 편안한
길 놔두고 가시밭길을 걸으며 진정 사람 냄새 나고 꿈꿔왔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노무현님...당신을 정말 사랑합니
다... 당신의 그 따뜻한하고 친진난만하며 솔직하고 소탈한 개구쟁이 같았던 모습은 언제나 잊지 않을게요.. 표현하지 못했지만 나의
마음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노무현님..당신을 사랑합니다.

별뿔별꽃 2009.05.24 16:41

얼마나 힘들셨나요..
얼마나 답답하셨나요..
이글을 읽은 내내
그고통과 슬픔이 보이는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진심으로 존경했고..
영원히 존경할꺼예요..
사랑합니다...
부디 좋은 곳에 가시길
기도할게요..

영원히마음속에 2009.05.24 17:24

사실 저는 노무현아저씨의 지지자도 옹호자도 아닙니다..하지만
노무현아저씨가 서거 하셨다는 소식에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느낌이네요...
옹호자도,지지자도 아닌 제가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
분명 노무현 아저씨는 그 어떤 것과도 마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힘들셨나요.....노무현아저씨..
이제 과거의 영상으로만 볼 수 없는 사실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하나요..이제 무엇에 희망을 가져야 하나요...
잘못했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을 잃으니..희망은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이 세상에 함께 존재할 때...
아저씨와 가까운 곳에 있을때...
힘내라는 말 한마디 해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노무현아저씨.....이제는 걱정없고 아픈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슬퍼요슬퍼 2009.05.24 17:26

이젠 마음놓고 뉴스를 볼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찍어빠진 경찰들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죽도록 원망스럽고 밉습니다

슬퍼요슬퍼 2009.05.24 17:27

당신은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합니다
너무 슬프습니다. 그러면 안되었잖아요
오네

FSB 2009.05.24 18:40

맨아래에서 맨위로 올라가신 대단한 분... 정말로 당신 혼자만 불행 당신은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하지만 당신이 대통령
이 되지 않았다면...한줄기 희망조차 없는나라가 되었을겁니다...그래도 한줄기 희망은 있었는데.. 너무나 큰 별을 이제야 알게되었
단 것에...후회감..미칠듯한 후회감.. 왜 그러셨어요..왜 누구처럼힘있는자를 곁에 두지 않았던거예요...왜요..대체 왜요ㅠㅠ.. 당신은
대통령이셨잖아요...어째서 당신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정말 나빠요..언론..아니라잖아요...대통령께서 아니라고
자백하고 돌아가셨잖아요...왜 압박 수사를 한거예요...그렇게 할만큼 큰 잘못을 하셨건가요?그럼요...그럼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다
별받아야겠네요? 왜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절엔 당신들도 노무현대통령 믿고 잘 따랐잖아요..근데 이제와서 왜 그래
요..이제...한국이 대한민국이 부패할 때가 된건가요...아.. 노무현 대통령님..이제..우리곁에 안계시지만..그래도 늦게나마 사랑할꺼
예요..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만 사랑할꺼예요..진정한 대통령이자...서민들을 위한 정치...눈속임없이 서민들만 생
각했던 바보 노무현.. 당신은 대통령이 되기 싫어도 되어야만 했습니다...왜냐면 당신없는 대한민국은 꿈도 꿀 수 없으니까요...이
제..편안히 눈감고..이곳보다 훨씬전 좋은곳에 가서서 꿈었던 꿈...꼭 이루시길 바래요...다음생애에선...평범한 농사꾼 꿈 꼭 이루시
길 바랍니다.....삼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마녀사냥12 2009.05.24 19:53

정부도 문제지만 언론들도 너무했다. 너무 노전대통령님을 곤경에 처넣었어..
아무리 특종을 잡아야한다지만, 다 감정이 있고 더 생각이 깊은게 인간 아니야??
이미 마음이 불편하신데, 더욱더 불편하게 만들고 조여오고...
이명박 측근이 있는 kbs는 이명박에 관해 말한 인터뷰는 다 쪽 빼먹더라.
지금 거의다 이명박 측근이 사장으로 있는 방송국이 많은데, 언론들은 너무나
너무나 잔인하게 했어...
특히 조중동 너희들은 너무나 심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얼마나 힘들셨을까...
어렸을때 대통령을 꿈으로 적는 아이들이 많았지, 노무현대통령님은 대통령을 하시고도 힘없이 당하시고.. 이젠 대통령은 결코 좋
은 자리가 아니야.. 이젠 아이들의
꿈인 대통령은 사라졌어... 이렇게 불행하게 가실 바에야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

eoxxhdfud123 2009.05.24 20:02

대통령님,, 저 세상에서도 대통령님을 그리워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되 그랬어요,, 모두가 지켜보는데,,
언제까지나 저는 대통령님을 원하겠습니다

이젠편히쉬세요 2009.05.24 20:04

정말 마음이 찢기네요.이 세상이 참으로 무섭네요.노무현 대통령님 우린 당신을 믿습니다.이젠 편히 쉬세요.사랑합니다.

지나z 2009.05.24 20:11

외롭게 이른새벽 마지막 가시는길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면 비통할 따름입니다.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앞에서의 수많은 글귀들 백번 공감합니다..부디 좋은 곳에서 편안하시길 기원합니다..노무현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T

사랑합니다12 2009.05.24 20:11

진짜..화가납니다. 국민으로써정말화가나고..노전대통령님을 위해 아무것도할수없다는게 눈물이납니다. 언론,검찰 진짜.....화가 나고어이가없습니다. 그렇게 노전대통령님을 이렇게..만들고나서야 분이풀리십니까. 진짜..너무억울하고화가날수밖에없습니다. 진짜국민들의눈물이..왜흘린건지..역사상국민들이 많은눈물을흘린날이 5.23일것입니다. 진짜 언론.....화가나고어이가없습니다

zoskek 2009.05.24 20:15

정말 감옥이 따로 없네요.어떻게 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십니까?모든 카메라와 언론이 너무 했습니다...얼마나 힘들었으면저라도 그러면 죽을 것 같습니다.어디 사람사는 세상입니까?정말 감옥보다 더 한것 같습니다.커피를 걸으면 카메라 플래시가 반짝이고 대통령님께서 숨이라도 쉴수있었겠습니까?한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얼마나 괴로울지...언론들 정말 너무 했습니다..대통령님인데...아니 한인간으로서요....대통령님 당신의 괴로운심정 이제 아셨습니다.정말 늦게알아서 죄송합니다.이제는 편한곳에서 아주 편히 쉬세요..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duddnjsgksexohdfud 2009.05.24 20:36

마음이아파요..얼마나 세상이 힘들게 하길래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요...검찰과기자들너무 하네요. 많이 힘드셨지요. 그곳에선 부디 행복하세요...오늘봉화마을에 비가 많이 온게 대통령님의 눈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제 그곳에서 힘들지않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도드람주유소 2009.05.24 21:08

너무 많은 눈물이 납니다..노무현대통령님 사랑합니다.고맙습니다. 그동안 국민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그마음 영원히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죄송합니다.대통령님

눈물계속난다 2009.05.24 21:18

대통령님도 대통령님이전에 사람이신데.. 인간의 자유도 못누리게 괴롭힐수 있는지...그동안 집에서만 계시느라 얼마나 답답하셨는지요..
이젠 하늘에서 훨훨 편히 자유롭게 쉬십시오...

노대통령님짱 2009.05.24 21:23

부디 저 세상가셔서 편히 가고 싶은 곳 다니시면서 편히 쉬십시오. 당신을 잊지않습니다.

이서운 2009.05.24 21:47

나쁜 사람들..

I love you 노무현 2009.05.24 21:48

부디 하늘나라 가서서는 편하게 쉬세요.....
너무 안타깝네요.....

개밥그릇 2009.05.24 22:08

곱씹어 읽을수록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변호사로 사셨으면 지금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셨을텐데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서 T T 사셨을때는 그렇게 북아데더니 찬양 일색으로 변한 언론들과 정치인들이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미노담 2009.05.24 22:29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내 집에서 숨쉬고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심경을 썼는데..얼마나 힘드셨을까..너무도 양심적이고 청렴한 사람을..너무나 안타깝다. 정말 큰 별이 진듯합니다.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 같은 자신의 신념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지닌 대통령이 있을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미노담 2009.05.24 22:34

어제 오늘 노무현 대통령님의 뉴스를 보고 또 보고..새벽녘에도 정규방송에 나오지 않아 mbn을 통해서 대통령님의 성장기부터 인 권변호사로 재직중 대통령님의 뜻을 반대하고 나선 일들, 탄핵까지..참 힘들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올바른 신념 하나로 해오신 일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해맑게 웃으시는 모습..봉화마을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모습..이런 맑은분을..꼭 가시게 해야했는지..현정권도 문제지만 우리 국민이 무관심해서 보내드린것 같아 더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미노담 2009.05.24 22:38

얼마나 청렴하고, 마음이 바르셨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세지는것조차도 미안해하고, 주변 지인들이 도덕적이지 못한일에 당신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가실수 밖에 없는지..
왜 좀더 낫도록 못하셨는지..다른 사람들처럼 조금만 비양심적이고 낫이 조금만 더 두꺼웠으면 이렇게 가지지 않았을것을..

미노담 2009.05.24 22:42

왜 위에 사람들처럼 진작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 글을 올리실때 이 홈페이지에 와서 한번이라도 글을 읽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관심의 댓글 하나 달지 못했을까요?
시간을 어제 아침으로 되돌릴수만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살아계시는 시간이라면 어떻게든 힘 내시라는 글 올리셨을것입니다. 위에 글을 보니 현 정치에 언론에..얼마나 상처를 입으셨으면, 그저 큰것을 바라보는것도 아닌 평범하게 살아가려는 이 분을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옳고 그른건 알겁니다.

미노담 2009.05.24 22:46

박연차 이사람 괴로워서 죽고 싶다고 했죠? 죽고 싶으면 노무현 대통령 살려놓고 죽으세요. 살려내라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의 10분의 1만이라도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면..분반는다면..지금 국민들이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는 마음을 헤아리겠죠. 노무현 대통령님! 정말 살아가는게 무섭습니다. 이처럼 맑은분이 가시고..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두 아이의 아버지로..

입관할때 따님이신 정연씨의 "안돼, 아빠"란 울부짖음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정말 보내지 않을수만 있다면..지금껏 살아오면서 평생 이렇게 애타게 소원을 원해본적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다시 살릴수만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님을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꼭 살려주세요!!!다신 울지 않을테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제발입니다.

미노맘 2009.05.24 22:49

가슴아파하면서 보면 시간들 글을 통해 느낄수 있었습니다.

강금원씨를 비롯해 노무현 대통령님을 아끼셨던 분들 장례식에 참석하게 해서 마지막 가시는 길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노무현 대통령님 어찌될 좋아요. 안타까워서 가슴이 미어지네요.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겪으셨을 고통을 생각하니..

▶◀사랑합니다 2009.05.24 23:22

정말정말정말 너무나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부디 맘고생마시고 편히 쉬세요. 존경합니다. 당신은 나의 평생의 롤모델입니다.사랑합니다.

한결이1 2009.05.24 23:54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결이1 2009.05.24 23:54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용두사미 2009.05.25 00:28

지금도 많은 조문객이 빈소를 방문중에 있습니다, 어른이며 노약자며 모두가 하나같이 애통한 마음으로 깊어가는 이밤에도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미래를 이끌 많은 어린학생들이 보며 느끼며 성장할 것 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할지 모든 어른들이 생각과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하늘에 계신 "바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마음 편이 가실것 같습니다. 강금원,노건평,최신일,박연차 ...등등 모든 분들이 앞으로 힘들어 하며 살아가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도 마음이 아프네요!'죄는 죄일 뿐' 죽음은 아닌것 같습니다.부디 관련 모든분들 힘내시고 고인의 뜻을 저버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두목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 만이 고인에 힘들때 지켜주지 못한 서로의 마음이라 짧은 생각들기에 오늘 이밤도 불타는 마음 가누지 못하며 울분을 표현합니다.

슬픈별 2009.05.25 00:30

이럴수가...

비보를 듣고 이제서야 뒤늦게 달려와 이 글을 읽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만큼 슬픔이 몰려와 이를 내내 일손을 놓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당을 걸으시던 그 사진이 이런연유로 찍힌건지도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님을 후원한다 믿었던 전 도대체 그동안 무얼하고 있었던 걸까요.

님이 스스로를 버린 일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원망스럽지만 마지막 가시는길에 남겨두신 대로 원망하지 않으려 노력해보렵니다.

2009년 5월 23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었다 믿었던 한 정의로운 젊은이었던 저 또한, 대한민국을 버리려 합니다.

뽕검 2009.05.25 01:06

할말이 없습니다. 이나라가 싫네요, 짜증이 나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진아 2009.05.25 01:14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예전에 대통령 선거할때 안산에 오셔서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해주실때 전 고등학생이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악수하고 좋아라 한게 엇그제 같은데 이제 그 따스한 손, 인자한 미소 다시는 볼수없다는게 너무나 슬픉니다. 하늘나라에 가서서 더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justgo 2009.05.25 01:53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죄송합니다

사랑의메아리 2009.05.25 02:00

좋은세상 만들어려고 애쓰신분에게 시정잡배로 만들어버린 언론, 검찰, 일부 국민들 마음의 앙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석주 2009.05.25 02:10

마음이 너무 아픉니다...먹고 사는일에 지쳐 여기 올 생각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진실된 2009.05.25 02:31

이제야 여길 오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고..

언론들은 정말 너무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바른 정보만을 보여줘야 돼는 언론이 .. 최소한의 국민의 알권리는 존중해 줘야 돼지 않습니까??

진실된 2009.05.25 02:33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통하고 화가 나네요..

노력해봐요 2009.05.25 02:41

노대통령께서 절대로 자살할 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약하고 어리석은 분은 아니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종일 생각해보니,, 약하고 어리석었기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언제나 소중히 여겼던 가치와 신념이 의심받고 그것을 외치는 것이 손가락질 받는다고 느껴졌을 때, 무엇보다 당신이 휴식을 취하던 공간(등산이라든지 집안뜰을 거니는 것들..)이 그런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방해받을 때, 그 때에 당신은 어리석지도, 약하지도 않았겠죠. 오히려 절망하고 분노하고 허탈하셨겠죠.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당신이 남겨놓은 흔적들을 뒤돌아 본 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끝을 내더라도 그것이 당신이 행복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셨겠죠. 어리석다고 여기지 않으렵니다. 사람은 모두 행복하고 싶은 법. 이 세상, 못한 사람들의 괴롭힘에서 떠나는 것이 건디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여겨져서 선택한 것이었다면 저는 당신의 선택마저, 당신의 지지자를 모두 옹리고마는 당신의 선택마저 존중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투쟁의 삶을 살아온 당신을 생각하며, 저도 투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끝내 스스로 세상을 떠난 당신때문에, 많이 두렵지만 그래도 두렵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불나비 사랑 2009.05.25 03:06

이제 대한민국은 저의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도 없을겁니다.
이것도 나라입니까?우리는 영웅을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띠로리 2009.05.25 03:11

보고싶다

김미정s2 2009.05.25 05:45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다 노무현대통령님의 편입니다. 영원한 대통령님.. 하늘나라에가서 부디 편하게 쉬세요.. TT TT

함배기 2009.05.25 06:11

대통령님의 인간으로서의 그 고통.....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이곳을 떠나 편히 잠 드소서

조각조각 2009.05.25 06:51

그곳은 평안하신가요?
죄송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셨을줄은 몰랐네요.
언플에 휘둘려 다른 마음 품었던 제가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부디 행복하세요.
제발 행복해주세요..

그리고....남은 우리들....
굽어보시어 지켜주세요..

먼 훗날
다시 보았을때..
행복한 모습 뵈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늘색도넛 2009.05.25 07:12

이제서야 읽었습니다.
침통하네요.
언론이 정말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이 숨 질수 없게 했습니다.
언론이 사람들을 조정하네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내놓아야할 언론이.
3류 파파라치가 되어 당신을 감시했군요.

노무현 대통령님 그곳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설까지 2009.05.25 09:30

'큰별이 지네요.
사랑하는 대통령님~

사랑깨비 2009.05.25 09:33

얼마나 숨이 막히셨을꼬
이글을 보면서
더욱 분노와 좌절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우린 무엇을 할수있을까요.
무지하고
무심했던 한 가정주부 이렇게 가슴이먹먹해
그저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님이시여
부디,그곳에선 평안하소서....

abosook 2009.05.25 10:15

정치! 정치인! ----야비,부정,반목,질시,온갖 나쁜단어들만 떠오르는현실을 지우고저 부단히도 노력하셨던분께서 결국 그 압박에
눌려... 다섯손가락안에는 존경하고 닮고싶은 님이었는데 마음속에 깊이세겨 존경합니다. 권양숙여사님 힘내세요..

dododo 2009.05.25 11:54

이제서야 당신의 괴로움을. 고통을 알았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여 눈물만 나옵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억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안타꿀 2009.05.25 11:55

그 당시 이 글을 보고 왜 이런 글을 올렸나 사실 원망했었습니다. 안그래도 항상 가볍게 말을 한다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터
라. 검찰의 수사중이라서 좀 자제를 해 주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을 다시 보니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왜 좀
더 일찍 이런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을까 후회만 듭니다. 부끄럽습니다.

정겨운창구 2009.05.25 12:11

검찰과 행정부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행정부가 원망스럽네요 TT TT TT

병화 2009.05.25 12:22

TV만보면눈물이나고 가슴이막막합니다. 일을 할수가없습니다. 언젠가한번아이들과함께찾아가봐줬으면...

커피유유츄마 2009.05.25 12:28

떠나보내신 후에야 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당신은 아버지 같은 대통령이셨어요..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 잊지않겠습니다 2009.05.25 12:53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글을 읽으면서 쓰면서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정말 속이 얼마나 상하셨을지..
떠나신 후에 사진과 글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었다는 걸..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해 주시는 분이었는데..
되돌릴 수 있다면 돌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거겠죠..
조금만 더 견뎌주시지 그러셨어요.....
국민들은 대통령님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떠난 후에 소중한 것을 깨닫는다고하죠..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라일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솔직히 평소엔 별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려니 저러려니 했는데.....
이번게기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속이 상하네요.....
국민들은 당신의 편입니다.
외로워하지마시고 편히 쉬세요.....
▶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꽃님S 2009.05.25 13:06

어떤 심정이셨을지 뼈속 깊은 곳까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아무런 힘이 되어드리지 못한거 잘못했습니다
나의 조국의 아버지

호수안 2009.05.25 15:08

☆☆☆☆☆☆ 늦게 '봉화마을'을 찾은 죄스러움을 고합니다.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마저 박탈당한 고문이 뼈속깊이 전해져서
숨막히는 고통을 느끼는 글을 쓰며 회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제 나이 동갑인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영화는 물거품입니다.
님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화마을' 얘기로 다가오지만,
현실은 비전을 갖고 창의적 삶을 구상하는 인간을 경계합니다.
얼마나 참담한 고독을 느꼈습니까?

님의 삶은 한 인간으로서의 虛,實을 보여준 완성이었습니니다.
있는 그대로의 고유적인 존재성을 인식하지 못한 아둔함을
개탄하며 울 때가 울 것입니다.

후세에 더 많은 일화로 세인의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주는 보응이며, 이 나라의 님과 같은 기백을 지닌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 애국할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디, 참담했던 이승의 흔적들에 여념치 마시고 편히 잠드소서.

진실이 있는 그 곳 2009.05.25 15:13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땅에서
힘없는 우리들의 편에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시느라
너무 애 쓰셨습니다..
그리고 ... 감사합니다

과연 하늘은 보고나 있는 것인지?
그 곳에 가셨으니 ... 보고 계신지?

이 어리석은 국민들의 슬픔을... T.T
죄송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한국의자존심 2009.05.25 15:58

하늘까지 기자들이 가진않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메어집니다.
대통령님 그곳에선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내사랑초코 2009.05.25 16:05

나쁜 인간들 같으니라고 정말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셨을까 TTT

~!!
너무 힘드셨겠어요 이젠 그런 사람들 없는 곳에서 정말 편안히 쉬세요..
지켜드리지못해 너무나 죄송합니다... ㅠ ㅠ

진정한대통령님 2009.05.25 16:37

휴우..마음이아픕니다.. 정말죄송합니다. ㅠ ㅠ 이렇게고통스러우신줄도모르고 온몸이 저절로 숙여집니다.. 정말죄송합니다.

새바람이 오는 그늘 2009.05.25 17:08

이 사이트도, 노대통령님이 이렇게 호소하며 글을 남긴것도 전.. 전 이제서야 봤습니다. 그런데..그런데 너무 늦었습니다..이렇게 힘들어 하고 계셨는지 저런 몰랐습니다.이렇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하염없이 눈물만 나오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국민들 어떻게 하죠.. 이렇게 보내드려서 어떻게 하죠.. ㅠ. ㅠ

오랜사랑 2009.05.25 18:06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기자들이 정말 원망스럽네요
입장바꿔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텐데
너무 화가납니다

당신께 2009.05.25 18:08

울어도, 울어도, 울어도... 또 눈물이 나네요. 한구절 한구절이 참 아프고 서럽습니다. 자유롭게,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시길...

stagesu 2009.05.25 18:30

몰랐습니다 아니 신경도 안쓰고 살았습니다. 권력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깨달게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ㅠ ㅠ 2009.05.25 18:43

대통령님.....죄송해요.....죄송해요.....정말.....사랑합니다.....존경합니다....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forgov133 2009.05.25 20:05

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 죄송합니다..

노무현화팅97 2009.05.25 20:31

왜 떠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태어나는 세상에서는 항상 행복하세요

번드피닉스 2009.05.25 21:19

이게 바로 창살 없는 감옥을 의미하는군요... 하늘나라에선 편하게 자유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amkko123 2009.05.25 22:19

이렇게 힘드셨군요
죄송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
하지만,
당신이 그리던 사람사는 세상은 꼭 만들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닦아놓으셨잖아요....

진영시민 2009.05.25 22:33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이젠 듣지도 보지도 못할...
정말 죄송합니다...
이젠 넓은 뜰을 가지셨네요.. 아무도 당신을 모습을 담지 못하게...

카이루루 2009.05.25 23:10

너무나 죄송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요...이제 머리숙여 진심으로.....부디 하늘나라에서 건강하시구요 항상 행복하세요...

지켜드리지못해죄송 2009.05.25 23:17

올라다불산을이제는내려다보시겠군요.....그곳에서는자유로우셨으면좋겠습니다.

우리에 내일은? 2009.05.25 23:32

5년 동안 골치아프게 일한사람 편안하게 쉬겠다는데, 그만좀 괴롭히세요
당신네들 하는 직업이 남괴롭히는 것이랍니까?
카메라 기자분들 모두 모두 봉화마을 떠나 주세요!!

기자분들!! 당신네 집에 수백명의 기자가 주야로 대기해서 감시한다면 당신들은 어떻겠어요??
요즘 언론들은 한결같이 노통 흠집잡아서 대서특필해서 대박터트릴 요량으로 기회를 엿보는 모양인데
밥먹고 그렇게 할일 없으면 비닐봉투 들고서 시내곳곳에 쓰레기 줍으러 다니세요..
그게 대한민국에 애국하는 길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구요.

한마디만 더 할까요.
노통님은 당신들에게 할말이 없습니다. 당신들과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구요?
당신들은 노통님 얼굴만 보고서
당신들 때문에 노통께서 피곤한데...
얼굴이 피곤해 보이면...괴로워 잠못자는 노통이라고 평가하고..
얼굴이라도 조금 부어 보이면...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철면피로 살이졌다고 평가를 하잖소..

여기다 노통께서 한마디만 건넸다면 무슨말을 덧붙쳐서 흠집낼수 있을까? 궁리 하겠지요
당신들 직업의식이 그렇다면 더이상 무슨 할말이 필요하겠나만은.....

더 큰 문제는 이런것이외다.
당신들의 한마디 언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몇몇국민들이 멍청한 언론에 덩달아 춤을추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밥줄이 정권에 꼬~옥 붙어야만 식구가 살아갈수있는 처지라면...
노동당장옆에서 지키세요..기자분들 식구까지 노숙자로 바뀌는것을 원하지 않기때문이요.
다만 진실만 말해 주세요..

우리는 먹고살기 위해서 노통을 씹으러 여기 지키고 있노라고.....!!!!

.....

.....
이글을 저가 여기 올리고...3주일이 지나서...님은 영영 떠나셨습니다..

九曲肝腸(구곡간장) 2009.05.25 23:43

완전.....기자들.... 너무해..

불판 2009.05.26 00:17

조, 중, 동 그들도 그렇게 불리는 것이 싫을겁니다.

자연으로돌아가자 2009.05.26 00:37

우리의 노쟁님~ 미안하지만 감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을 멀리서라도 지켜 주세요... 무섭습니다.

UN사무총장 2009.05.26 00:53

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국민으로서.....
얼마나 피로우셨을까..... 외로우셨을까.....

헤이즐넷향 2009.05.26 02:20

그고통을 감히 짐작도 못하지만 얼마나 힘드셨을지 가슴이 아픕니다.

노간지♡ 2009.05.26 08:23

죄송합니다..

힘찬내일 2009.05.26 08:42

죄송하고,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녹차향 2009.05.26 10:04

눈물만 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희망설계 2009.05.26 10:29

오랜만에 이글을 다시보게 되었는데..
다른 느낌입니다.....
전에 보았을때와는 다른.....
그 고통의 크기가 이제야 실감나게 느껴지는...
손자도 마음대로 못보고...
안 그래도 주위사람한테 미안한데....
과연 기자들의 이러한 행위로 하여금
우리가 알수 있는게 알 권리라 생각하는 건가요....
이 뿐만 아니라 모든 공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게...
뻔뻔한 사람들 같네요.....ㅠ.ㅠ

꽃돼지83 2009.05.26 12:06

얼마나 힘드셨을지.....ㅠㅠ

해뜨는아침 2009.05.26 12:36

조선 중앙 동아 독극물 쓰레기집단 아주 나쁘다

그레이스 구 2009.05.26 13:20

아..정말 화가납니다. 기자들..당신들 정말 할말을 잃게 만드네어..

노쟁쟁 2009.05.26 13:54

완전 파파라치에 스토커놈들...정말 정치인보다 언론인이 더 짜증납니다 최소한의 인권도 개무시하는 나쁜놈들!!얼마나 비참하고
힘드셨을까...

무심심 2009.05.26 14:46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자유롭게 훨훨 평안히 사시기를...

조이나무 2009.05.26 15:01

너무 너무 힘들었을거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계시죠? 이제 편히 쉬세요..

애랑 2009.05.26 15:57

얼마나..얼마나 힘드셨을까요.....

SUN§ 2009.05.26 16:24

뉴스에서는 나오지 '못한게' 아니라 '않았다'고 말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봉화택입니다 2009.05.26 16:33

뉴스를 보면서 그 부분을 아주 많이 걱정했더랬습니다.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자들이 꼭!그 댓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고야 말겠습니다.더 이상은 고통없는곳에서 편히 쉬세요.님을 위해 아무것도 헤드리지 못했던 사람이라 더 죄스럽네
요. 잘 가세요~

harukee 2009.05.26 18:15

양심있는 대한민국 기자는 진정 아무도 없을겁니다.오로지 특종 잡기에 여념이 없지요..이것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도덕성이
있건 없건 재산만 많이 모으면 대통령도 되는 세상이니깐요..물질만능주의에 병들어 있는 대한민국..고인의 뜻을 기려 진정 양심과
원칙으로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겠습니다..정치인 여러분!!제발 만들어 주세요...힘 없는 국민들은 그저 이렇게 외칠 뿐 입니다..

제자리걸음 2009.05.26 19:00

이제 와서 헤드릴거라곤...눈물로 아버지 보내드리는일뿐이라
너무너무죄송해요.. 편안하시고 편안하시고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일째 눈물이 멈추질않고 앞을가리네요 아버지...
당신의 딸로써, 당신의나라 자녀로써 더열심히 살아보렵니다
고생많으셨어요 아버지..이제조금 무거운짐 내려두셔요

대한독립 2009.05.26 20:54

하루하루 먹고살기에 급급해 당신의 글을 이제야 읽어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너무 가슴이 메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헤드리지 못해서...

사랑별이 2009.05.26 21:16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에 가장 나쁜놈들은 현 정권이고 그리고 까끄지 검찰과 언론매체 아닌가요 모두가 반성을해야 해야 합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을 떠나 한사람의 인격으로서 자살이라는 선택을 해야 했던 힘든 시간과 환경을 만든 모든 사람들과 기관들 반성
해야합니다 전 잘 모르지만 저라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별이가득 2009.05.26 21:37

아..얼마나 답답하셨을까...T 죄송합니다..정말...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해요...이젠..자유롭게 다니시면서 마음껏 사랑하는 이들의
곁에 머물러주세요...T

kysnara 2009.05.26 22:24

지켜드리지못해 죄송해요...그래서 이렇게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ㅠㅠ 정말 힘드셨지요... 힘드셨지요..ㅠㅠ 아!!!!!!!!!!!!!!!!!!!!이 세
상이 싫습니다..정말..ㅠ

까칠봉선 2009.05.26 22:50

퇴임후얼마나힘들게사셨어요?정말이지창살없는감옥이따로없네요..나쁜새끼들..날좋은날엔마깁구경도하고싶고비오는날엔비내
리는것도보고싶었을텐데..제가더죄송스럽네요

lovenomu 2009.05.26 23:55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나오지않아서 죄송합니다
힘든 고통이었지요
슬프고 슬롭니다

제이준맘 2009.05.27 00:14

우리들의 대통령님께서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실줄이야....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서....그래서,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많이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心眼 2009.05.27 00:17

떠나신 다음에야 글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모든 하늘이 안뜰이 되셨으니 편히 쉬시길 기원합니다....

딸기곤주 2009.05.27 00:47

이곳에 몇번 와보기는 했지만..
오늘..
이렇게 가입하네요..
미안한 마음이 드는건 왜일까요...
떠난 이들은 말이 없지요..
3년전.. 친정 어머니께서 가실때도 그러하셨는데..
일을 할 수도.. 당신의 웃는 얼굴을 차마 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사는 이곳엔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비가 오는듯 하더니.. 우박이 내렸습니다..
30년을 살았지만.. 말로만 들던 우박을.. 그것도 여름을 코앞에 둔 이 시기에..
손톱만한 우박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당신의 아픔이..
빗물을 얼릴만큼.. 그만큼.. 큰 것이었나봅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살고 싶으셨습니까..
얼마나 살고 싶으셨습니까..
얼마나...

곰슬곰슬 2009.05.27 02:16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살고 싶으셨지요?
끝까지 살아내고 싶으셨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서운 일이 더 남은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지켜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thdud 2009.05.27 03:11

정말로 대통령님 힘드셨을게 눈에 보이네요..
이제와 사람들이 그마음을 다 알아서 그동안
힘드셨죠.. 차마 살았을때는 마당도 산도
맘껏돌아다니지도 보지도 못하셨을 곳에서
이젠 정말 환한 하늘에서 살아생전 못이루신 꿈들
모두이루십시오. 고인의명복을됩니다..

복이아버지 2009.05.27 03:34

앞으로는 행복하세요!!이답에 같이 얼굴 맞대고 봅시다!^^

흐린 하늘 2009.05.27 09:03

죄송하다는 말도 부족하네요. 그래도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부디....부디 그 곳에서는 모든 걸 놓으시고 편하게 쉬십시오.
제발...제발.... 부탁드립니다.

못난아이 2009.05.27 10:06

정말 가서서야 이렇게 글올리고 찾아뵙는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거하신후에 지금껏 눈물 안흘려본 날이 없습니다.
보고싶습니다.

~영이 2009.05.27 10:10

죄송합니다.... 넘늦었습니다...우리대통령님...죄송함마음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끝까지 국민들 걱정하시며...힘든고초를
털어놓지도 못하시고...그곳에서는 편히 계세요

예원맘 2009.05.27 10:19

빨갱이것 설쳐대는 XX이. 그 빨갱이 밑 닭아주며 마녀사냥중인 기자들. 당신들에게 저주를 내리겠습니다.
아... 이 분을 사하지 못해 미치겠습니다.

코스모스 1 2009.05.27 10:23

허탈함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봉하 깊은샘 2009.05.27 11:08

책임기간중 조금은 낯설은 너의 행동과 어투에 거부감을 느꼈고 비난도 하였지만..지나고 보니 너에 대한 무지가 뼈에 사무치네
요!너무 순박한 인간임을 모르고 그저 알팍한 정치인의 술수로만 간과한 어리석음을 통탄합니다..죄송함을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너가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 했으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부디 영면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럭포유 2009.05.27 12:07

기득권의 틀을 깨고 없는자, 약자를 위한 정치, 기본과 원칙을 위해서는 거침없이 강자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이시대의 양심...삼
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머리숙여 애도합니다...당신은 영원한 우리들의 대통령이고...하늘은 진정 죄를 받아야할 죄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저는 제 자손대대로 헌정권과 그 수괴들의 무법천지 만행을 교육하고 고인의 뜻을 같이 받들 것입니다...당신은 영원한
우리들의 대통령입니다..

lmysh 2009.05.27 12:58

너무 늦어버렸네요..
진작부터 '사람사는 세상'을 와 보고싶었는데..
진작 왔더라면 대통령님 계신 봉하마을을 찾아가봤을텐데..
되짚어 읽어보니 더욱 슬퍼지네요..
대통령님 때문에 우는일이 많아졌습니다.
제발 되돌릴수있다면.. 그럴수만있다면...
너무나 좋은분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잃어서
슬픔이 쉽사리 가시질 않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편히 계세요

1234ays 2009.05.27 13:28

이글을 읽으며 아내와 함께 많이 울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신데 세상에 이럴수는 없습니다. 부디 저세상에서는 푸른 하늘을 마음
껏 나는 새처럼 자유스럽고 편히 계세요....

큐티깡 2009.05.27 16:29

죄송합니다...당신의 자유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뒤늦게 당신의 고통을 알아서...
죄송합니다...당신을 놓아주지 못해서...

yohanil 2009.05.27 16:39

이글을 읽고 너무 너무 죄송하고 누구한사람 지켜드리지못해서죄드립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편히쉬세요~~

8장미8 2009.05.27 20:50

이렇게 자유도 없이 사셨다니.. ㅠㅠ
그 고통 조금이나마 헤아려 줍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켜드려야 했던것을...

홀로살기 2009.05.27 21:08

기자,..니들이나,파과라치나,,이개새기들,, 다죽여버려라, 아이고...얼반어라,,

pray 2009.05.27 23:31

그 때 받으셨던 그 고통.. 영원히 잊지 않고 다 갚아드릴게요.. 너무 늦게 알아 죄송합니다... ㅌㅌ

씨앗키움 2009.05.27 23:49

ㅠ.ㅠ

노 태현(광산) 2009.05.28 01:17

작은 소망도 허락 안하는 조중동 그리고 언론...

지금이라도 과연 언론과 기자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되돌아 보고 반성하고 바른 길을 갔으면 합니다

tshj312 2009.05.28 01:18

제목만 보고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목만 봤을 때는 정말 정부나 검찰에서 조사를 명분으로 집안뜰을 가져갔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님의 자유를 뺏어갔던 거였군요... 생전에 집에 있어도 감옥에 있는 것 같다고 하신 말씀이 불평이 아닌 정말 절박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알권리를 명분으로 방만까지 도촬을 한답니까... 그런 알권리는 그 어느 누구도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특종을 잡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뼈악한 기자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이런분을 저희가 지켜내드리기에는 너무나 나약하다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고 더 슬플 뿐입니다.

사실 전 친사모도 아니고 친 민주당도 아닌 정말 정치에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한 대인을 잃고서야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제 자신이 밉습니다. 님은 가셨지만 전 지금부터라도 님의 뜻을 기리고 영원히 존경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도 슬픕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다른 한편으로 행복합니다. 모르고 지냈던 전 대통령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었고 님이 생전에 쓰신 글을 보고 사진을 보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페르소나02 2009.05.28 01:41

정말...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저웃지요 2009.05.28 01:53

열받아 미치겠습니다.

돌든 머리들이 정신나간 망언이나 해대는 이 나라...

하지만 한가닥 희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만드시 올겁니다.
당신이 바라던 세상

만약 최후에 홀로 남겨진다면 하더라도...
죽어도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처럼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간 노무현들은 이 땅 여기저기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순간 마지막으로 다짐한다.
당신처럼 영원히 젊을 것을

더이상 희망고문이 없기를...
그리고 이 사회의 진정한 정의구현이 이루어지기를...

poiloi 2009.05.28 02:00

정말 큰그릇이었나봅니다...
돌아가시고나니 알겠습니다...이토록 큰분이셨다는 것을...

뚜요니 2009.05.28 02:24

보호해드려야 할 것을.. 지켜드려야 할 것을.. 이제와 이렇게 후회하는 저를 용서하세요... 근데... 대통령님, 아니 노짱님. 정말 보내드리기 너무 싫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chs1007 2009.05.28 03:06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주혁 2009.05.28 03:07

감옥같은 생활.. 많이 힘들었지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게 얼마나 괴로운건지..
이글만 봐도 많이 힘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희망을 가지고 싸우시지.. 왜 바보같은 짓을 하셨나요..ㅠㅠ
마음이 아픕니다.
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영원히 우리들 기억속의 기억되실 겁니다..
다시 볼 수 없기에 마음이 아프네요..
시간만 되돌리 수 있다면..
꿈이겠지요 이계..
어서 나오세요~~~

다마사슴 2009.05.28 03:12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부탁한다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미어지네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울보a 2009.05.28 06:05

죄송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요..
저희가 단 한분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가슴속에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행복하고픈일봉 2009.05.28 09:05

이 아주 작은.. 소박한.. 바램조차..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니어멈 2009.05.28 10:00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의 국민이어서 행복했습니다.
미처 못 알아봐서 정말 죄송하고,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운 사람.. 2009.05.28 10:50

이 글을 읽으니 더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님의 작은 안뜰하나 지켜드리지 못해 더 죄송합니다.
당신의 국민이어서 행복했습니다.

우주호수 2009.05.28 11:48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아름없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십시오

오월의향기 2009.05.28 12:29

어찌 이럴수가 !!! 어찌이럴수가 !!!

yellow7 2009.05.28 13:05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습니다...

많이 힘드셨을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마음이 아파오네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흰꽃이.. 2009.05.28 14:08

마음밖에는 드릴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그립습니다..

그를 추모하며.. 2009.05.28 14:37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계실때 지키지 못한 저희가 죄송합니다...금방이라도 내일 영결식장에서 밝게 웃는 모습으로 일어나오실 것 같은데...그러시면 안되나요? 그냥 다 꿈이었다고...그러면 안될까요...너무 마음이 아프네요...가족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사랑합니다...

꿈꾸는강 2009.05.28 14:49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리 울어봐도 대통령님의 사진을 보고 또 봐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젠 다시 볼수 없다는 사실만이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tshj312 2009.05.28 15:14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것만 같아 미치겠다..... 급박했음을 이 글로만으로 빠져리게 느끼겠는데 현실은 어떠했을까.....왜 우리들은 사람이 이렇게 절규하고 손을 내미는데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걸까... 이럴때마다 내 삶의 회의를 느낀다.....

sulabal 2009.05.28 15:44

이토록모진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 우리는 뭘 할것일까.. 나는 무엇을 했나..
육신이 찢기는 고통보다도 아팠을 이 모진 시간을 우리 대통령님 홀로 견디셨다니..
이젠 평화롭고따뜻한 곳에서 화단에 꽃도 가꾸시고 들녘에 벼도 심으시고 행복하세요

날개잃은물새 2009.05.28 16:15

우리들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불편함도 감당하셔야 했네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서로의 마음이 나와 한가지로 한결같지 못함이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 노짱님이 가진 세상에서는 더이상 24시간 숨어지켜보는 카메라도 없을테지요. 성가시도록 요란법석을 떠는 기자들도 없을테지요. 부디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메산골뜨락 2009.05.28 16:41

감옥아닌 감옥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늘나라에선 아무 고통없이 편안하게 쉬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을여자 2009.05.28 16:51

벽차오르는 서러움..
잠간 왔다가는 인생 소풍을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겁고 버거운 짐꾼으로 살다가셨으니...~
어찌 온나라 온국민이 영정앞에 울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가시는길 돌아보지 마시고...~고이~고이~잠드소서...~

바보야생화 2009.05.28 16:58

대통령님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힘드셨을까요. 이제 훨훨 자유로운 곳으로 가셨나이까

우리드리 2009.05.28 17:01

스스로 새로운 안뜰을 만드셨나요. 집에서 마당도 나갈 수 없으셨다니.
이제 가신 그곳은 아무도 감시하지 못하지요?
대신 가족과 사랑하는 지인들과도 헤어 지실 수 밖에 없으셨지만
그래도 그곳에서나마 자유롭게 남은 사람들 걱정 잊으시고 조금은 편안해 지셨으면 합니다.
남은 사람의 몫은 남은 사람들에게 주세요. 이미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부끄러운놈 2009.05.28 17:38

40인생 동안 내 자신이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 좋은 직장에 팀장이라는 직책을 받고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요즘은 노대통령의 걸어온 인생과 대통령 시절에 하실려고 했던 노력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멍청했는가를 새삼 느끼고 있다. 눈에 눈물을 참느냐고 눈동자가 아플정도이다. 잠도 오지 않는다. 분하고 화가 자꾸만 난다. 10년을 넘게 살아온 아내도 매일 울기만 한다.

40이란 나이를 먹고도 진실과 거짓을 구분 못했던 내가 과연 불혹의 나이를 먹은 것인가.

과거 많은 사람을 죽이고, 몇천억을 먹은 분들은 가족 한번 소환하지 않았던 검찰이 노대통령님의 머누리까지 소환했다는 것이 너무나 분하다. 이땅은 진정 정의가 살아 있는가, 이땅의 기자들은 조금의 양심이 있는가 자신들의 과오를 시인하는 기사가 없는 것이 또한 나를 분하게 한다. 정말 나의 두말들이 살아가는 동안 노대통령과 같은 분을 만날수 있을까?. 정말 답답하고 이 글을 보면 더욱 화가 난다. 개인의 기본적인 사생활마저 무시 당했던 노대통령님의 심정이 조금이나마 보이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눈물이 난다. 난 노사모도 아니고 어는 정당도 지지하지 않지만 노대통령님과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위안을 삼아야겠다. 이 사이트를 오늘에야 들어왔다는 것이 또한번 죄스럽고 내자신이 짜증 난다.

대한민국의민주주의 2009.05.28 18:15

가슴이 미어집니다. 큰 꿈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진정 사랑하셨던 분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꿈의 가치가 인간의 욕심앞에 사소한 종이쪽지처럼 평가절하되고, 왜곡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좀 더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더이상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고, 뭔가 더 큰 뜻을 위해 내리신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봄은 옵니다. 다시금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의견을 개진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소리높일 수 있는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세요. 투명한 마음이 다른사람에게 전달 될 수 있는 따뜻한 세상에서 평온하게 머무시길 바랍니다.

gkssk 2009.05.28 18:20

이렇게 감시하던 기자분들이 왜 권양숙여사님이 검찰소환이 있을 예정이었던 23일에는 아무도 없었나요??? 현장에 가보니 부영이 바뀌는 서저와도 아주 가깝고 길에서도 아주 잘 보이던데요...조금 이해가 안되고 목격자가 없다는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그시간이면 시골은 아주 바쁘게 움직일 시간이고.....사람이 떨어졌다면 그소리가 동네에서도 잘 들을수 있을만큼 가깝던데...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진심으로 소탈하신 대통령님이시라서 너무 좋았고....우리아이들이 크면 보여주려고 취입식도 녹화했었는데.....슬프네요.

닭고과 2009.05.28 19:02

죄송합니다. 기독교로부터 우리 노정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측근이나 가족 뿐 아니라 알마당 안뜰까지도..... 너무 늦었지만 눈을 지켜드리지 못한 자괴감이 듭니다. 강자에게 한없이 당당하신 모습이 잘 지켜내리라 생각했는데 주위의 핏박이 못내 힘드시어 가지다니요. 뱃의 독같은 저 땅바기 와 압적존재인 친일 매국보수언론과 성나라당. 그리고 감탄고토해버린 민주당. 색깔의 선명성을 보이며 물어뜯던 민노당 모두 저주합니다.님의 뜻이 아닌줄 알지만 분노가 치밀어 건딜수가 없습니다. 부디 편안하게 영면하세요.

기억합니다.. 2009.05.28 19:41

모든것이 감옥같은 세상. 참으로 괴롭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글을 읽으니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1000rin 2009.05.28 19:44

하루하루 벌어먹느라고 ...어느순간 직장도 못가는 인생으로 살다보니 진정한 대통령님을 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늘나라에선 정말 편한 삶 사시길 바라웁고 단지 아주 조금은 우리 민족이 저 친일/친미/기회주의자/지네들밖에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아주 조금만이라도 지켜주세요

aapplee 2009.05.28 20:36

노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찍던 그 많은 기자들이 권양숙여사 소환일이었던 23일 전 대통령의 등산에 수행비서 한명과 나가는 모습을 하나도 찍지 못하고, 투신자살 현장을 담은 사진 한장 없다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며칠 전에는 집 뒤쪽 화단에 나갔다가 사진에 찍혔습니다. 잠시 나갔다가 찍힌 것입니다. 24시간 들여다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

라고 말하셨는데... 이제서야 이 글을 읽어 봤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음모설이라는 것을 읽어서 그런지, 아무리봐도 노대통령의 그날아침을 기자들이 몰랐다는것이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단비* 2009.05.28 20:53

이 글이 대통령님의 마지막 글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저러 옵니다. 이렇게 몸부림 하시다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가신 것 생각하니 미칠 것 같네요

사랑합니다, 2009.05.28 21:33

너무 보고싶어요 노무현 대통령님..

smtogether 2009.05.28 22:46

대통령님 왜 저희들은 미처 알지못했을까요 .. 늘 지나고나서야 후회하고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걸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의 이나라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참 많이 애통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늘에선 부디 평안하시고.. 훨훨 날 수있는 자유.. 하늘에서나마 마음껏 누리십시오.. 또 한번 어리석은 국민으로서 사죄드립니다. 대통령님.... 잊지않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시옵소서.

강현맘 2009.05.29 02:33

눈물이 납니다...눈물을 훔치느라 눈이 따갑습니다...그냥 눈물이 납니다...

강걸었어 2009.05.29 03:24

죄송합니다. 진작에 들어왔어야 했는데..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봉하에서 서울로 평안히 즐겁게 오세요. 오시는 모습 뵈고 있겠습니다.

몽(夢)이 2009.05.29 03:26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죽음을 단순히 "슬픈"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조리한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여야할 일로 여기고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셨던 생전 마지막 생활을 생각하니 제어할 사이도 없이 눈물이 떨어집니다...

애통하다 2009.05.29 10:34

이젠 더 큰 자유를 얻으셨네요..부디 좋은 곳으로 가셔서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몸은 떨어지고 별수 없겠지만 정신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그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모랑이 2009.05.29 13:50

잊지 않을게요...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7615 2009.05.29 14:04

처음에 돌아가셨다고 보도됐을때 꿈인줄 알았는데...
대통령님 사진보고..정말 많이 울었습니다..ㅠ
이제 다시 돌아오실수 없는 먼길을 떠나셨지만...
잊지않겠습니다.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운사람그대여 2009.05.29 15:08

아아...
이제 아름답게.
단 한방울의 눈물도 조금의 고통도 없이.
자유롭게 우리를 지켜봐주시옵소서.

울곧이 2009.05.29 20:10

이렇게 힘드실때 나는 무엇을 했나.....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얼마나 힘이드셨을까요.

기억합니다.. 2009.05.29 20:48

그런자유도 없으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도 늘 인자한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런 노무현 대통령님을
세상은 기억할것입니다..

또우 2009.05.29 21:42

속절없이 눈물만 나오네요,,,
언론이 너무 무서워요,,,
당신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지 못했것이 너무도 죄송스럽네요,,
저희 무지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비록 되돌아올수 없는 길로 가셨지만
제 마음속엔 영원히 자리하고 있을꺼예요...
사랑합니다...

토리[이정희] 2009.05.29 21:44

죄송합니다..정말..이렇게 고통이 심한줄 몰랐습니다.그저 강하신 분이니 잘 이겨내시겠지 했습니다.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죄송합니다.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바보대통령님사랑합니다 2009.05.29 21:51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 동안 너무 힘드셨을 그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만 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꼬갱이 2009.05.29 22:33

이제서야 가 입을 하게 되었네요..너무 늦은건 아니죠? 항상 대통령님을 보면서 참으로 순박하고 인간적이며 정말 사람냄새가 난다고 생각했었습니다..대통령님의 5년임기기간동안 정말 행복했었고,말은 하지못했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언제나 자신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고개숙이던 대통령님.. 이제서야 이 못난 국민은 흐르는 눈물과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쥐고 떨리는손으로 컴퓨터에 앉아 정말..이제서야 그마음 다 헤아리고 이제서야..대통령님을 불러봅니다..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왜 이제서야 알게되었는지 정말 큰 죄를 짓는것 같네요..열심히살겠습니다..그마음 다헤아려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할게요.. 부디 그곳에선 슬픔,아픔,고통 다잊으시고 편안히 안녕하가세요.. 사랑합니다..노무현 대통령님..

염소똥동글 2009.05.29 23:24

휴.. 가슴이 아파네요..

참된의지 2009.05.29 23:48

이 글을 적으셨을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죄송합니다.

차차나아지겠지 2009.05.30 00:07

글 하나하나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저 눈물만 나오네요..
사생활조차 누릴수 없는 이사회에 너무나 화가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만큼 언론의 힘이 이렇게 센줄 몰랐네요..
국민들의 알권리보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아닌 대한민국의 한 국민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짱 2009.05.30 00:22

미안해요.. 힘내시지..ㅠㅠ
그래도 정말 사랑해요.. 진실로..

bask in the sun 2009.05.30 00:28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괴로우셨을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무능력하고 한심한 ... 저를 원망하게 되네요... 당신의 마음이... 느껴져.. 너무.. 너무.. 괴롭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ㅠ

gobara 2009.05.30 00:37

너무하는군요...이러니 없는 우울증도 생기겠네요...T.T

노대통령님보고싶어요 2009.05.30 00:57

정말미안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괴로우셨을지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힘이되어 어찌할수가없었습니다 넘어옵니다 ,,T.T님 죄송합니다.

해바라기엄마 2009.05.30 01:20

파파라치같은 언론들 참으로 배려할 줄 모르는 족속들이인 것 같네요. 대통령님 이제 자유를 만끽하시고 계신거죠?

한울맘 2009.05.30 02:26

저는 이제서야 이 홈페이지를 알았습니다.. 이 글들을 읽으면서 대통령님이 얼마나 힘이 드셨을지 너무 마음이아픕니다..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힘드셨을 대통령님 생각하면 지켜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버리천사 2009.05.30 03:17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너무 죄송합니다..T

원령 2009.05.30 08:52

글 하나하나.. 읽을때마다 가슴이 너무 미어집니다..

Red 천 2009.05.30 09:56

참으로 무서운세상이군요..가슴이 아파 견딜수 없습니다.. 부디 편하고 좋은세상으로 가세요...사랑합니다...그리고 죄송합니다...

재발요 2009.05.30 10:01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나라가 격정됩니다. 무지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별후애a 2009.05.30 10:09

옆집 할아버지 같은 분이었는데.. 현실을 부정하고 싶네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T

원칙과신의 2009.05.30 11:11

이 절박한 글을 읽고도 그들은 계속했다는 건데... 많이 힘드셨을 대통령님 생각하니 가슴이 저며오네요. 어제는 가슴이 아파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럴진데 대통령님 마음은... 저희들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금별 2009.05.30 11:27

언론에 호소하고...한 인간으로서 부탁을 하는 님의 모습을 떠올리니.. 마음이 저립니다. 다시 읽고 또 읽어도 ...

행복 사랑 2009.05.30 12:16

정말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너무 답답하셨죠 가끔 힘들면 하늘도 보고 먼산도 바라보면 좀 마음이 누그러지는데 감옥아닌 감옥생활을 하셨네요 이제는 그 높은곳에서 세상많은것 자유롭게 바라보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joa 2009.05.30 12:39

세상에.....몰랐습니다. 이 정도였는 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대통령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네요..... 아직은..... 오늘서야 처음 이 곳을 찾아 회원가입하고 마주치는 '작성자 노무현' 가슴이 넘 아픕니다. 좀 더 일찍 왜 오지 않았을까요..저는...

정의가 강물처럼 2009.05.30 14:34

노무현 대통령님 얼마나 힘이 드셨나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제와서 2009.05.30 14:35

나쁜사람들아버지 죄송해요

또하대디 2009.05.30 15:39

제 마음속 영원한 대통령이십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마보대통령사랑해요 2009.05.30 15:43

아버지 사랑해요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꽃향 2009.05.30 15:43

특종 !!! 에만... 급급한 기자들아~~ 반성해라...~~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가슴에 와 닿았지두 않니~~~ 죄송하지두 않니~~ 나쁜것들...!!!! 진실 된것만 말해라... 너네 생각은.. 너네 머리에서 끝내라..앞서지 말란 말이다.기자들이여.. 중립에서 서서 글을써라... 기자들두 편가르니~~한마디로 보기 싫다...너네들이 쓰는 기사들 보기 싫단 말이다.!! 믿음이 없단 말이다.!! 도저히.. 열이 채여서..존칭 이 안나오네요.. 정말.. 인정이 메마른 사람들..!!!!

나비언나 2009.05.30 16:26

이렇게 회원가입하여 사이트에 글을 적는건 정말 처음입니다. "원망하지 마라"라는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 는 말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을 비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셨고 최고이셨습니다. 후회라는 단어역시 제가 싫어하는 단어중 하나이지만 진작에 와서 따뜻한 글귀로 힘이되어드리지 못해 후회스럽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vnfRhctkfd 2009.05.30 18:12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가 아니고 조중동저것들이 알권리겠죠? TTTT 지금부터라도 봉하마을 주민들은 조중동못들어오게 제지를 해야 할것같네요

노란오리 2009.05.30 21:10

기자 너희들은 뭐하는것들이냐? 기자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

제발 권력에 빌붙어사는 빌레가 되지 마시고, 정의와 국민을위해 목숨걸수있는,국민이 존경할수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당신들을 존경할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 맘 간절합니다. 제발,정신차리세요.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지만 한번뿐인 인생 떳떳하게 사십시오.

노는바다 2009.05.30 21:13

대통령님... 지금은 편하신가요? 아픔도 고통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대통령님은 밝고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시지요?

삶과 죽음이 하나인데... 저희는 대통령님의 그 온화한 미소를 볼 수 없어.. 너무 애통하고 절통합니다.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부디 먼 곳에서...길을 잃은 이땅의 민주주의와 불쌍한 국민들을 돌봐주세요....

나중훈 2009.05.30 21:15

너무 안타깝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기자들... 저희가 언론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빛과암실 2009.05.30 22:33

불쌍한 자들의 염치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고통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모든 시름 놓으시고 정겨운 고향산천 즐겁게 산책하시길 기원합니다

엘로우데이 2009.05.30 22:33

집에 갇혀지내봐서 않지만..... 안뜰을 돌려달라는의미가 더더욱 울컥하게 만드네요 같은심정 이해해도 우리가 직접 구해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인터넷으로만 말을 해도 얼마나 답답하섯겠어요

소국민 2009.05.31 00:45

죄인두 아니고 어떻게 일개 나라의 대통령님한테 이러한 무례함을 범하면서까지 괴롭혔는지...너무 가슴아프고 격분됩니다...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울때 댓글하나 달아드리지 못하게 너무 죄스럽고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마지막 인사 2009.05.31 07:45

얼마나 갑갑하셨을까요? 말로 안통하는 그들에게 휘둘러 쫓아내는 과단성도 보여 주셨어야 했는데..너무나 착해서서 그대로 당하고 계셨었군요. 일개 펠부보다도 못한 생활, 님이여. 가슴 아픉니다. 그렇게 심적으로도 옥죄이며 살게 만들었었군요.

노랑풍선들 2009.05.31 10:54

정말 얼마나 괴롭고 갑갑한 마음이었을까... 가슴한켠이 찢어져서 옵니다...

김군입니다 2009.05.31 14:03

하늘을 마음껏 바라보세요.. 바람을 마음껏 느껴세요.. 꽃 나무들을 마음껏 바라보세요.. 그리고 편히 쉬세요..

봄햇살 2009.05.31 18:42

얼마나 힘들셨을까요? 우린 그때 왜 헤아리지 못했을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켜 드리지 못해 정말 지송해요 ^^

울애기^^ 2009.05.31 19:15

그고통은 당신만이 알겠지요...감히 그고통을 회상해봅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우셨음 모든걸 놓으시고 이승을 떠나셨을지... 떠나시면서도 모든걸 자신의 부족함으로 돌리신 노무현대통령님은~ 온국민들의 영원한 대통령이셨습니다. 영원히 가슴속에 자리할겁니다... 최고의 대통령님의 죽음앞에 눈물밖에 드릴수 없다는 현실이 절 절망케,한스럽게 하네요...대통령님 보이시나요? 온국민이 당신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당신은 진정 저희들의 대통령이시고...절대 혼자가 아니시란걸...기억해주세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당신의 국민이었단게 자랑스럽습니다...

산골에별빛 2009.05.31 20:38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지...ㅠ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셨으면 저희들을 버리셨겠습니까? 지켜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후손들에게 당신에뜻을 꼭 알리겠습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노쟁해바라기*** 2009.05.31 21:22

검찰청 들어가실 때 그 슬픈 눈빛.. 금방이라도 왈각 눈물을 쏟을것 같은 사슴같은 눈빛을 잊을수가 없어요. 당신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였던 게 너무나 밋고 싫습니다. 그 바위위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아픔..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수가 없겠지요? 우리에겐 당신만이 영원한 대통령입니다.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이루고자 한 그 뜻을..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초록물꼬기 2009.05.31 22:41

죄송합니다..이제서야 이 글을 보네요..떠나버린후에야 이렇게 그리워하며 울고있네요.. 다 끝나버렸는데...

하늘잠자리 2009.05.31 23:49

왜 미안해하지 마라고 하셨습니까? 왜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고 하셨습니까? 적어도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한 우리 자신들만큼은 미안해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당신을 이렇게 찾는 내가 송구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제가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만큼은 기억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유명희 2009.06.01 00:42

그동안 울지 않으리라 꼭 참았던 눈물을..ㅠㅠ 얼마나 힘들셨을까...

포커케이스 2009.06.01 00:58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존경사랑희망 2009.06.01 02:15

죽일놈의 언론 뭐가 그렇게 궁금하다고 남 사생활까지 일일이 지켜보고있어
말로만 뻔드러한 기자지 스토커랑 다를게 뭐있어

장미빛사랑 2009.06.01 09:23

최소한에 양심도 없는 언론인들 ~ 정말 말이 기자지~ 스토커가 따로 없다는걸 여길 보며 새삼 느끼네요. 서글픈 나라!

재진예진엄마 2009.06.01 11:49

정말 몰랐습니다..이런 고통이 대통령님께 있었다니..ㅠㅠ정말 바보같이 몰랐습니다..

사랑또이별 2009.06.01 12:02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안솔수가 없었습니다
방송을 보며 소심한 저는 혼자 울고 또 울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조심스레 이곳을 방문하고..
진실을 하나씩 보았을때.. 저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너무 화나고 슬프고 또 얼마나 억울하셨을까..답답하셨을까
외로우셨을까..
겉많은 저를.. 저처럼 겉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세요
무엇이 진실인지.. 무서워서 그냥 문구멍으로 조금씩 엿보는..
진실을 알고도 혼자서 울고 마는 우리를 용서하세요
하지만 이것만은 말할수있어요
당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않겠습니다
이정부도, 정치하는 분들도, 조중동도.. 절대잊지않고
훗날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대통령님

따약 2009.06.01 13:09

자아꼬 ,,눈물만~ 정말로 ,,미치겠습니다
왜이리 ,,노무현대통령님 이름 석자만 들어도 ,,
가슴이 메어지고 ,,눈물만 나는지 ,,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푸른님 2009.06.01 16:06

당신께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것을
몰랐습니다.
너무...죄송합니다.
가슴이 멎해옵니다.

criss66 2009.06.01 16:44

지금에야 이글을 보게되는 저는 제 자신이 참으로 한심하고 어리석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눈물이 납니다. 앞으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않겠습니다. 두눈을 부릅뜨고 두귀는 활짝열어놓고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저희들 가슴속에
계실겁니다.

susun 2009.06.01 18:21

이렇게까지 괴롭혔으니...

ohmygoodness 2009.06.01 20:22

그들은 천벌을 받을겁니다...지금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래요...집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될거 같네요...전화도 그렇고....누군가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힘드시더라 몇년만이라도 그렇게 사세요..정말 그리고 적은 가까이에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힘내세요...

정다운사람 2009.06.01 22:53

슬프다.. 보고싶어요.....

성터 2009.06.02 03:16

살아 생전 노짱님의 괴롭히는 대선 출마 연설을 다시 보며 또 눈물 흘립니다.
3년반 남았습니다. 잊지 맙시다.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38354>

노란마음으로 2009.06.02 10:21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는 제가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

해피모아 2009.06.02 12:22

얼마나 힘들셨을까..... 휴...

재연세유 2009.06.02 12:41

마음이 마음이 아픕니다. 어찌할까요 소리치고 아파해도 어찌되었건..님은 이미 없는것을요..... 계속되는 거짓언론...정말입니까? 스스로 끊으신게 맞습니까? 무서운 생각이 자꾸만 힘이듭니다..

가슴속에남은사람 2009.06.02 13:29

역사는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열집사람 2009.06.02 15:41

칼보다 무서운게 글이라고 하더군요.하지만 세월을 거슬러 우겨봐도 꼭 그만큼의 잔인한 배아리로 그들에게 돌아갈겁니다.민심도 소리쳐야 하늘에 닿고 빗물도 멈추지 말아야 바다에 이를 터이니 걱정의 시대에 침묵하지말시다.

갈바다 2009.06.02 20:42

얼마나 얼마나 힘들시고 외로웠을까요?? 지켜드리지 못한 소심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부끄럽습니다...

조계산 2009.06.02 22:46

노무현대통령님.사랑합니다.. 오늘봉화마을 갔다온 한사람으로써 정말죄송합니다...아니나 다를까 사방천지에 카메라설치에 국민에 한사람으로 쳐다보니자증이 절로나네요...그동안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는지 마음아프고 눈물이날지경이였습니다..부디모든걸다 잊으시고 편하게떠나세요... 저세상에서는 웃는일만있으세요... 보고싶습니다...권양숙여사님 힘내십시오...대통령님을 생각해서라도 꼭 힘내셔야합니다..사랑합니다 여사님 건강하세요.....

동그라미523 2009.06.03 09:30

평소엔 이리도 많았던 언론사 기자등 !!카메라 맨들이 사건 당일엔 왜!! 없었답니까 누군가 다~ 돌려보냈답니까 안뜰을 돌려달라고 부부가 하소연 할정도인데 왜!!그날은 5월 23일은 왜!! 개미새끼 한마리도 없었답니까 5월 23일은 권양숙 영부인 소환날인데 취재진들이 밤을새며 취재하러 자리를 지켰을건데~~왜 !!한사람도 없었을까 왜!!

하얀비둘기 2009.06.03 11:36

역사가 진실을 말하겠지만...
언제까지 기다리나요???
진실을 깃잡는 교활하기 그지없는세력들을
비난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희민씨 2009.06.03 15:06

언론도 기자들도..다 개나라당 사람?..
나쁜것들 인간으로 살 마지막 기회도 주지않고!!

진짜 사 사랑합니다 2009.06.03 16:47

우리는 살아야합니다 제2의 노무현이 나오면 잘알 알아보겠습니다 슬퍼서 죽겠는데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 있는 똥강아지들 지들은 똥지털이 얇해도 더러운것들 찌꺼버음 모두들 힘냅시다 핫~~~팅

마로니 2009.06.03 19:30

당신께서 명칭한 우리를 위해 그리도 아픈 날을 살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의 희망이고 삶이였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어찌다가 그 먼길을 가셨습니까 어찌다가 다시는 뿔수 없는 길을 가셨습니까 어찌다가 우리곶을 떠나셨습니까 어찌다가 우리는 당신을 뿔수없습니까 당신께서 안계신 지금 우리는 당신이 그림습니다 당신을 그리워 합니다

그리움의자리 2009.06.03 20:07

기자들이 참 미워요...얼마나 힘들셨으면..

숨사탕a 2009.06.03 23:02

노짱님 애타는호소에 눈물이남니다혹~
얼마나 맘아프셨을지...
여사님 기운내세요

다랭이골 2009.06.04 01:01

얼마나답답하셨나요.
그렇다고 이렇게가시다니.ㅠ.ㅠ.
어떤말을해도 무슨소용있겠습니까.그냥보고플때면 들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편안하시고요.앞으론 안부만물겠습니다.제가슴엔아직도 살아계시니까요.

이전도사 2009.06.04 03:45

또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이아침에 바보 노짱님의 뜻 이루어 내겠습니다.

만대산 2009.06.04 05:35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사는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한 나라에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이기에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받았을 고통을 생각해 보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반성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보고싶습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참을수가 없어서 2009.06.04 09:28

20번도 더 읽은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실 때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내 마음이 다 갑갑한데...

임을 때마다 울컥 합니다.아무힘없는 나조차도 자유가 있는데 대통령까지 오르셨던님께서 그런 자유를 갈망하시며 괴로워하셨다니...
그저 이세상이 맑기만 합니다.

동규엄마 2009.06.04 09:40

이렇게 혼자 힘들어하셨는데... 우린 뭘하고 있었던 걸까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지켜드려야 했는데 우리가 나서서 안뜰을 찾아드려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은경 2009.06.04 14:17

대통령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그러셨어요..ㅠㅠ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참..더러운세상..하늘에서 평안하세요..존경합니다.

구카 2009.06.04 15:36

대통령님!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말씀까지하셨나하는 생각이 드는군요.최소한의 사생활마저 강탈당하셨던 그래서 더 힘드셨던 우리대통령님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증오해요..이제 마음껏 거닐고 마음껏 산봉우리도 쳐다보시면서 편안히 쉬세요...사랑합니다

jbc3s 2009.06.04 21:37

홈페이지에 남겨진 글들은... 금방이라고 답변 써주실것같은 착각을 들게한다.
글을 남기실때의 심정이 느껴져서일까? 가슴이 너무 아프고 답답하다...

인간의삶 2009.06.04 23:44

햇빛조차 마음놓고 볼수없게 만든 언론들. 정말 뭉네요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픕니다.
사랑합니다. 나의대통령님...

zerolove 2009.06.05 14:40

그러셨구나.. 그렇게 힘드셨구나.. 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을 억누르는 고통이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국민 가슴에 영원히 살아계실 당신~~ 이제는 편안히 쉬시기를... 당신의 미소가 참 그리운 날입니다.

존경합니다 지도자노무현 2009.06.05 17:04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말 너무 마음 아픕니다.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넉넉한마음 2009.06.06 09:13

523전에도 많은 분들이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셨네요 그분들이 부럽고 고맙네요 아 그래요 우리에게는 봉하가있고 마음이있네요

임세아 2009.06.06 23:04

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의 대통령님... 권력에 어찌지 못하는 이런 세상 너무 싫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영원하길.....바랍니다.
나중에서야 지금에서야... 대통령님을 그리워 하는 나쁜 국민이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지민도원맘 2009.06.07 03:02

지켜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

영원히당신만을 2009.06.07 09:21

노무현대통령님..얼마나 힘드셨어요.
그저 지켜보기만 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
맘 아파서 미치겠어요.....흑흑흑흑흑흑..죄송해요.

지리산물개 2009.06.07 14:22

아직도 가슴이 아프네요...사랑합니다..영원히..

서리꽃 2009.06.08 00:55

목이 메인다.오죽했으면 안뜰을 돌려달라고 호소를 했을까

찬삼이 2009.06.08 20:46

보고싶습니다...사랑합니다..편히쉬세요~

이성학 거사 2009.06.08 22:30

눈물이 나오려하는군요.
가슴이 아프네요.
영면하소서.
사랑하는 대통령님

으_-홈 2009.06.09 00:24

ㅠ_ㅠ 너무 보고싶어요..... 그립습니다.....

신비 2009.06.09 10:09

오늘도...대통령님을 가슴에 묻고 통곡합니다...ㅠ.ㅠ
대통령님이 안 계신 세상은 숨쉬기가 힘드네요.
그립습니다..사랑합니다..

노란색비행기 2009.06.09 12:11

조선일보에 댓글 올렸다가 1분도 안되서 삭제된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앞마당인데도 반대 댓글이 삭제되지 않은채로 있네요
국민과 진정한 소통을 원하셨던 국민의 대통령님

이제 이땅에 정치가 섞여가는것을 두눈뜨고 바라보지만 않겠습니다.
미약하고 작은 목소리나마 보태서 고귀한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기쁨이가요 2009.06.09 19:19

안뜰뿐만 아니라 침실까지 악의 그림자가 드리우고~~숨막히는시간들 얼마나괴로우셨나요? 꼭 몇배 벌받을겁니다

기적이었어 2009.06.10 18:20

기자들 너무 지독하다. 삼성 이진희한테는 꿈쩍도 못하는것들이,
착한 노통한테만 하이에나 같이 달려들고 TTTT

사랑해YOU 2009.06.11 13:40

노무현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종로5가향기나무 2009.06.11 20:12

노무현대통령은 이미 공개재판에 여론재판이 되었고,구속했었다. 누가 왜 했을까?못된 우월주의 보복.,

dudqjem 2009.06.13 01:09

보고싶어요.....

바보할배국민 2009.06.13 04:24

짜라시 조중동들...너네도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물려와 동물원 동물 구경하듯 지키고 있으면 좋겠는가..?? 월급받고 할일없이 죽
치고 앉아서 사람 피말리는 더러운 언론들!! 니들이 세상을 비추는 창문 역할을 하는 언론인이라 할 수 있는가?? 정말 부끄럽다... 추
악한 언론!!

거제마다 2009.06.13 22:45

그리고도 아직 정신 못차린 언론이 있다면
우리들이 나서야지요.

누링이 2009.06.16 14:27

너무 그리워요 흑

가을여자 2009.06.16 22:50

대통령님..글에 댓글을 달때만해도..~~
희망은 있었는데..~~지금은 눈물이 앞을가려서..~~
가슴이 미어집니다..그리워서 어쩍니까..

자꾸만 생각나서 어쩍니까..
하지만..모습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함께하십 믿고 싶습니다..

보고파서 울때면 달래주실거죠..?
언제나 봉하마을에 게릴라라 믿고..~
멀고먼..거리지만 날잡아서 일년에 한번쯤..~

마음이야 매일 가고 싶습니다..아시지요.. 제마음.
존경합니다..사랑합니다..~
사람사는 세상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쉬세요..~~

똥돼지 성은 2009.06.17 10:54

고통 속에서도 말씀이 왜그렇게 점잖으십니까 막말이도 좀 하셨으면 마음이조금 덜아플것을

맨날머하노 2009.06.18 13:43

가슴이 아프네요.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제 마음속의 대통령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보할배국민 2009.06.21 05:14

저렇게 고통스러워하실 때 돌이라도 들고 카메라 든 기자들에게 달려들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한이 맺힌다. 그저 아
주 사소한 자유만을 원했던 그분에게 우리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센스모아 2009.06.23 00:57

참담한 마음으로 쓰셨을 이글을 읽을때는 마음이찢어질듯 아팠는데.. 지금 이글이 왜 이렇게 소중한지요. 노짱!! 보고싶습니다, 너
무 보고싶습니다.

기주엄마 2009.06.24 16:37

너희높이仁의 심정을아느냐
감옥살이시켜 말려죽이려 작정한 인간들아
너희들죽을때는어뜨할지 무척 기대되는군아
노짱님 조금만 참으시지요 세월이 말해주는것인데
하도 속이서스러워 외쳐봅니다 "왜좀더 참으시지않으셨어요." 라고 또 부질없는
눈물만흘립니다

나름노사모 2009.06.26 21:37

세상을 향해 외치신 그분의 외로움을 보고도 마음이 아프고 분한 생각에 이를 갈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내가 노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다만,노짱! 힘내세요~ 하면 미약하나마 그 말을 들으시고 힘을 내실 분으로 모두들 그리 생각했나봐요.
그래서 더 죄송합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리고 저러 내 삶안에서 도대체 노짱이 뭐기에 이리도 힘들게 이별을 하게 하실까... 하
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노짱님의 이 글을 접했을 때만 해도 분노만 했었지
누구든 나서서 언론과 현 정부로부터 노짱님을 보호하지 못했던 것이
마음아프고 서럽고 후회스럽게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과
이리 힘없이 당하시는 것을 볼 수 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저 슬프고 답답할 뿐입니다.
저들처럼 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나 대신 누가 악역을 해주기를 바라고 기다렸었는지....우린 왜 그렇게 아무런 힘을 쓰
지 못하고 당신을 그리 보내야만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가치있고 귀한 것인지 후손에게 당당히 자랑스럽게 물려주겠습니다.

좋은 세상에서 평안히 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당신이 한없이 그롭습니다.

세수하면효리 2009.06.27 12:07

오죽드셨으면 이런글까지 올리셨을까...정말 정치적타살이라고밖에 생각되지않네요...이제 편하게 쉬세요..나의 대통령님..

답시기 2009.06.27 12:43

맺글 보다가 오늘도 울다가 갑니다.

죄송합니다사랑합니다 2009.07.01 12:00

보고싶습니다..
벌써 7월입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니 더 많이..

보고싶습니다..

평안하신지요..

가을여자 2009.07.02 18:41

대통령님..좋은세상에 가셨는지요..~
우리의 가슴은 대통령님 보고파..~미치겠습니다..

이..힘하고 악한세상..~굶어살피시여..~
아름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바꿔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
49제..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서럽고 보고파 집니다..
돌아오실수 없으시다면..~~제 마음을 접어야 겠지요..

눈물로.. 눈물로..~배웅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극락왕생..하시옵소서..~

지민도원맘 2009.07.04 05:12

또 읽어도 또 읽어도 읽을때마다 눈물이나네요...
정말 그곳에선 꼭 행복하세요....

skdmlrhgid 2009.07.04 16:28

이 글을 보니 맘이 더 아파오네요..유럽 모두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지 못하는 우리 언론들.....너무
나도 잔인합니다. 이런 세상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일까요? 갈수록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 가는 거 같아 맘이 아픕니다.

꿈꿈녀 2009.07.05 18:38

언론들 아주 진을 치고 있었네요 무리한 검찰수사 무분별한 언론기사에 대한 비판적 기사는 한 줄 쓸 줄도 모르는 빈껍데기 언론
!!!!

집안까지 찍어가면서 5.23 토요일에는 뭐했나요? 어쨌서 아무것도 안 찍어냈나요
그날 영부인님 소환일이었다면서요! 언론사 기자들!!! 참회하세요 나같은 양심선언이라도 했겠어요 !!
대통령의 절규가 느껴지네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피로우셨을까요?
검찰이 언론이 대통령을 모욕준 것이 틀림없어요!
너무나 화가 납니다

한공이 2009.07.06 11:57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많은 기자들이 왜, 어쨌서 그날은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럴 수가 있나요?
진실을 알고 있는 기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날 기자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는지를요.

49제가 코앞이네요. TT TT

영원한당신의국민 2009.07.07 18:57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그마음. 이제서야 알게되어.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부디. 평안하세요..

해피바이러스 2009.07.09 09:23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조금만 우리들이 더 맘 써 주었야하는데.. 우리가 죄인입니다. ㅠ

바른 마음 2009.07.09 18:53

사랑하는 이 나라와 국민을 두고 가는 마지막 밤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것 같아요 ... 잊지 않습니다! 영원히 ~~~

해님 2009.07.10 13:04

죄송해요..죄송해요..당신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부디 좋은곳에서 편히 잠드세요. ㅠ ㅠ

소심만만 2009.07.10 22:18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꼭 보여드릴게요~

해트르 2009.07.11 10:21

무슨 말을 할까요,저도 말을 하고 싶은데 언론에 도전하면 벌이벌 꼬트리를 잡아서 물고 늘어 날려고하고 정말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언론은 권력에 똥개들이라서

동석맘 2009.07.12 12:03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힘들이 너무 오래가셔서 마음에 상처를 너무 많이 갖고 가셔서 가슴이 아픕니다

irreplaceable 2009.07.13 02:04

대통령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산본맘 2009.07.21 02:38

.....
이럴수 없는것인데...전직 대통령을 너무도 함부로 대하다니..이건 아니잖아..기자들 당신들은 무슨 특종에 매달라하고 있는가..조용히 사시게 했으면 이런 상황도 안오잖아..립다 기자들이

whitep 2009.07.21 22:02

노무현 대통령님 정말 너무나너무 죄송합니다.. 그땐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ㅠ ㅠ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힘들어하셨는데 그냥 외면했어요 ㅠ ㅠ 정말 제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그땐 언론에 흘러나온 기사만 보고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가 진짠 줄 알았어요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ㅠ ㅠ 이렇게 정직하시고 도덕적이신 분을 잠시나마 믿어주지 못한 점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ㅏ ㅏ

돌산 2009.07.22 00:58

가서 힘이 되들여야 될것인데 이 못난놈은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 하였는데 ...정말 우리는 바보인가 봅니다

다시바람이 2009.07.22 23:29

얼마나 힘들셨을까....

뒤늦게 알게된 바보는
그저 당신이 그리워 읍니다 ㅠ ㅠ

술가실 2009.08.01 15:05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이들을 두고서 어찌어찌 그면길을 홀로 외로이 가시었는지요.천천히 가시지요.조금만더 견디시고 우매한 우리들에게 길도 열어주시고 가지지그러셨어요.항상 가슴에 있는 나의 대통령님!많이사랑합니다.

문백 2009.08.06 14:51

영원한 나의 대통령님.... 이제와서 미안하다는 글 밖에는 전할길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보고싶습니다..

로또야 2009.08.13 14:38

가끔 꿈에서라도 만나주세요~

님에게 가고싶지만 까만밤을 하얗게 지세우며 걱정하시고 안타까워하신
님의 그분들을 지키고자 투표하려 하기에...잠시 더 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님의초심을 더 알리고 가겠습니다...

Qkfroddl 2009.08.17 11:03

엄치가 있어야지 대우 남상국 사장은 당신 말 한 마디에 죽었는데 죄인임을 망각하고 딸을 돌려 달라구?

09년5월23일 2009.08.23 02:41

남상국사장은 본인부담 본인이과서 양심에 찢려 자살하셨지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죽이셨습니까? 옳은말 한마디 건내신것뿐이고. 거기에 남상국사장은 세상의 질타를 못버티실꺼같으니 자살하신거지요. 말 조심하세요.우기고 편든다고 죄인이 죄인이아닌것처럼 되는건 아닙니다. 고작 그땐발언 하실려고 회원가입하셔서 그런 글을 적으셨나요? 대단하십니다.여기는 당신같은 사람들이 오는곳이 아니니. 예의를 갖추세요.

꽃보다잔디 2009.08.26 16:39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오네요!그 절규를 피터지는 절규를 왜 못들었을까요! 님은 항상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다라고 믿어터렸습니다.잘 헤쳐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터했습니다.너무나 죄만스럽습니다.이 죄스러운 마음은 평생의 업으로 삼겠습니다.부디 노여워마시고 가끔씩 꿈에서나마 뵈고 싶습니다.

그곳으로 2009.09.17 00:20

얼마나 힘들셨으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그땐 대통령님이 얼마나 힘들셨을지 왜 생각지도 못했을까요..

전 정말 바보였나 봅니다..

대통령님 이제 자유로운 곳에서 편히 쉬세요..

지금 읽어도 가슴이 먹먹해오네요....

노창각하 2010.08.31 23:34

저라도 자살했습니다...요요 가택연금 거의 위리안치 형벌이네요 이쯤되면 기자가 아니라 감시원이죠~카레마는 cctv 일거수 일투족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던 기자의 감시망에 놓여서 철저히 감시 당하는데 누구든 견디겠습니까,,대단하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고졸이라는 확력으로 대통령님 되시고 변호사 되시고 당신 뿐입니다, 그래도 국민을 서민을 민중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

노창각하 2010.08.31 23:35

이건 만행입니다, 자살을 유도하고 생명을 경시하도록 이명박 쥐놈이 유도한겁니다...

한국교과서 2010.09.06 19:01

노무현대통령말고 다른대통령들도 카메라 다 찍어라~~ 사생활모두 다 찍어라 ~

다른대통령들은 하나도 못찍고 노무현대통령님집만 찍냐? 언론사들 다들 고고생 .전직대통령님 많잖아..

이철하나옥 2010.12.25 12:49

T.T

이젠 편히 쉬시길...

T.T

달콤하니 2010.12.27 17:24

아직까지도 놓아드릴수가 없어요. 이를 어찌하나요ㅍㅍㅍㅍㅍㅍ 딱한번만이라도 뵈고싶어요.

하늘에 2011.03.25 12:36

오늘 흠피 이곳 저곳 다시 다 둘러보다가 이 글을 오랫동안 다시 접하고 나니 다시 또 눈물이 납니다..얼마나 답답 하셨을지 새삼 가슴이 먹먹합니다ㅍㅍ

임수빈 2011.03.29 18:14

보고싶고 오늘도 그리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멋진인생 2011.04.05 13:51

5월이 다가오니 더욱더 보고싶어지네요...

벌써 계절이 두번씩 바뀌었네요. 그곳에도 봄은 오나요?

항상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겠지요.

마음이 아픕니다. 직접뵈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가끔씩 들어와 직접쓰신 글들을 읽어보지만 볼때마다

가슴 저 깊은곳부터 아려웁니다.

정말 뵈고싶네요.....

문직이 2011.07.01 22:44

재임시에 언론과 검찰을 확실히 개혁하셔야했는데,

퇴임후에는 주인을 물어뜯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지금 살아계시다면,

한국의 현 위기대처에 큰 도움을 주실건데,

서거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지천서 2011.07.10 21:25

결국 님을보낸 죄책감을 민초들은 잊지말아야하며 다시는 사랑하는 이를 눈 앞에서 잃어서는 안된다고 다짐합시다. 깨어있는 민초가 되도록 가까이에서부터 행동하는 진정한 우리대한민국의 국민됩니다. 힘냅시다. 님이 정말 그립습니다

방구사랑 2011.08.17 20:02

가신분의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린다면,, 그나마 남아계신분들께 보탬이되어드려야 하지않을까합니다. 앞장서 같이하여드릴순 없지만,, 우리모두가 지켜드려야할분들은 계신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위에 설수있게 함께 돕겠습니다. 다만,,바람이 있다면,,절대,,절대로,,그위에선 그들과 타협하지 마시길.. 뵈고,, 또 뵈니다. 독제가 되어도 좋으니,, 뿌리뽑아야합니다.

묘청 2011.08.28 08:02

아... 왜 저는 이때 아무것도 몰랐었는지.. 다시금 후회가 됩니다...

아이리컬 2011.11.17 12:14

가슴이 먹먹 하네요.

뷰리에 2012.04.27 18:05

정말... 살아계셨다면..지금같이 어지러운 혼돈의 세상에서 밝은 빛이 되주셨을텐데.....

손평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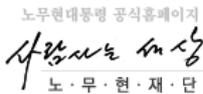
등록

목록

NO	제목	조회	글쓴이	등록일
38	[진보주의 글]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요? (2009.4.7 노무현) (36)	27315	운영자	2009.07.22
37	[진보주의 글] 줄거리 4차 초안입니다. 이 마당에서 토론을 해봅시다 (2009.3.20 노무현)	4519	운영자	2009.07.22

) (8)

36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제3차 초안입니다. 토론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2009.2.8 노무현) (6)	2938	운영자	2009.07.22
35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구성에 관하여 2차 초안 (2009.1.27 노무현) (4)	2701	운영자	2009.07.22
34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구성 1차 초안입니다 (2009.1.23 노무현) (27)	13701	운영자	2009.07.22
33	‘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달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1392)	387845	노무현	2009.04.22
현재글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 (1056)	289420	노무현	2009.04.21
31	강 금원이라는 사람 (1522)	354945	노무현	2009.04.17
30	부탁드립니다 (971)	157172	노무현	2009.04.08
29	사과드립니다. (1246)	186142	노무현	2009.04.07
28	좋은 글 하나 추천 드립니다. (122)	130865	노무현	2009.03.19
27	G20 재무장관회의 기사를 보고 (97)	56631	노무현	2009.03.15
26	상대주의와 보편적 가치 (107)	26082	노무현	2009.03.13
25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무엇인가요? (83)	30603	노무현	2009.03.12
24	토론마당 하나 소개합니다. (71)	26671	노무현	2009.03.07
23	관용의 한계는 누가 설정하는가? (83)	16585	노무현	2009.03.06
22	관용은 용서와 다릅니다. (164)	52297	노무현	2009.03.05
21	연속극 끝났는데... (271)	119264	노무현	2009.03.05
20	정치하지 마라. (275)	109593	노무현	2009.03.04
19	민주주의와 관용과 상대주의 (192)	28450	노무현	2009.03.01



우 (121-89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8-22, 서문빌딩 2층 | 전화 1688-0523 | 팩스 02-713-1219 | 이사장 이병완 | 사업자번호 105-82-17699
COPYRIGHT © 사람세상 노무현재단 ALL RIGHTS RESERVED. | 이메일 knowhow@knowhow.or.kr 노무현재단 찾아오시는 길

우 (621-803)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93 | 전화 055-344-1004 | 팩스 055-344-1007 | 이사장 권양숙 | 사업자번호 615-82-09681
COPYRIGHT © 재단법인 아름다운봄하 ALL RIGHTS RESERVED. 문화재단 찾아오시는 길

문의전화 회원·홈페이지·저작권 1688-0523 / 해외전용(직통) 070-7931-0535 / 요약·생각·자원봉사 055-344-1302 / 분하정터 1589-1946 / 생가집터 055-344-1005